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정책학박사 학위논문

정치관련성과 인사행정이 기업활동에 미친
영향 연구:

중국의 상장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을 중심으로

2019년 8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 전공

PIAO LONG

정치관련성과 인사행정이 기업활동에 미친

영향 연구:

중국의 상장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박상인

이 논문을 정책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04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 전공

PIAO LONG

PIAO LONG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년 06월

위 원 장	김 동 욱	(인)
부위원장	정 광 호	(인)
위 원	이 정 남	(인)
위 원	최 필 수	(인)
위 원	박 상 인	(인)

국문초록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지방정부 중심의 점진적인 시장화 개혁으로 장기간의 경제 성장을 이룩한 반면 지역 격차와 정경유착의 문제를 초래하였다. 주요 요소시장에 대한 정부독점, 행정규제, 국유기업의 경제력 집중으로 중국의 시장경제체제는 미숙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미숙한 시장경제체제에서 중국기업은 정부와의 밀접한 관계, 즉 정치관련성으로 외부충격을 최대한 줄이는 한편 정부의 특혜를 받아 기업성과를 높일 유인이 생기게 된다. 그러나 지방정부와 기업 사이의 유착관계는 정부부패와 기업부패를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경제의 지속성장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다.

중국기업의 정치관련성과 기업활동에 대한 실증분석은 극히 부족하다. 최근 중국 민영기업의 정치관련성이 기업의 융자규모, 세금부담 등에 대한 연구가 다소 있으나, 이러한 연구는 지역의 요인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중앙정부의 시당위서기(지역장)에 대한 빈번한 교체, 낙하산 등의 인사행정은 기업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정치관련성과 시당위서기의 인사행정이 기업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을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주요 설명변수인 기업 CEO의 정치관련성과 시당위서기 교체로 인한 정치불확실성, 낙하산 인사, 승진동기가 기업의 세금부담(제5장), 기업투자(제6장), 기업성과(제7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각 장에서 중국 특유의 역민영화 정책인 '국진민퇴'(국유기업 진출과 민영기업 퇴출)정책과, 시진핑의 반부패정책이 정치관련성을 통해 얻은 기업특혜에 대한 억제 효과의 정책효과를 함께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상장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확률효과모형과 합동OLS모형을 활용하여 실증적인 분석을 실행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제 5 장에서의 분석결과, 국유기업의 정치관련성이 기업의 세금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 주었다. 또한 시당위서기의 낙하산 인사행정은 국유기업의 세금부담을 높여주었다. 이는 낙하산 인사가 기존의 지역장과 기업의 정경유착을 통한 세금특혜를 줄여줄을 시사한다. 한편 시진핑의 반부패 정책은 정치관련성을 통해 얻은 국유기업의 세금특혜를 줄여주는 정책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민영기업의 경우 정치관련성이 기업의 세금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 주었다. 또한 시당위서기의 승진동기는 민영기업의 세금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었는데 이는 승진동기가 높은 시당위서기일수록 민영기업의 세금을 줄여주면서 지역경제에 대한 민영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참여로 지역경제를 끄러 올리려는 유인이 있음을 검증하였다. 한편 국진민퇴와 시진핑의 반부패 정책은 정치관련성으로 얻은 민영기업의 세금특혜를 줄여주지 못했다.

제 6 장에서의 분석결과 국유기업의 정치관련성이 기업의 투자를 실질적으로 늘려 주었다. 또한 시당위서기의 긴급교체에 따른 정치불확실성은 국유기업의 투자의 일시적 위축을 초래하였다. 한편 국진민퇴와 시진핑의 반부패 정책은 정치관련성으로 얻은 국유기업의 투자혜택을 줄여주지 못했다. 민영기업의 경우 정치관련성이 기업의 투자를 실질적으로 늘려 주었는데 이는 민영기업이 정치관련성으로 투자혜택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시당위서기의 낙하산 인사행정은 민영기업의 투자 위축을 초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영기업의 경우 국유기업처럼 중앙과 성에 수직계열화가 되지 않았기, 지역장의 상급교체에 따른 정치불확실성에 더욱 취약함을 의미한다. 한편 국진민퇴의 정책은 정치관련성을 통해 얻은 민영기업의 투자혜택을 줄여 주는 정책효과를 나타냈다.

제 7 장에서의 분석결과 국유기업의 정치관련성이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시당위서기의 승진동기가 국유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는데, 이는 지역장의 승진동기가 높을수록 국유기업의 성과가 높아짐을 의미하는 한편 지역장의 승진에 국유기업의 실적평가도 포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시진핑의 반부패 정책은 정치관련성을 통해 얻은 국유기업의 높은 성과를 줄여주는 정책효과를 나타냈다. 민영기업의 경우 정치관련성이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시당위서기의 낙하산 인사행정은 민영기업의 성과를 떨어뜨리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를 경로적인

접근으로 민영기업의 투자위축으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편 국진민퇴 정책과 시진핑의 반부패 정책은 정치관련성을 통한 민영기업의 높은 성과를 줄여주는 정책효과가 나타났다.

주요어: 정치관련성, 인사행정, 정경유착, 국유기업, 민영기업, 중국

학 번: 2015-30785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1
제 2 절 연구의 구성	5
제 2 장 연구의 배경.....	7
제 1 절 중국의 정치와 행정의 특징.....	7
제 2 절 행정지역 구분과 지역격차.....	14
제 3 절 지방 분권화와 시장화의 중국모델.....	20
제 4 절 중앙 집권화와 역시장화의 중국모델	30
제 3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39
제 1 절 기업의 정치관련성이 기업활동에 미친 영향	39
제 2 절 시당위서기 요인이 거시경제와 기업활동에 미친 영향.....	43
제 3 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8
제 4 장 연구설계.....	50
제 1 절 분석대상과 자료.....	50
제 2 절 연구문제 설정.....	53
제 5 장 정치적 요인이 기업 세금부담에 미치는 영향.....	55
제 1 절 정치적 요인이 국유기업 세금부담에 미치는 영향.....	55
제 2 절 정치적 요인이 민영기업 세금부담에 미치는 영향.....	64
제 3 절 소결	71

제 6 장 정치적 요인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73
제 1 절 정치적 요인이 국유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	73
제 2 절 정치적 요인이 민영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	81
제 3 절 소결	88
제 7 장 정치적 요인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90
제 1 절 정치적 요인이 국유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90
제 2 절 정치적 요인이 민영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98
제 3 절 소결	105
제 8 장 결론	107
제 1 절 종합적 결론	107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113
제 3 절 연구의 한계	116
참고문헌	117
부록 I 중국의 성(省)과 지급시(地级市)	126
부록 II 국자위 소속 공사의 상장 중앙기업	129
부록 III 직할시 포함한 실증분석 결과	134
Abstract	146

표 목차

표 1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와 당원 수	8
표 2 헤이룽장성 당 위원회 위원의 당·정·군·인민대 보직	11
표 3 중국의 행정과 간부 등급	12
표 4 2017년 성별 도시와 농촌의 소득&지출 격차(위안/배)	15
표 5 2017년 성도와 비 성도의 1인당 GDP 격차(위안/배)	16
표 6 성기준 동·중·서부 3대 지역의 분류	17
표 7 동·중·서부의 사회경제적 격차	18
표 8 성급지경의 경제성장 질적지수	19
표 9 1949~1978년 중국의 주요 정치·경제 개혁	20
표 10 1999-2003년 국유기업 상장사의 부분 & 완전 민영화 개수	25
표 11 시진핑의 주요 반 부패 정책과 성과	34
표 12 주요 연구문제	53
표 13 연구문제 1-1의 변수구성과 조작적 정의	56
표 14 연구문제 1-1의 기술통계량	57
표 15 연구문제 1-1의 분석결과	62
표 16 연구문제 1-2의 변수구성과 조작적 정의	65
표 17 연구문제 1-2의 기술통계량	66
표 18 연구문제 1-2의 분석결과	69
표 19 연구문제 2-1의 변수구성과 조작적 정의	74
표 20 연구문제 2-1의 기술통계량	75
표 21 연구문제 2-1의 분석결과	79

표 22 연구문제 2-2의 변수 구성과 조작적 정의	82
표 23 연구문제 2-2의 기술통계량	83
표 24 연구문제 2-2의 분석결과	86
표 25 연구문제 3-1의 변수구성과 조작적 정의	91
표 26 연구문제 3-1의 기술통계량	92
표 27 연구문제 3-1의 분석결과	96
표 28 연구문제 3-2의 변수구성과 조작적 정의	99
표 29 연구문제 3-2의 기술통계량	100
표 30 연구문제 3-2의 분석결과	103
표 31 국유기업의 종합적 결론	111
표 32 민영기업의 종합적 결론	112

그림 목차

그림 1 2003~2017년까지의 연도별 지급 시 당위서기 교체 수	31
그림 2 2003~2017년까지의 시서기 교체 중 낙하산인사 비중 추이(%)	32
그림 3 2004-2017년의 역민영화 상장사 수	38
그림 4 주요 설명변수와 연구가설	54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990년 이후, 소련과 동유럽의 붕괴로 중국체제에 대한 ‘붕괴론’과 ‘위기론’은 끊이지 않았다(Thomas Rawski, 2000; Goldstein & Lardy, 2004). 그러나 2008년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도 중국은 고도의 경제 성장을 기록해, 거대한 국내 시장과 자본력으로 세계경제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경제 개혁 초창기에 정치적 권위주의와 국가개입으로 경제 성장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중국모델론’의 우월성으로 부각되었다(Zhao, 2010; Kennedy, 2010, Harper, 2010; Lin, 2011; Williamson, 2012; Zhang, 2012; Bell, 2015).

그러나 지방정부의 불균형 발전전략은 지역격차와 정경유착을 초래하였다. 미숙한 시장경제 체제에서 비 시장적인 요인이 주요 생산요소 접근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Ajay Adhikari et al. 2006). 이로 인해 기업은 정부와의 밀접한 관계로 외부충격을 최대한 줄이는 한편 정부의 특혜로 기업성과를 높일 유인이 발생한다.

정부와의 밀접한 관계형성에 대한 연구는 기업의 정치관련성(Political Connection)이 있다. 이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기업의 경영진이 과거 정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거나, 현재 정부의 고위급 간부 혹은 국회의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경우로 정의한다(Fisman, 2001; Faccio, 2006; Khwaja & Mian, 2005). 해외의 연구에서 실제로 기업의 정치관련성이 기업의 융자, 세금 등에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실증연구가 있다(Adhikari et al., 2006; Faccio, 2006; Charumilind et al., 2006).

중국의 경우 2010년 이후부터 정치관련성이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아졌다. 주로 세금부담, 융자규모, 기업성과, 기업의 인수합병, 사회책임, 기술혁신 등에 대한 연구가 있었지만 이는 대부분 민영기업에서만 연구가 이루어 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영기업에 대한 실증분석도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아, 서로 상이한 실증분석 결과가 나온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실증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도

애매모호 하였다(Deng, 2011; Yu, 2017). 특히 정치관련성이 기업의 성과를 높여 주었으면, 어떤 경로를 통해 성과가 높아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관련성을 통해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로로 세금부담과 기업투자를 선택하였다. 1994 년 중국의 '분세제' 개혁으로 중국 지방정부는 재정수입에 있어 자주권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토지사용세, 토지증가세, 부동산 관련 세수는 전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이 되었으며, 부가가치세의 25%, 기업소득세의 40%, 개인소득세의 40%, 증권거래세의 3%가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이 되었다. 또한 최근 토지 매각을 통한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이 늘어 나면서, 기업관련 세금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Ba & Zhu, 2017).

중국은 주요 생산요소와 주요산업에 대한 정부의 독점과, 까다로운 행정규제 등으로 자유로이 투자를 확대하기 힘들다. 특히 금융권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투자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다(Che & Qian, 1998; 2003; Wang & Shi, 2006). 실제로 과거 중국의 경제성장은 투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주로 정부(공사 포함)와 국유기업을 통한 투자에 기인하고 있다. 이는 경제성장 초창기에 기업의 성과에 있어 투자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정치관련성을 통해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곧 기업이 정부로부터 더 많은 사업기회를 가지게 되거나, 정보의 획득, 융자편의를 보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연구에서의 또 다른 문제점은 기업의 정치관련성을 분석하면서 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것이다. Feng(2012)과 Yao & Xu(2014) 등의 연구에서는 지역변수로 동·중·서부 더미와 5개의 경제권 더미를 분석모형에 포함시켰으나, 이는 중국의 복잡한 지방정부 요인, 그 중에서도 기업세의 비중을 조정할 수 있고, 지역에서 정부(공사 포함)와 국유기업의 직접투자로 충분한 간섭이 가능한 지역장인 시당위서기에 대한 통제가 없었다.

나아가 중국의 상장기업의 경우 소속 시에 대한 통제, 소속 성에 대한 통제, 더 나아가서 지역장인 시당위서기의 인사행정 요인 변수에 대한 통제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중국 중앙정부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하고,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방간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빈번하고 갑작스런 임용과 낙하산 인사 등의 정책 등을 이어왔는데, 이 또한 기업의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지방 정부의 시당위서기의 인사행정 요인과 기업의 정치관련성을 함께 고려해야만 중국 특유의 정경유착을 제대로 이해하고 검증할 수 있다.

이 외에도 2003년 이후부터 중국의 경제발전 모델은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었다. 중국 중앙정부는 지방경제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요 산업에서의 국유기업 집중정책을 시도 하였다. 2003년에 '국가자산 감독 관리 위원회'를 설치하여 국유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다. 특히 2007년과 2010년에 걸쳐 기업 인수 합병법에 대한 두 차례의 법개정으로 주요 산업에서의 국유기업의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면서, 과거 국유기업의 민영화와 정반대인 민영기업의 국유화 정책으로, 이른바 '국진민퇴'의 역 시장화의 중국모델이 본격화 되었다(Wang & Yu, 2017). 2010년 전까지만 하여도 상장 국유기업 주도의 합병 건수가 연 50건에 불과하였지만, 법개정이 통과한 이후 2011년부터는 연 200건 이상의 합병이 이루어 졌다.

또 다른 거시적 환경의 변화로 시진핑의 반부패 정책이 있다. 2013년 시진핑 정부는 정부 주요 부처, 국유기업, 군대 등 국가 제반 분야에 대해 고 강도의 반 부패 정책을 펼 치,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정부의 고착화된 부패를 단절하고자 하는 개혁이 있다. 시진핑 정부가 들어선 이후 현재까지 재임 중이거나 퇴임한 국가급 간부 1명, 부국가급 간부 6명, 정부급 25명, 부부급 간부 100여 명을 공개 처벌했다. 특히 이미 퇴임한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귀뵈슝(郭伯雄)과 현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저우융캉(周永康)에 대한 부패 적발 및 처벌은 과거 퇴직한 고위급 간부 혹은 '형불상상위(刑不上常委)라는 외부적인 기본상식을 깨 버렸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첫째, 중국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정치관련성이 기업의 세금부담, 기업투자, 기업성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둘째, 중국의 복잡한 시당위서기 인사행정이 기업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셋째, '국진민퇴'와 '시진핑 반부패' 정책이 기업혜택(기업부패)을 줄여 주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17년의 상장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을 대상으로 실증적인 분석을 진행한다.

제2절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기업의 정치관련성과 시당위서기의 인사행정이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를 구성한다.

우선 제2장에서는 중국의 정치·경제 특성을 중심으로 연구배경을 정리한다. 제1절에서는 중국의 정치와 행정의 특징을 설명하여, 중국의 공산당 조직과 행정등급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을 전개한다. 제2절에서는 중국의 행정지역 구분과 지역격차를 설명하여, 중국의 성급정부와 지급시의 기본 맥락, 지역격차, 중국의 지방정부 중심의 불균형 발전 전략, 지방에 대한 중앙의 통제를 언급한다. 제3절과 제4절에서는 중국의 지방분권화와 시장화에서 중앙 집권화와 역시장화로 전변하는 새로운 중국모델을 소개한다.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2010년에 통과된 기업합병법을 소개함으로써 국유기업의 확장 정책의 본격화를 설명하고, 정치적으로 시진핑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논의로, 국가전략의 변화가 기업과 정부의 유착관계에 미치는 배경을 설명한다.

제3장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정리한다. 제1절에서는 기업의 정치관련성이 기업활동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해외와 중국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세금부담, 융자, 투자, 성과 등에 미치는 선행연구를 정리해 본다. 제2절에서는 시당위서기 요인이 거시경제와 기업활동(투자 중심으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3절에서는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차별성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본 연구의 설계부분이다. 제1절에서는 본 연구에 사용될 분석대상인 기업과 시간 범위를 정하고, 자료의 출처에 대해 설명한다. 제2절에서는 연구문제의 설정과 핵심 설명변수 중심으로 본 연구의 주요가설을 제시한다.

제5장, 제6장, 제7장은 본 연구의 실증분석 부분이다. 제5장에서는 기업의 정치관련성과 시당위서기 인사행정이 기업의 세금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을 나누어 분석을 실행한다. 제6장에서는 기업의 정치관련성과 시당위서기 인사행정이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을 나누어 분석을 실행한다. 제7장에서는

기업의 정치관련성과 시당위서기 인사행정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을 나누어 분석을 실행한다. 또한 정경유착에 대한 국진민퇴와 시진핑 반부패의 정책효과를 각 장의 실증분석에 포함한다.

제8장에서는 본 연구의 종합적 결론과, 연구의 이론적 및 정책적 시사점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를 제시한다.

제2장 연구의 배경

제1절 중국의 정치와 행정의 특징

1. ‘당정합일’의 정치·행정체제

1) 중국공산당의 발전사

중국의 정치를 모르면 경제구조 특이성을 이해하기가 힘들 듯이 중국공산당에 대한 논의가 없으면 중국정치에 대한 접근이 힘들다. 중국공산당(CPC: the Communist Party of China)은 1921년 7월 23일에 상하이에서 제1차 전국대표대회를 개최하여 ‘중국공산당제1강령¹’를 반포하였는데 이는 중국공산당의 창당을 의미한다. 당시 13명의 대표가 전국의 50여명 공산당을 대표하여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회의에서 천두슈(陈独秀)를 서기로, 장궈톈(张国焘)을 조직주임으로, 리다(李达)를 선전주임으로 선출하였으나 지방조직이 잘 형성되지 않은 원인으로 중앙위원회는 설립하지 않았다.

1920년 전후의 중국은 유럽, 미국, 일본 등 국가들의 침략으로 지방군벌을 중심으로 분리와 전쟁으로 이어진 공포의 시대였다. 이러한 국면에서 중국의 통일과 부흥을 위하여 중국공산당은 국제공산당과는 달리 비교적 융통적인 정책을 실시하여 당의 생존과 발전을 이어갔다. 중국공산당은 반식민지 반봉건의 혁명을 위하여 자산계급과의 연합을 시도하였으며 이들도 민주혁명의 하나²로 인정하였다.

이에 1924년 1월부터 1927년 7월까지 중국공산당은 중국국민당과

1) 해당 강령에는 첫째, 혁명군대는 무산계급과 함께 자본가 계급의 정권을 쟁취하고 노동자계급을 지원하여 사회계급의 구분을 소멸함. 둘째, 혁명은 사회계급의 소멸을 최종의 목표로 하고, 무산계급의 정권을 승인함. 셋째, 자본가를 중심으로 하는 사유 소유제를 소멸하고, 그들의 기계, 토지, 공장과 생산자료를 몰수함. 넷째, 제3국가와 연합함.

2) 1922년 중국공산당 제2차 전국대표대회에의 ‘중국공산당제2차전국대표대회선언’에서 이를 인정.

연합³하여 중국 지방의 군벌세력을 청산하고 전국을 통일하였으며, 1937년부터 2차로 국민당과 연합하여 ‘항일통일전선’을 체결하여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웠다. 아래 <표 1>와 같이 1945년 일본의 투항 전까지 중국공산당 당원 수는 크게 증가하였으며 당시 국민당과의 양립구조가 기본적으로 형성되었다.

표 1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와 당원 수

대회 ⁴	시간	장소	당원 수 ⁵	대회	시간	장소	당원 수
1	1921	상하이	50	11	1977	베이징	3,500 만
2	1922	상하이	195	12	1982	베이징	3,965 만
3	1923	광저우	420	13	1987	베이징	4,600 만
4	1925	상하이	994	14	1992	베이징	5,100 만
5	1927	우한	5.79 만	15	1997	베이징	6,041 만
6	1928	모스크바	4 만	16	2002	베이징	6,635 만
7	1945	앤안	121 만	17	2007	베이징	7,336 만
8	1956	베이징	1,073 만	18	2012	베이징	8,260 만
9	1969	베이징	2,200 만	19	2017	베이징	8,944 만
10	1973	베이징	2,800 만				

자료: Baidu 등

중일전쟁 이후 중국국민당과 중국공산당은 연합과 협상을 통한 공존을 떠나 전쟁을 선택하였으며 3년 간의 내전 끝에 중국공산당은 1949년 10월 01일에 모우저둥을 중심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을 선포하였고 사회주의 체제를 점차 확립하기 시작하였다.

2017년 말, 중국공산당은 전국에 8,956만 명의 당원과 456만여 개의 기층 당 조직을 보유하고 있다.

3) 이를 ‘제1차국공합작’이라고 함.

4) 중국공산당전국대표대회를 의미.

5) 대회 일시의 당원 수 데이터가 없을 시 해당 연도 말의 당원 수로 대체.

2) 중국공산당 조직 특성

중국의 최고 권력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있으나 중국공산당이 최고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는 중국의 일당집권 정당제도 때문이다. 헌법에 의하면 중국의 유일한 집권당은 중국공산당이며 8 개의 민주당과⁶는 참정당으로 정치적 협상과 참정이 가능하다. 중국공산당은 유일한 집권당으로서 최고의 영도기관으로 국가의 제반 권력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the Chinese People's Political Consultative Conference: CPPCC)⁷는 중국공산당의 영도 하에 설립된 가장 중요한 정치협상 기구이다.

중국공산당은 크게 중앙조직, 지방조직, 기층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주집중제의 원칙에 따라 주요 결정과 집행을 이어왔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당원 개인은 조직의 하나로 간주하고, 소수가 다수에 의해 결정되고, 하급조직이 상급조직에, 지방 당 조직이 중앙에 의해 결정되는 체계가 형성되었다.

당의 전국대표대회^{8 9}와 그에 의해 선출된 중앙위원회는 당의 최고 권력기관이다. 당의 전국대표대회는 기본적으로 5 년에 한번 개최¹⁰하고 중앙위원회 위원과 중앙기율검사위원회¹¹ 위원을 선출한다. 폐회기간에는

-
- 6) 8개의 민주당파에는 중국국민당혁명위원회, 중국민주동맹, 중국민주건국회, 중국민주촉진회, 중국농공민주당, 중국치공당, 구삼학사, 대만민주자치동맹이 있음.
 - 7) 1950년부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중국인민대표대회와 비슷한 시기에 개최하여 국가 운영에 있어서의 주요 문제를 논의하는 기능을 가지기에 이를 ‘양회’ 라고 약칭.
 - 8) 당의 전국대표대회에서는 주로 아래 6 가지를 수행. 첫째, 중앙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이를 심사. 둘째, 중앙기율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이를 심사. 셋째, 당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 넷째, 당의 당장을 수정. 다섯째, 중앙위원회를 선출. 여섯째, 중앙기율감찰위원회를 선출.
 - 9) 중국공산당 제19기 전국대표대회에 참석한 대표 수는 2,280명.
 - 10) 단,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필요할 시, 혹은 3분의 1의 지방 성급정부에서 요구할 시 먼저 개최할 수 있음.
 - 11)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지방기율검사위원회와 함께 중국공산당과 정부부처 주요 간부의 반 부패를 담당하는 기능을 가짐.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산하에는 조직부, 선전부, 법규실, 중앙순찰공작영도소조실 등이 있음.

중앙위원회전체회의^{12 13}가 당의 최고 영도기관으로 권력을 실행한다. 중앙위원회전체회의에서 중앙정치국,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을 선출한다. 중앙위원회 총서기는 중앙정치국과 상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업무를 주재하며 당 권력의 최 고위 간부이다.

중국공산당의 지방조직에는 성급조직인 성(성, 자치구, 직할시 포함)와 그 하급조직인 지급시(지급시, 자치주, 구, 맹)¹⁴에 당 대표대회가 5 년에 한번 거행된다. 지급시의 하급조직으로 협급시의 당 대표대회는 3 년에 한번 거행된다. 지방 당 위원회는 같은 등급의 당 대표대회에서 선출되어 대표대회 폐회기간 중에 지방의 최고 영도기관으로 대표대회의 결의를 집행하고, 정기적으로 상급 당 위원회에 보고를 받는다. 지방 각급 당위원회는 상무위원회와 서기를 선출하여 상급 당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직권을 행사한다.

기층조직에는 기업, 학교, 연구소, 도시의 주요 구와 단지, 농촌 등에 당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중국공산당 ‘당령’에 의하면 3 명 이상의 당원이 존재할 시 당 지부를 설립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전국에 456 만 여 개의 당 기층조직이 존재하는데, 이는 중국공산당이 자신의 주요 노선과 지침을 홍보와 집행 역할을 하는데 활용된다.

9,000 만 명에 가까운 중국공산당은 중앙부터 지방에 걸쳐 정부, 인민대표대회, 정치협상대회, 군대, 교육기관 등 정부와 그 관련부처에는 물론 민영기업, 합작기업, 시민단체 등에 이르기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당-국가’, ‘당-정부’, ‘당-사회’의 일체화가 형성되었다. 중국공산당의 이러한 조직구성으로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등에서 목표설정, 사회통합, 정치적 동원, 이익 배분 등의 조직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12) 중앙위원회전체회의는 최소 1년에 1번 이상을 개최하기로 함.

13) 중국공산당 제19기 전국대표대회에서 중앙위원회 위원 204명, 후보위원 172 명,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위원 133명을 선출함.

14) 이하 특별한 설명이 없으면 성에 자치구, 직할시가 포함되고 지급시에 자치 구, 구 맹이 포함.

중국의 ‘당정일체화’가 형성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성장과 지급시 시장은 물론 정부 주요부처의 간부 대부분이 중국공산당이기 때문이다¹⁵. 아래 <표 2>와 같이 헤이룽장성(흑룡강)의 경우 당위원회의 12명 위원 중, 부 서기 왕원토우는 성장 보직을 겸하고 있다.

표 2 헤이룽장성 당 위원회 위원의 당·정·군·인민대 보직

구분	성명	나이	성의 주요 보직
서기	张庆伟 (장칭웨이)	58	인대상위 ¹⁶ 주임 / 군당위서기
부서기	王文涛(왕원토우)	55	성장
부서기	陈海波 (천하이뵈)	57	-
위원	王常松(왕창송)	57	성 기율위원회 서기
위원	李海涛(리하이토)	56	부 성장
위원	李雷(리레이)	61	성 군사령관
위원	甘荣坤(간룽쿤)	57	성 정법위 서기
위원	王爱文(왕아이윈)	57	성 조직부 부장
위원	张雨浦(장위푸)	57	성 당 위원회 비서실장
위원	王兆力(왕조우리)	57	하얼빈시(성도) 서기
위원	贾玉梅(자유메이)	56	부 성장
위원	杜和平(뚜허핑)	56	성 통전부 부장

자료: Baidubaike 중심으로 정리

이 외에도 국가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인민대표대회 대표 중의 50% 이상¹⁷도 공산당원으로 구성된다. 위의 헤이룽장성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통상적으로 인민대표대회의 최고 권력자인 상무위원회 주임 직을 당 서기가 겸하고 있는 경우가

15) 2017년의 데이터에 의하면 31개 성급정부의 성장(성장 22명, 직할시장 4명, 자치주장 5명)과 333개 지급정부의 시장(시장293명, 자치주장 30명, 구장 7명, 맹장 3명) 모두 중국공산당으로 집계.

16)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약칭

17) 제 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2,985명 대표 중 중국공산당원이 2,178명으로 전체의 72.99%를 차지.

대부분이다¹⁸. 이로써 중국공산당은 인민대표대회와 정부를 통해 정부, 감찰기관 등의 주요 인사권과 정부 주요 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방 권력의 최 고위자인 시당서기를 주요 정치변수로 연구대상에 포함한다.

3) 중국의 당·정·군 5대 체계

중국은 중앙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수직적으로 5 개의 체계가 공존한다. 이 다섯 개의 체계는 명의상에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앞 절에서 설명 했듯이 실제로는 중국공산당의 조직특성 때문에 하나의 시스템 하에서 작동한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정치적 맥락하에 존재하는 세부적 행정 시스템을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5 대 체계에는 당, 인민대표대회, 정부, 정치협상회의, 군대가 있다. 이는 중앙부터 지방에 걸쳐 수직적으로 부처 등의 행정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간부와 지역에 대한 등급을 구성하였다. 간부의 경우 아래 <표 3>와 같이 중앙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국가급, 성급, 시급, 현급, 향급의 정직과 부직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성급을 부(部)급으로, 시급을 청국급(厅局)으로, 현급을 처(处)급으로, 향급을 과(科)급으로 표현한다.

표 3 중국의 행정과 간부 등급

구분		당·정·군 5대 체계				
		당체계	인대체계	정부체계	정협체계	군대체계
국가급	정	중공중앙총서기, 중앙정치국상무위원장	전국인민대표 위원장	국무원 총리	전국정치협상 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부	해당급 부직	해당급 부직	해당급 부직	해당급 부직	해당급 부직

18) 현재 중국의 27개 성(타이완, 홍콩, 마카오와 4개 직할 시 제외) 중 23개 성의 상무위원회 주임 직을 해당 성의 서기가 겸직하고 있음. 단 허난성, 광시성, 스촨성의 주임 직은 현재 공석이고 신장 자치구는 서기와 주임이 다름.

부 (성 급 급)	정	성당위원회서기, 중앙당 부처 정직	성인민대표 대회 주임	성장, 중앙정 부 부처 정직	성정치협상 회의 주석	부대군구직, 정군직 (상장, 중장)
	부	해당급 부직	해당급 부직	해당급 부직	해당급 부직	부군직
청 (지 국 급 시급)	정	시당위원회서기, 성당위 부처 정직	시인민대표 대회 주임	시장, 성급정 부 부처 정직	시정치협상 회의 주석	정사직 (대교, 소장)
	부	해당급 부직	해당급 부직	해당급 부직	해당급 부직	부사직
처 (현 급 급)	정	현당위원회 서기, 시당위 부처 정직	현인민대표 대회 주임	현장, 시급정 부 부처 정직	현정치현상 회의 주석	정단급 (상교, 중교)
	부	해당급 부직	해당급 부직	해당급 부직	해당급 부직	해당급 부직
과 (향 급 급)	정	향당위원회서기, 현당위 부처 정직	향인민대표 대회 주임	향장, 현급정 부 부처 정직		정영급 (소교, 중교)
	부	해당급 부직	해당급 부직	해당급 부직	해당급 부직	해당급 부직

자료: Baidubaike 중심으로 정리

제2절 행정지역 구분과 지역격차

1. 행정지역의 구분

중국 지방의 행정지역도 위의 행정등급처럼 성급, 지급, 현급, 향급으로 나눈다. 성급행정지역은 23 개의 성, 5 개의 자치구, 4 개의 직할시, 2 개의 특별행정구로, 합계 34 개¹⁹ 있다. 지급시행정지역의 경우 293 개의 시, 30 개의 자치주, 7 개의 지구, 3 개의 맹으로 합계 333 개가 있다²⁰. 현급시행정지역은 전국에 2,851 개가 있으며, 향급행정지역은 40,497 개가 있다.

2. 지역격차의 고착화

행정지역의 격차를 행정지역 내와 외의 격차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행정지역 내의 격차에는 도시와 농촌의 격차와 성행정중심도시(이하 '성도')와 비 성도의 격차로 볼 수 있고 행정지역 외의 격차는 동·중·서부 지역의 격차와 성급지역의 격차로 접근할 수 있다.

1) 도시와 농촌의 격차

아래 <표 4>와 같이 중국의 도시와 농촌의 주민소득 격차는 아주 심각하다. 2017 년의 데이터로 볼 때 홍콩, 마카오, 타이완과 4 개의 직할시를 제외한 27 개의 성의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는 2 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귀이저우, 윈난, 산시, 간수, 칭하이성의 경우 도시의 소득이 농촌의 3 배를 넘어서고 있다.

중국의 도·농 격차에는 소득의 격차 외에 교육, 의료 등 복지에서의 차이도 포함되어 있다(Luo, 2006). 이러한 격차 형성의 원인에는 중국의

19) 단 중국 국내의 실증연구에서는 타이완성,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를 제외하기에 본 연구도 31개 성급지역만 분석대상에 포함함.

20) 상세한 내용은 <부록 I> 참조

권력구조가 상급지역인 도시에 지나치게 집중 되어 정부정책에서도 장기간 도시에 유리한 개혁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Wang, 2005; Liu & Lu, 2006).

표 4 2017년 성별 도시와 농촌의 소득&지출 격차(위안/배)²¹⁾

성	1 인당 가처분소득			1 인당 소비지출		
	도시	농촌	배수	도시	농촌	배수
허베이	30,548	12,881	2.37	20,600	10,536	1.96
촐시	29,132	10,788	2.70	18,404	8,424	2.18
네이멍구	35,670	12,584	2.83	23,638	12,184	1.94
랴오닝	34,993	13,747	2.55	25,379	10,787	2.35
지린	28,319	12,950	2.19	20,051	10,279	1.95
헤이룽장	27,446	12,665	2.17	19,270	10,524	1.83
장수	43,622	19,158	2.28	27,726	15,612	1.78
저장	51,261	24,956	2.05	31,924	18,093	1.76
안휘이	31,640	12,758	2.48	20,740	11,106	1.87
푸젠	39,001	16,335	2.39	25,980	14,003	1.86
장시	31,198	13,242	2.36	19,244	9,870	1.95
산둥	36,789	15,118	2.43	23,072	10,342	2.23
허난	29,558	12,719	2.32	19,422	9,212	2.11
후베이	31,889	13,812	2.31	21,276	11,633	1.83
후난	33,948	12,936	2.62	23,163	11,534	2.01
광둥	40,975	15,780	2.60	30,198	13,200	2.29
광시	30,502	11,325	2.69	18,349	9,437	1.94
하이난	30,817	12,902	2.39	20,372	9,599	2.12
스촨	30,727	12,227	2.51	21,991	11,397	1.93
궈이저우	29,080	8,869	3.28	20,348	8,299	2.45
윈난	30,996	9,862	3.14	19,560	8,027	2.44
시장	30,671	10,330	2.97	21,088	6,691	3.15
산시	30,810	10,265	3.00	20,388	9,306	2.19

21) 타이완, 홍콩, 마카오와 직할시 4개는 분석에서 제외.

간수	27,763	8,076	3.44	20,659	8,030	2.57
칭하이	29,169	9,462	3.08	21,473	9,903	2.17
닝샤	29,472	10,738	2.74	20,219	9,982	2.03
신장	30,775	11,045	2.79	22,797	8,713	2.62

자료: 중국통계국

2) 성도와 비 성도의 격차

하나의 성에 대부분 10 개 정도의 지급시를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공산당의 조직특성과 간부체계 등으로 성도에 정치 권력이 집중되어 있어, 기업의 경우에도 성도의 정치적 특혜를 받는다. 이로 인해 중국의 성도와 기타 도시의 발전수준은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아래 <표 5>에서 2017년의 1인당 GDP의 경우 성도가 전체 성에 비해 최소 1.42 배에서 최대 3 배 정도의 격차를 보여준다. 특히 2 배 이상의 격차를 보여주는 성으로는 쑤시, 안휘이, 장시, 허난, 허베이, 후난, 광둥, 스촨, 귀이저우, 윈난, 시장, 간수, 신장 등 13 개로 전체 성의 48% 이상을 차지한다.

표 5 2017년 성도와 비 성도의 1인당 GDP 격차(위안/배)²²⁾

성	전체	성도	배수	성	전체	성도	배수
허베이	45,387	66,382	1.46	후난	49,558	148,641	3.00
쑤시	42,060	91,616	2.18	광둥	80,932	239,491	2.96
네이멍구	63,764	112,980	1.77	광시	38,102	54,420	1.43
랴오닝	53,527	79,584	1.49	하이난	48,430	81,297	1.68
지린	54,838	87,193	1.59	스촨	44,651	96,768	2.17
헤이룽장	41,916	66,545	1.59	귀이저우	37,956	86,649	2.28
장수	107,150	172,111	1.61	윈난	34,221	86,283	2.52
저장	92,057	167,180	1.82	시장	39,267	88,162	2.25
안휘이	43,401	97,117	2.24	산시	57,266	82,478	1.44
푸젠	82,677	102,450	1.24	간수	28,497	77,516	2.72

22) 타이완, 홍콩, 마카오와 직할시 4개는 분석에서 제외

장시	43,424	95,361	2.20	칭하이	44,047	62,502	1.42
산둥	72,807	111,898	1.54	닝샤	50,765	95,618	1.88
허난	46,674	108,402	2.32	신장	44,941	123,251	2.74
후베이	60,199	157,094	2.61				

자료: 국가통계국

3) 동·중·서부의 격차

34 개의 성급행정지역과 333 개의 지급시 행정지역의 구분은 역사적인 경험과 사회, 경제, 민족, 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의 관리 편의성에 따라 구분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사회경제 문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지리적 특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동·중·서부의 분류법이 유용하게 쓰인다.

아래 <표 6>와 같이 중국정부는 경제성장에 있어서의 지역 간의 빈부 격차를 고려하여 제 7 차 5 개년 국가계획 시기(1986~1990 년)에 경제적 발전수준에 따른 동·중·서부 3 대 지역 구분법을 발표하였다.

표 6 성기준 동·중·서부 3대 지역의 분류

구분	성(직할시, 자치구 포함)
동부	랴오닝, 베이징, 톈진, 상하이, 허베이, 산둥, 장수, 저장, 푸젠, 광둥, 광시, 하이난 등 12 개 성
중부	헤이룽장, 지린, 쑤시, 네이멍구, 안휘이, 허난, 허베이, 후난, 장시 등 9 개 성
서부	충칭, 스촨, 윈난, 귀이저우, 시장, 산시, 간수, 칭하이, 닝샤, 신장 등 10 개 성

*타이완성,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제외

자료: Baidubaike 중심으로 정리

동·중·서부의 격차에는 경제발전과 교육, 의료 등의 복지 수준에서의 차이와 시장화 진척을 의미하는 정부와 시장의 관계, 비 국유기업의 발전, 상품시장의 성숙도, 요소시장의 성숙도, 시장의 메커니즘의 역할 등에 있어서도 동부가 중부보다, 중부가 서부보다 좋은

성과를 가져오고 있다(Chen, 1997; Guo & Wang, 2003; Wang & Fan, 2004; Xia & Chen, 2007; Wang & Tan, 2008).

아래 <표 7>와 같이 인구, 1인당 GDP, 재정수입 등에 있어서 동부가 중부보다, 중부가 서부보다 높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 총 인구의 경우 동·중·서부의 격차는 크지 않다. 인구의 경우 동부는 서부의 1.5 배 정도이지만, 1인당 GDP 은 서부의 1.8 배이고 재정수입은 서부의 3.1 배를 기록하고 있다.

표 7 동·중·서부의 사회경제적 격차

연도	인구(만명)			1인당 GDP(위안)			재정수입(억위안)		
	동	중	서	동	중	서	동	중	서
2008	53,169	42,025	36,240	36,503	18,746	16,680	18,086	5,405	5,159
2009	53,889	42,169	36,385	39,319	20,499	18,407	20,378	6,168	6,056
2010	55,040	42,276	36,069	45,510	24,871	22,570	25,010	7,729	7,873
2011	55,446	42,374	36,222	52,949	30,119	27,672	31,384	10,344	10,819
2012	55,850	42,511	36,428	57,429	33,382	31,268	35,784	12,531	12,763
2013	56,208	42,671	36,637	62,621	36,421	34,652	40,096	14,470	14,445
2014	56,560	42,847	36,839	66,960	39,098	37,487	44,007	15,995	15,875
2015	56,901	43,054	37,133	70,588	40,901	39,054	48,594	17,195	17,214
2016	57,329	43,241	37,414	75,430	44,127	41,917	52,227	17,747	17,265
2017	57,733	43,406	37,695	81,625	47,766	44,717	54,888	18,794	17,787

자료: 국가통계국

4) 성급지역의 격차

위의 도·농 격차와 성도·비성도의 격차에서도 알 수 있듯이 GDP와 가계소득 등에서 성급지역 간의 격차는 아주 크다. 그러나 Li Qiang와 Li Xinhua(2018)은 중국의 지역격차를 단순한 GDP 격차가 아닌 경제성장의 질적 차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경제구조, 과학 및 혁신능력, 민생, 자원 및 환경, 대외개방 등 5개의 상위 분류와 이에 따른 23개의 하위분류로 1997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 지역의 ‘경제성장질적지수’를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1997년 이후 해당 질적지수의 격차가 한층 더 커졌다.

표 8 성급지경의 경제성장 질적지수

지역	1997	2006	2016	지역	1997	2006	2016
베이징	1.58	2.43	3.40	허난	0.94	1.29	2.26
톈진	1.51	2.09	3.06	후베이	1.03	1.31	2.28
하베이	1.09	1.36	2.33	후난	0.95	1.27	2.24
산시	0.85	1.24	2.21	광둥	1.52	2.00	2.97
네이멍구	0.93	1.47	2.44	광시	0.93	1.21	2.18
랴오닝	1.13	1.60	2.57	하이난	0.60	1.16	2.13
지린	1.02	1.41	2.38	충칭	0.83	1.26	2.23
헤이룽장	0.98	1.31	2.28	스촨	0.84	1.20	2.17
상하이	1.89	2.59	3.56	귀저우	0.60	0.89	1.86
장수	1.32	2.02	2.99	윈난	0.73	1.06	2.03
저장	1.32	2.17	3.14	산시	0.81	1.24	2.21
안휘이	0.88	1.21	2.18	간수	0.65	0.98	1.95
푸젠	1.38	1.73	2.70	칭하이	0.27	1.03	2.00
장시	0.94	1.36	2.33	닝샤	0.65	1.10	2.07
산둥	1.13	1.69	2.66	신장	0.83	1.20	0.34

자료: Li Qiang와 Li Xinhua(2018)

위의 도·농 격차, 성도와 비 성도의 격차, 동·중·서부의 격차의 형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은 지역 불균형의 성장모델로 지금까지 개혁과 성장을 이어왔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성장, 부패 등의 실증연구에 있어 이러한 격차에 대한 이해와 통제가 필요하다.

제3절 지방 분권화와 시장화의 중국모델

1. 지방정부 주도의 불균형 성장전략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후 중국은 아래 <표 9>와 같이 구소련의 사회주의체제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제체제 개혁을 추진하였다.

표 9 1949~1978년 중국의 주요 정치경제 개혁

연도/기간	주요내용
1949~1952	국제 자본주의, 국내 대 자본주의에 대한 국유화
1953~1956	공업, 상업, 농업에 대한 국유화와 집체화(사회주의 경제 체제 확립)
1957~1965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고도화(인민공사화와 대약진 운동, 59~61년의 3년 대기근, 중소관계의 파열)
1967	대학입시제도 폐지
1966~1976	문화대혁명
1977	대학입시제도의 회복
1976~1977	모택동의 사망과 등소평을 위주로 하는 새 지도부의 형성

그러나 이러한 급진적인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확립과 고도로 집중된 계획경제체제는 중국경제의 파산 위기를 초래하였다. 세계은행의 자료에 의하면 1978년 중국의 일인당 소득은 156달러로, 동년 사하라사막 남부의 아프리카 국가 일인당 소득의 1/3미만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중의 하나라 몰락하였다.

1978년 중국공산당 제11기 3중 전회는 개혁개방의 시작을 의미한다. 개혁개방 정책은 크게 대내적인 개혁과 대외적인 개혁이 포함된다. 대내적인 개혁에는 농촌에서의 집체경영에서 '가족단위생산책임제'로 가족의 구성원 수에 따라 토지를 나누어 개인이 경영하고 책임지게 하였고, 도시에서는 민영기업을 허락하였으며 그 범위와 업종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으로 개혁을 추진하였다. 대외적인

개혁도 점진적인 방법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경제특구의 설립을 시작으로 연해 주요도시, 내륙 주요도시, 전국으로의 확대로 개혁을 추진하였다.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은 불균형적이고, 점진적으로 진행되었다. 중국의 중앙정부는 개혁초기 순차적으로 일부 지역에만 정치적인 특혜를 주어 경제성장에 있어서의 지방정부의 자주권을 확대시켰다. 대표적으로 1980년, 중국 중앙정부는 홍콩, 마카오, 대만과 인접한 지리적 우위와 화교 자본의 유착과 활용을 기대하면서 광둥성의 선전(심천), 주하이(주해), 쑤터우(산두)시와 복건성의 샤먼(하문)시 등 4개 도시의 일정지역을 경제 특구로 설립해 중앙의 규제와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대외자본 유착정책을 펼치도록 하였다.

경제특구에 대한 주요정치 개혁은 아래와 같다. 첫째, 최대한의 자주권을 부여하였다. 1980년 중앙은 여러 특구를 설립하면서 '특수한 일에 대해 특수한 방법으로, 새로운 일에 대해 새로운 방법으로, 자주적으로 처리'할 특권을 부여하였다. 이로 인해 특구 시정부는 대부분 업무에 대해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으며,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특구관리위원회에서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상급 정부인 성정부의 영향에서 큰 자주권을 얻게 되었다.

둘째, 행정심사의 간결화이다. 특구 도시는 행정업무의 간결화와 효율화, 외국자본 유착 등에 있어서 국가적인 중대한 지침을 어기지 않는 한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되었다. 선전시의 경우 1981년부터 2009년까지 총 8차례의 행정개혁을 추진하여 284개의 행정심사를 취소하거나 조정하였다.

셋째, 간부채용에 있어서의 혁신이다. 특구설립 전까지 정부의 중급 이상의 간부는 성정부 혹은 중앙에서의 임명으로 타 지역 간부의 이동이거나 현 지역 간부의 승진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선전시를 포함한 특구에서는 젊고 유능한 간부들을 공채로 뽑을 수 있게 되었는데, 1980년부터 1988년까지 48,000명의 중급 간부를 채용하게 되어 경제개혁에 있어서의 인적 기반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중국의 특구정책은 1984년부터 연해지역(동부)의 주요도시²³로 확대하였으며, 1989년까지 주요도시를 기반으로 연해개방구를 확립하였다. 지방정부로의 권력이양과 자주권 확대정책으로 경제성장에 있어서의 성과를 크게 보면서, 중앙정부는 1990년부터 1993년까지 순차적으로 중국 내륙 지역의 주요 도시로의 개혁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점진적이고, 불균형적인 지방정부 주도의 경제성장 전략은 지역격차의 고착화와,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 약화가 나타나게 되어, 중국공산당의 일당통치와 중앙정부 주도의 경제개혁에 큰 걸림돌이 되었다.

23) 다랜(대련), 친황도(진황도), 탕진(천진), 앤타이(연태), 칭도우(청도), 란윈강(연운강), 난통(남통), 상하이(상해), 닝뽀(녕파), 윈저우(온주), 푸저우(복주), 광저우(광주), 짬장(담갈), 베이하이(북해).

2. ‘국퇴민진’의 시장화 경제개혁

1) 국유기업의 경영 자주권 확대기(1978~1992년)

개혁초기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도 농촌에서의 개혁과 대외개방 정책처럼 점진적인 과정을 거쳤다. 1978년 10월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스완성의 6개 국유기업에서 경영 자주권을 확대하는 시범 정책을 실행하였다. 해당 시범 정책에 따라 국유기업은 영업 범위와 경영활동에 있어 일정한 자주권을 가지게 되었고, 초과 영업이익에 대해 기업 내부에서 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시범 개혁이 좋은 성과를 보이면서 다음해 2월에 스완성은 ‘방권양리(放权让利)’에 관한 14가지 정책을 제정하여 추가로 100개 국유기업에 대해 개혁을 확대하였다.

1979년 5월 국가경제무역위원회와 재정부 등 6개 관련 부처의 공동성명으로 베이징, 톈진, 상하이시의 8대 국유기업에 대해 경영 자주권 확대정책을 실행하였다. 동년 7월에 국무원은 ‘국유 공업기업 경영관리 자주권 확대 규정’²⁴에 따라 국유기업 자주권에 대한 10가지 범위와 내용²⁵을 반포하였다. 1984년 5월, 국무원은 국유기업의 경영, 유통, 상품가격, 자산구매, 자금사용, 자산처치, 기구설치, 인사노동관리, 성과급, 연합경영에 대한 기업의 자주권을 한층 더 확대하는 ‘국유공업 기업자주권 진일보 확대 규정’²⁶을 반포하였다.

국유기업 자주권 확대에 대한 중앙정부의 여러 격려 정책 하에 지방정부는 국유기업의 경영 자주권과 이윤의 자아 배분을 가능케 하는 이른바 ‘기업승포제(企业承包制)’²⁷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로 인해

24) 원문: 关于扩大国营工业企业经营管理自主权的若干规定

25) 첫째, 국유기업은 국가의 계획을 완성하는 전제하에 제품 판매를 자주적으로 결정. 둘째, 국유기업의 이윤 보유를 허락. 셋째,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률을 점차 높임. 넷째, 고정자산 유상사용 제도 도입. 다섯째, 유동자금에 대한 신용대출 제도를 도입. 여섯째, 신제품 개발을 격려. 일곱째, 기업은 제품을 수출할 수 있음. 여덟째, 국유기업은 국가의 계획하에 자주적으로 직원을 채용. 아홉째, 국유기업의 결정기구의 설치와 중급 이하의 간부 채용이 가능. 열째, 기업의 추가적 부담을 최소화.

26) 원문: 关于进一步扩大国营工业企业自主权的暂行规定

27) 일정 기간 동안 국가와의 계약을 통해 임대료(이윤)를 지불하고 자아경영을

국유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경영이 없어지게 되었고, 국가 계획경제에 대한 개혁 돌파구가 형성되었다. 한편 경영위기에 빠진 국유기업의 경영성과의 개선과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도 크게 줄여주었다(Yang, 2013).

철강을 생산하는 대표적 기업인 ‘서우강’의 경우 1981~1986 년 사이에 기업승포제를 개혁을 통해 정부에 35 억 위안 이상의 이윤을 창출하였는데 이는 개혁개방 전 30 년의 기업이윤을 초과하였다. 또한 해당 기간 서우강은 8 억 3 천만 위안의 고정자산을 누적 창출하였다. 이로써 1986 년 12 월에 국무원은 ‘기업개혁과 기업활력 증가에 관한 심층적 규정’²⁸을 반포하면서 기업승포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였다.

1987 년 말까지 23 개 성과 지치구, 직할시의 전체 국유기업 중 78% 이상이 기업승포제를 도입하였다(Zhang, 2006). 해당 기간의 국유기업에 대한 경영 자주권 확대 개혁으로 ‘정·경’의 분리가 시작되었고 경제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간섭이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승포제는 단순히 국유기업을 정부로부터 분리시키는 독립적인 기업체로 변이 했으며, 경영실적이 좋은 기업만 승포제가 도입 되었거나, 도입 이후에도 경영난과 기업부채에 대한 책임은 최종적으로 정부의 재정적 부담으로 돌아갔다²⁹. 이러한 단순한 경영권 분리로 국유기업 공익의 실현, 정부 정책의 실행 등에 있어 국유기업 본유의 기능을 점차 상실하게 되는 폐단이 발생하게 되었다(Liu, 1999; Cheng, 2004; Yang, 2013).

2) 현대기업제도의 도입과 민영화기(1993~2003년)

경영 자주권 확대를 중심으로 이어진 10여년 간의 개혁으로 국유기업은 정부의 직접 간섭에서 어느 정도의 자주권을 부여 받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국유기업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하는 제도

28) 원문: 关于深化企业改革增强企业活力的若干规定

29) 실제로 산둥성 주청시의 조사에 의하면 1992년 해당 시의 150 개 국유기업 중 마이너스 영업이익을 기록한 회사는 103 개로, 시 전체의 1년 재정수입 규모에 상당.

줄여주고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위하여 1993년 11월 중국공산당 제14기 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문제에 관한 중국공산당의 결정’³⁰을 통과하면서 국유기업에 대한 현대기업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경제체제의 개혁을 시작하였다.

현대기업제도의 도입에 따라 기업의 법인화와 주식 책임소유제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고 다량의 국유기업 민영화³¹ 열풍이 불어오기 시작하였다. 1997년까지 전국의 5만여 개 국유기업 중 22%의 기업이 현대기업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도입 진행 중인 국유기업은 50%를 초과하였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80% 이상이 현대기업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Yang, 2013).

1999년 9월 중국공산당 제15기 4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유기업 비중을 줄이는 것이 사회주의 특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지를 밝히면서 지방정부의 국유기업 민영화 열풍이 다시 불게 되었다. 이는 중앙정부의 중·소 규모의 부실 국유기업에 대한 민영화 전략을 넘어서, 아래 <표 10>와 같이 지방정부는 국유대기업의 민영화까지 추진하였다. 이로써 2003년까지 국유기업에 대한 민영화 여부가 유일한 국유기업의 개혁 성과로 간주 되면서,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국유기업의 전부를 민영화 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Yang, 2013).

표 10 1999-2003년 국유기업 상장사의 부분 & 완전민영화 개수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합계
제조업	49	62	34	31	22	198
기타	17	41	17	18	20	113
합계	66	103	51	49	42	311

자료: CSMAR

해당 기간의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 성과에는 현대기업제도의 도입과 소유구조의 다양화가 가장 대표적이다. 이 기간의 개혁을 통해 양적으로

30) 원문: 中共中央关于建立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若干问题的决定

31) 민영화의 방법에는 개인이나 민영기업에 직접 매각을 하거나 소유구조 다양화 등이 있음.

국유기업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이는 민영기업과 외국계 기업의 사업 확대를 가능케 하여 시장경제체제에 큰 활력소로 작동되었다(Li & Zhang, 2008).

그러나 2004 년 이후부터 국유기업에 대한 과도한 민영화 개혁에 반대의 목소리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반대의 이유를 종합해 보면 크게 아래와 같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국유기업의 매각가격이 시장가격보다 훨씬 낮게 책정되어 국부유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Zhang, 2004; Li & Hu, 2004; Liu & Shen, 2006; Xu & Meng, 2007). 둘째, 일반적으로 국유기업의 민영화는 기업성과를 높여주지만 중국의 경우 민영화는 마이너스 성과를 가져왔다는 실증결과가 대부분이었다³² (Sun & Tong, 2003; Rousseau & Xiao, 2008; Jiang, 2009). 셋째, 국유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 지방정부와 국유기업 고위급 간부들의 부패 사건³³들이 늘어나면서 정경유착의 문제가 나타났다(Zhang & Han, 2003; Zhang, 2008; Chen & Chen, 2009).

32) 단 일부 학자들은 부분 민영화가 아닌 경영권이 민간으로 이전하는 완전 민영화의 경우 기업성과가 좋아졌다는 반론(Xu et al., 2005; Chen et al., 2008; Yang, 2010)도 제기.

33) 2005년의 경우 1월에만 10개 상장사의 11명 고위급 간부들이 정부와의 부패 문제로 적발(Wang, 2007).

3. 소결

중국의 지방정부 주도의 불균형 성장전략은 실제로 지방정부가 지역 경제에 대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주권을 부여하게 되었다. 특히 중국 지방정부는 주요 요소시장에 대한 독점(Luo, 2010; Zhou, 2010; Wu & Li, 2010; Cai, 2010; Sun & Zhou, 2013), 지방국유기업을 통한 영향력 행사 때문에 지역경제에 있어서의 지방정부의 권력이 클 수밖에 없다(Tang & Zhou, 2010; Cao & Ma, 2014; Liu & Liu, 2014).

1) 지역경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영향력

가. 요소시장에 대한 독점적 권력

첫째, 지방정부는 토지에 대한 독점적 소유로 지역경제와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한다(Luo, 2010; Zhou, 2010). 중국은 ‘헌법’, ‘민법통칙’, ‘토지관리법’에서 토지에 대한 국가의 독점 소유권을 확립하였으며 개인은 토지에 대해 사용권만 가지고 있다. 또한 ‘토지관리법’ 제8조 4항에 의하면 “국가는 공공이익을 위하여 개인이 사용 중인 토지를 징용할 수 있다”고 명문화 하였다.

토지에 대한 지방정부의 독점으로 토지 요소시장이 왜곡되었으며, 지방정부는 이를 통해 막강한 재정수입을 얻었는데, 이를 ‘토지재정’이라고 한다(Zhou, 2010). 토지 매매를 통한 지방정부의 수입은 1999년의 300억 위안에서 2011년에는 2조 7,000억위안으로 90배 정도 늘어났다(Sun & Zhou). 이 외에도 토지에 대한 지방정부의 독점으로 정부는 도시계획을 통해 영향력을 도시 전반에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Wu & Li, 2010).

둘째, 지방정부는 ‘호적제도’을 통해 노동력 시장에 대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Guo & Zhao, 2009). 중국은 거주지의 이전에 따라 호적지의 변경을 할 수 없다. 해당 거주지(도시)의 호적을 얻으려면 일반적으로 결혼 이후 배우자 호적지로 이전하려는 자, 대학을 졸업하고 6개월 이내에 취업을 하는 자³⁴, 특수인재로 해당정부의 허락을 받은 자여야

34) 이럴 경우 도시가 좋을수록 더욱 까다로운 조건들로 구성. 상하이시의 경우

만이 가능하다(Cai, 2010).

호적이 중요한 원인은 호적이 없으면 실제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시의 의료, 교육 등의 복지를 향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호적 취득에 관해 정부는 기본적으로 기업에 할당을 주는데, 이를 국유기업이나 정부부처 혹은 지역경제 성장에 필요한 혜택 기업들에게 부여한다. 지방정부는 호적제도를 통해 노동력 시장을 왜곡하고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한다(Wang & Cai, 2010).

셋째, 지방정부는 중국의 4대 국유은행³⁵과 지방은행에 대한 독점으로 자본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한다(Luo, 2013). 지방정부는 이러한 은행에 대한 독점으로 이자율의 자유화를 억압하고, 지방 국유기업, 정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업에 비교적 저렴한 이자율로 대출을 준다(Yu, 2011; Lv, 2015). 이는 직접적으로 중소기업의 융자 난의 악과(惡果)를 초래하였다(Xing & Liang, 2013).

나. 지방 국유대기업의 확장 정책

지방정부는 지방국유기업을 통해 지역 경제 전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 대형 국유기업들은 우선적으로 부동산개발, 석탄, 희토류 등 자원성 산업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고, 지방정부의 반 시장적 수단으로 독점을 강화하여, 시간이 지나면서 자본과 자원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성 영역에까지 사업을 확대하게 되었다.

2) 정경유착의 형성과 고착화

경제 발전 초기 시장경제체제는 미숙한 상태이며 비 시장적인 요인이 주요 생산요소의 획득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Ajay Adhikari et al.

취업을 통해 호적을 얻으려면 72점 이상의 누적 점수를 받아야 함. 점수는 엄격한 평가기준(학력 등급 최대 27점; 출신학교 등급 최대 15점; 대학성적 등급 최대 8점; 외국어 등 자격증 최대 15점; 국가급, 성급, 시급 표창과 자원봉사 최대 15점; 상하이시 인재유착 등 최대 22점)을 따라 실제로 호적을 얻은 자는 극 소수에 불과함.

35) 중국공상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2006). 한국, 일본, 대만 등 주요 동아시아 발전 국가들처럼 경제성장 초기에 발생하는 정경유착을 불가피한 현상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Bai, 2009).

요소시장에 대한 정부의 독점으로 중국 기업은 정치관련성³⁶을 높여 정치적인 특혜를 받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이는 심각한 정경유착을 형성될 우려가 있다(Zhou, 2007). 이러한 중국기업 경영진의 정치관련성을 중심으로 하는 정경유착은 단기적으로 기업에 있어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의 확대(Zhu, 2009), 세금부담 (Claessens et al., 2008; Charumilind et al., 2006; Xu, 2011; Bai et al., 2006; Li et al., 2008), 융자 (Fisman, 2001; Johnson and Mutton, 2003; Faccio, 2004; Fan et al., 2006) 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인 연구가 존재한다.

그러나, 정경유착을 통한 기업의 혜택은 일시적이거나 소수의 기업에 국한될 수 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정부부패와 정치에 대한 기업의 취약성으로 기업은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고 나아가 사회의 공정성과 시장의 건전성을 파괴해,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해가 된다.

36) Faccio(2006)은 기업의 정치관련성을 경영진의 주요 임원 중 정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을 시, 혹은 정부의 고위급 간부 혹은 국회의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로 정의.

제4절 중앙 집권화와 역시장화의 중국모델

1. 중앙정부의 통제력 강화의 주요정책과 개혁

중국의 경우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은 주로 중국공산당의 조직특성과, 지방정부로의 재정이전, 그리고 지역 장에 대한 복잡한 인사행정, 지방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반 부패 정책으로 유지하게 된다. 단 중국공산당 조직특성은 1절에서 설명해 생략하고 자 한다.

1) 지방정부로의 재정이전

1994년, 중국 중앙정부는 세입을 확보하는 한편 재정이전(보조금)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를 동시에 높이기 위하여 ‘분세제’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지방정부 중심의 성장 전략을 택해, 실제 일반적 사무와 지역사회복지 업무에서 지방정부의 직접적인 세출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중국은 전형적인 이른바 ‘세입중앙집권’, ‘세출지방주도’의 이중적 재정수지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Hong et. al., 2018).

2017년의 경우 지방정부가 전체 국가 재정지출의 85% 이상을 차지하지만 실제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은 53% 미만으로 중앙정부에 대한 높은 재정의존도를 나타냈다. 지역격차가 극심한 중국에서 지방정부로의 재정이전은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 수단으로 활용되지만, 실제로 이러한 재정수지 불균형 정책은 중앙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존도를 한층 높여주고 있다.

2) 지역장에 대한 복잡한 인사행정

가. 빈번한 지역장 교체(정치불확실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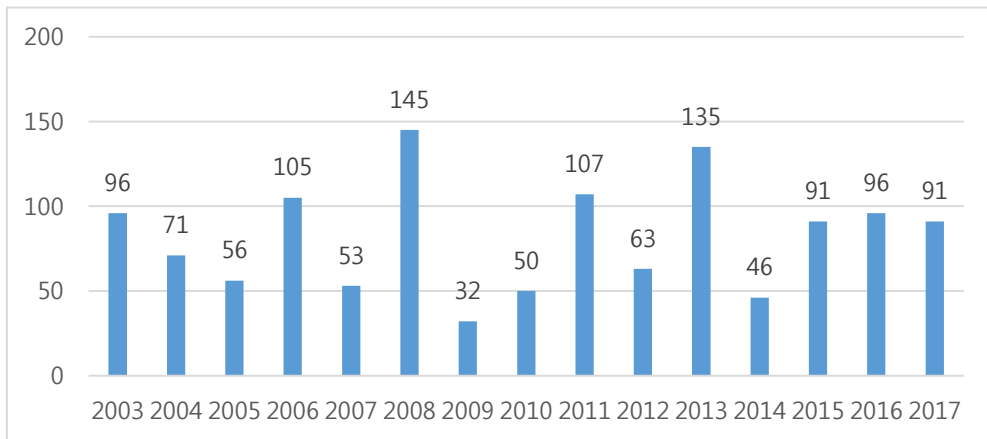
중국의 ‘정부조직법’ 제 58조에 의하면 중국 지역장의 임기는 5년이며 한번의 연임이 가능해, 최대 10년까지 재임이 가능하다. 그러나 아래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 시 서기의 교체에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연도에 따라 불규칙적이다. 2005년, 2007년, 2009년, 2010년, 2014년의 경우 연간 60명 미만의 시당위서기가 교체 되었지만, 2006년, 2008년, 2011년, 2013년의 경우 연간 100명 이상의 시당위서기가 교체 되었다.

둘째, 교체 빈도가 높고 평균 재직기간이 짧다. 정상적이면 시당위서기가 5년 임기를 채우거나 연임으로 10년까지 재직해야 하지만 실제로 중국 시당위서기의 평균 재직 연수는 3.56년에 불과하다.

그림 1 2003~2017년까지의 연도별 지급 시 당위서기 교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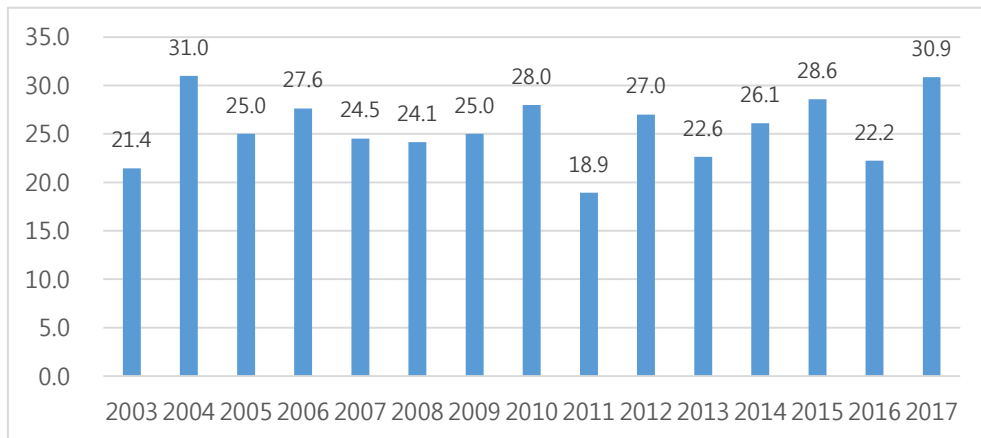


시당위서기의 빈번한 교체에는 부패적발 지역경제 실적 저하 등 문제로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실제로 2003년부터 2017년까지 부패문제 혹은 지역경제 실적 저하로 낙마 혹은 직급 강등한 시당위서기 수는 36명에 불과하다. 본 연구의 자료에 의하면 해당 기간 시당위서기의 순환적 교체를 포함한 타지역 교체가 전체 교체의 59.77%를 초과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 정경유착을 줄이고, 지방에 대한 중앙의 통제력을 높이기 위한 지역장에 대한 중앙의 인사행정으로 볼 수도 있다.

나. 지역장의 낙하산 인사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력 강화의 또 다른 하나의 수단으로 지역장에 대한 낙하산인사가 있다. 지역장의 낙하산인사는 기존 지역의 정경유착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면서도 지역에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아래 <그림 2>와 같이 2003년부터 2017년까지의 시당위서기 교체에서 성정부 혹은 중앙 간부가 직접 부임된 비중이 평균 25.5%으로 비교적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2003~2017년까지의 시서기 교체 중 낙하산인사 비중 추이(%)



다. 시당위서기의 폐쇄적인 승진 프로세스

중국공산당의 권력구조는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폐쇄적이어서 간부 임용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간부의 임용에 있어 계획적으로 준비를 해 온다는 연구결과들도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 ‘예비간부제³⁷⁾’가 있다.

1980년부터 중앙정부는 정치적 이념이 우월한 젊고 능력이 있는 간부를 중심으로 성급(부장급), 지급(청급), 현급(처급) 3단계 등급에 대해 예비간부제도를 구상하였다. 예비간부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하나는 이념적인 차원인데 우수한 정치사상을 가져야 하고, 다른 하나는 동급의 간부에 비해 젊어야 한다.

37) 원문: 储备干部制度

성급 예비간부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가 50세 미만이어야 하고, 지금 예비간부가 되기 위해서는 45세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현급 예비간부가 되기 위해서는 40세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예비간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치적인 교육과 실무경험을 강화해 줌으로 중국공산당의 체제와 권력을 지속하고자 노력한다(Tsai & Kou).

실제로 중국간부의 임용에는 예비간부를 통해 반드시 승진되거나, 계획적인 것은 더욱 아니다. 중국 당 간부의 승진은 비교적 폐쇄적이고 예측이 불가능하다. 단, 예비간부제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나이가 어릴 경우 승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특히 시당위서기와 같은 고위급 간부는 그 위로 승진할 경우, 성정부 혹은 중앙 핵심부처와 최고지도 그룹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젊은 시당위서기일수록 더욱 높은 승진동기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중국 지역장의 승진에서 지역경제 성장 지표에 대한 지나친 반영으로, 젊은 시당위서기일 수록 지역경제를 끌어 올리려는 유인이 더 크게 나타난다. 이는 중국 정치구조상 지역장의 특권과, 지역경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과대한 영향력의 행사가 가능하기에, 실제로 시당위서기의 취임시 나이가 어릴수록 지역 전체의 고정자산 투자, 재정지출 등이 늘어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Kong, 2015; Guo & Lin, 2018; Piao et al., 2019).

3) 시진핑의 반 부패 정책

2012년말, 중국공산당 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시진핑을 지도부로 하는 중앙정부는 전례 없는 반부패 운동을 시작하였다. 중국공산당 중앙기율위원회는 당과 정부, 군대, 국유기업의 고위급 간부들에 대한 고 강도의 반 부패 조사로 현재까지 재임 중이거나 이미 퇴임한 국가급 간부 1명, 부국가급 간부 6명, 정부급 25명, 부부급 간부 100여 명을 공개 처벌했다.

특히 이미 퇴임한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귀뱌웅(郭伯雄)과 현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저우융강(周永康)에 대한 부패 적발 및 처벌은 과거 퇴직한 고위급 간부 혹은 ‘형불상상위(刑不上常委)’라는 외부적인 기본상식을 깨 버렸다.

시진핑의 반부패 정책은 아래 <표 11>와 같이 지방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반부패 조사(중앙순찰팀), 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일반 주민들의 반부패 활동 참여의 확대 등이 포함되어 과거 중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고 강도의 반부패 정책으로 평가 받고 있다.

표 11 시진핑의 주요 반 부패 정책과 성과

일시	주요정책	주요내용 및 성과
2012.12	제 18 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개최	서기, 부서기, 상무위원회 위원을 선정
2012.12	‘8 항 규정’	정부와 간부에 대한 가장 엄격한 규제로 평가
2013.01	제 18 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2 차 전체회의	고위급간부와 일반공무원에 대한 전면 조사(老虎蒼蠅一起打)
2013.04	주요 정부 홈페이지의 신고제도 활성화	일반 주민들의 부패 적발 참여 확대
2013.05	제 1 차 중앙순찰팀	중앙 주요 부처에 대한 순찰을 제도화
2013.09	중앙기율검사위원회 홈페이지 신설	반 부패 정책과 성과를 공시
2013.09	중추절공금선물금지에 관한 통지	주요 명절의 선물 수급 금지
2014.01	일부 직급에 대한 간부 인원 수 과대 금지	부직책에 대한 과대 간부 인원 수를 감축
2014.01	제 18 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3 차 전체회의	반부패에서의 당위원회의 책임을 강조
2014.02	배우자 해외 이민자 관리법	배우자 및 자녀가 모두 해외 이민자인 간부에 대한 처리
2015.03	양회 등 기관에 기율검사팀을 파견	주요 기관에 대한 순찰팀의 전면적 포괄

2015.04	‘천망’ 프로젝트의 시작	부패문제로 해외 도주한 간부들에 대한 수사 확대 및 강화
---------	---------------	---------------------------------

그러나 시진핑의 전례 없는 고 강도의 반부패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들도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에는 크게 시진핑의 반부패를 정치적인 보복으로, 중국공산당의 권력과 중앙의 권력 강화로, 시진핑을 중심으로 하는 당 최고위 지도층의 정치·경제에서의 특권과 절대적인 권력유지로, 공직자들의 대한 정치적 공포들이 있다(Kong, 2015; Teng, 2015; Hu, 2015).

2. ‘국진민퇴’의 역시장화 개혁

1) ‘국진민퇴’의 역시장화 국가전략의 구상(2004~2010년)

지나친 민영화에 따른 문제점으로 후진타오 정부는 이미 2003년에 중앙과 각 지방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이하 국자위³⁸)’를 설립하여 국유기업과 국유자산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사실상 2004년부터 국유기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과도한 매각과 민영화 열풍은 크게 위축되었다(Wang & Hu, 2016).

2006년 12월, 국무원 산하 국자위의 ‘국유자본 조정과 국유기업의 재편에 관한 지도 의견³⁹’의 발표로 ‘국진민퇴(국유기업의 전면적 확대와 민영기업의 퇴출)’의 국가전략이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⁴⁰.

해당 지도의견의 핵심은 국가안전과 국민경제 명맥에 관련된 핵심산업인 군공, 전력, 석유석화, 이동통신, 석탄, 민항, 항운에서의 국유기업의 절대적 통제력 확보, 그리고 기초산업과 주요산업인 장비제조, 자동차, 전자정보, 건축, 철강, 귀금속, 화학, 탐사설계, 과학기술에서의 비교적 높은 통제력의 지속적 확보가 있다.

이러한 목표 실현을 위하여 중앙기업과 지방 국유대기업을 중심으로 인수합병을 통해 대기업 집단화로 재편성하기 시작하였다. 인수합병에는 국유기업 간의 인수합병 외에도 민영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이 있다.

2007년 이후부터 국유기업은 핵심산업에서의 민영기업 인수합병을 불러 일으켰는데 중·소 민영기업은 물론 상장한 민영대기업들도

38) 2003년 4월6일 중앙정부인 국무원에 국자위를 설립. 2004년 6월까지 중국의 31개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에 성급 국자위를 설립. 2004년 이후부터 지급시 정부로 확대 하였는데 현재까지 307개 지급시에 국자위(그 중 208개 지급시에 독립적인 부처로, 99개 지급시는 재정부 등 정부 주요 부처 산하에 설립)가 설립(Liu, 2017).

39) 원문: 关于推进国有资本调整和国有企业重组的指导意见

40) 일부 학자들은 ‘국진민퇴’의 시기를 지방 국자위의 전면 설립 이후인 2005년부터라고 봄(Yang, 2013; Wang & Hu, 2016).

인수합병 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안건으로 2008 년까지 산둥성 국자위는 산둥성의 주요 국유 철강사인 지강철강사, 라이후철강사, 산둥제금사를 통합하여 산둥철강그룹을 만들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11 월에는 산둥성의 가장 큰 민영 철강회사인 르조우철강사⁴¹까지 인수합병하였다. 이로써 사실상 산둥성의 철강산업을 정부가 독점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시 2008 년 상반기 산둥철강그룹은 적자 13 억 6,200 만위안을 기록하고 있었지만 정부와 관련 은행의 지지 하에 동 기간 영업이익 18 억 위안 이상을 기록한 르조우철강사를 합병하였는데, 홍콩의 대표적 언론사인 평황왕(凤凰网)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해당 인수합병 건이 국진민퇴의 대표적 사례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국유기업 간의 인수나 합병에 있어 지방정부 간의 갈등이 커져 예상대로 산업 집중이 잘 이루어 지지 않았다. 특히 중국 지역장 등 고위급 간부의 승진이 지역경제성장률과 재정수입에 크게 의존하기에, 관할구의 민영기업이나 국유기업이 다른 지역의 국유기업에 인수합병 될 경우 지역경제, 재정수입, 취업 등이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해 이를 극히 반대하였다(Wang & Yu, 2017).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2010 년 9 월 국무원은 ‘기업 인수합병과 재편성 촉진을 위한 국무원의 의견⁴²’이라는 문서를 발표하였다. 해당 의견의 핵심은 자동차, 철강, 시멘트, 기계제조, 귀금속, 희토류 등 주요 산업의 국유기업 산업 집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 금융, 토지에 있어서 지방정부 간의 상호 협력에 대한 법규였다.

해당 법규로 기존까지 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지방정부의 모든 정책을 취소하고 지급시 혹은 성급 인민정부의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협력 해결할 것을 요구 하였으며, 기업의 영업이익과 자본금을 기준으로 재정수입과 국유기업 이윤에 대한 지방정부 간의 배분을 명문화 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지방정부에 재정과 금융지원에 있어 적극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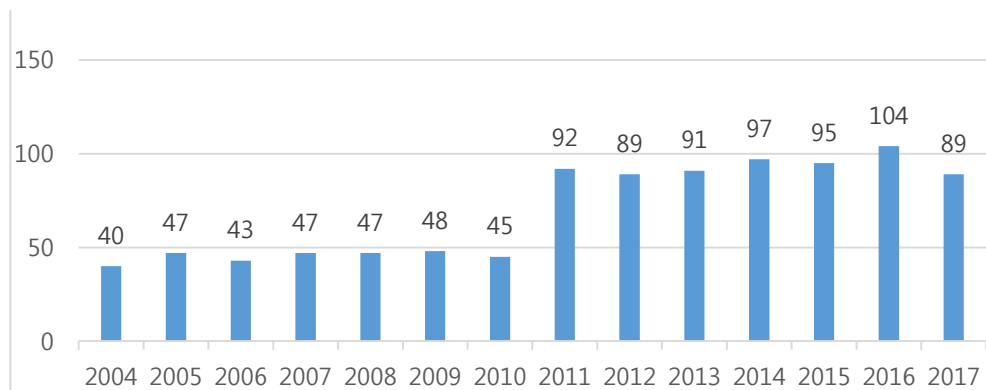
41) 중국 산둥성에 위치하여 있는 르조우시는 한국, 일본, 동남아, 호주 등 나라들과 쉽게 해상무역을 할 수 있는 천연 지리적 우세를 가지고 있어 '수상운동의도'라고 불리 움.

42) 원문: 国务院关于促进企业兼并重组的意见

협력을 요구하였으며 조건에 따라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아래 <그림 3>과 같이 2011년부터 국유대기업은 핵심 산업에 있어 '강강통합'과 '강약합병'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 수직계열화로 지방 국유대기업은 지역경제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Wang & Yu, 2017).

그림 3 2004-2017년의 역민영화 상장사 수



자료: CSMAR

이 밖에도 지방의 주요 국유대기업은 정부의 보호 하에 자본과 자원 우위로 점차 경쟁 성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하기 시작하였으며 대규모 집단화를 형성하였다⁴³.

중국모델에 대한 이해는 대부분 점진적인 개혁, 지방정부 중심의 불균형 발전전략, 국유기업의 민영화 정책 등 분야에서 논의되었다. 그러나 2011년부터 본격화된 '국진민퇴'의 전략과 2013년부터 시작된 시진핑 정부의 전례 없는 반 부패 정책은 과거 중국모델과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지극히 결핍하다. 특히 역시장화와 시진핑의 반부패가 중국의 정경유착, 기업부패를 줄이는데 어떠한 효과를 나타나는지를 실증적인 분석으로 연구해볼 가치가 부각된다.

43) <부록 1> 참조

제3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제1절 기업의 정치관련성이 기업활동에 미친 영향

1. 해외에서의 연구

기업의 정치관련성(Political Connection)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지만, 크게 기업의 경영진이 과거 정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거나, 현재 정부의 고위급 간부 혹은 국회의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경우로 정의 한다(Fisman, 2001; Faccio, 2006; Khwaja & Mian, 2005).

Krueger(1974)은 기업가는 정부 관료와의 좋은 관계 형성에 시간과 금전을 투입하는 대신, 여러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해외의 경우 기업의 정치관련성은 기업의 세금혜택, 융자규모와 편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정치관련성이 기업의 세금부담에 혜택을 준다는 해외 연구에는 Adhikari et al.(2006)의 말레이시아에 대한 연구에서 정치관련성이 있는 기업의 실제세금 부담이 정치관련성이 없는 기업에 비해 낮다는 결론을 얻었다. Faccio(2006)은 OECD 주요 국가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기업의 정치관련성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정부의 보조금을 더 받게 된다는 결론을 얻었다. Backman(1999)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정치관련성이 높은 몇 개의 가족 기업이 플라스틱 등 주요 원자재의 독점권을 얻게 되었다는 결론을 얻었다.

정치관련성이 융자규모와 편의성에 미치는 해외 연구로 Faccio(2002)는 42개 국가의 데이터에 대한 분석에서 정치관련성이 있는 기업의 경우 부채비율, 시장 영향력에 있어 정치관련성이 없는 기업보다 높은 것을 보여주었다. Charumilind et al.(2006)은 태국의 사례를 통해 아시아 금융위기 발생 전에 정치관련성이 높은 기업이, 장기 기업대출을 더 많이 받았으며 담보 금액도 적다고 설명하였다. Claessens et al.(2006)의 브라질에 대한 연구에서 연방정부에 많은 기부금을 납부한 기업일수록 은행에서 더 많은 대출을 받았다는 분석결과가 있다. Khwaja & Mian(2005)의 파키스탄에 대한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치관련성이

있는 기업이 없는 기업에 비해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규모가 두 배 정도 높았다.

정치관련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는 긍정적인 것이 대부분이지만 부정적인 영향 미치고 연구 결과도 있다. 국가별로 보면 Fisman(2001)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연구, Johnson and Mitton(2003)의 말레이시아에 대한 연구, Goldman(2006)의 미국 기업의 정치관련성이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하면, Claessens et al.(2006)의 브라질에 대한 연구에서 정치관련성이 기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도 있다.

2. 중국에서의 연구

중국의 경우 2010년 이후부터 정치관련성이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아졌는데 주로 세금부담, 융자규모, 기업성과, 기업의 인수합병, 사회책임, 기술혁신 등에 대한 연구가 있다.

정치관련성이 기업의 세금부담에 대한 연구는 주로 민영기업에서 이루어 졌다. Li & Xu(2013)은 2004 년부터 2008 년까지의 상장한 중국 민영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정치관련성이 세금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합동 OLS 를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기업의 수익률, 부채비율, 자본규모와 지역내총생산, 재정자립도, 연도, 산업의 더미를 통제하였으며, 분석 결과 민영기업의 정치관련성이 기업의 실제 세금부담을 줄였다는 결론을 가졌다.

Yao & Xu(2014)은 2009 년부터 2011 년까지 상장한 민영기업을 대상으로 민영기업의 정치관련성이 기업의 세금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합동 OLS 를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는 기업의 자산규모, 부채비율, 수익률을 통제변수에 포함하였으며, 연도와 산업변수를 통제하였고, 지역으로는 동·중·서부 더미를 포함시켰다. 분석결과 민영기업의 정치관련성이 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인다는 결론을 가졌다.

단, Feng(2012)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상장한 민영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정치관련성이 세금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합동OLS를 통해 실증 분석하였으나 유의미한 영향이 관찰되지 않았다. Feng(2012)은 통제변수에 기업의 자산규모, 수익률, 자본밀집도, 부채비율과 연도, 산업더미를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경제수준에 따라 지역을 5개의 더미변수로 조작적 정의해 분석해 보았는데, 민영기업의 정치관련성이 세금부담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정치관련성이 기업의 융자혜택에 관한 연구는 주로 융자규모나, 장기대출에 대한 연구로 이루어 졌다. 분석결과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정치관련성이 더욱 높은 융자규모와 주요 은행으로부터 장기대출을 받는 비중이 더 컸다(He et al., 2013; Song et al., 2014; Li et al., 2015; Song & Deng, 2011). 그러나 융자혜택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종속변수로 대출 비용이나 대출 담보 중심으로 이루어 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자료 획득이 어려워 연구가 잘 이루어 지지 않았다.

중국 기업의 정치관련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적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상의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Deng(2011)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상장한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정치관련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는데, 기업의 정치관련성은 기업의 단기적인 성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장기적인 기업성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또한 해당 연구에서 정치관련성이 있는 기업일수록 비 주력사업에 진출할 확률이 더욱 높으며, 국제 진출의 가능성도 컸다.

Yu(2017)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상장한 순 민영기업을 대상으로 민영기업의 정치관련성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Yu(2017)은 민영기업의 정치관련성을 기업CEO의 정치관련성 외에 국유지분율의 유무를 독립변수에 포함시켰다. 분석결과 기업CEO의 정치관련성과, 국유지분율이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Yu(2017)은 민영기업의 경우 CEO의 정치관련성과 국유지분이 있으면 정부와의 유착관계가 형성되어, 자원의 획득과 사업기회가 많아져 기업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Yu(2017)의 연구에서는 기업의 여러 재무변수와 연도, 산업더미를 포함하였으나,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더미 변수는 포함하지 않았다. 실제로 기업과 정부의 유착관계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기업 외에 정부의 영향도 클 수 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없으면 정확한 효과를 얻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이 외에도 기업의 정치관련성이 기업의 재산권 보호(Bai et al., 2006)에, 기업의 가치(Wu et al., 2008)에, 산업 확장과 다각화(Deng, 2011; Lu, 2011)에, 기업의 투자 위험성(Zhang et al., 2015)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 연구들이 있다.

제2절 시당위서기 요인이 거시경제와 기업활동에 미친 영향

1. 지역장의 정치불확실성

서구의 지역장은 대부분 선출에 의해 일정한 임기를 채울 수 있기에, 지역장의 정치불확실성이 직접적으로 지역경제 혹은 기업활동에 미친다는 해외연구는 비교적 적다. 해외의 경우 정치불확실성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연구로 Jones & Olken(2005)은 1945년부터 2000년 사이 130개 국가의 57명의 국가지도자의 사망이 해당 국가 경제성장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얻었다. Dreher & Jensen(2009)은 유엔 회원국의 국가지도자의 교체가 발생하는 연도에, 해당 국가가 유엔에서의 핵심적 안건 투표에서 미국 투표 결과와 같은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한다. Bialkowski et al.(2008)은 OECD 27개 국가의 선거기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선거기간의 정치불확실성으로 주식시장의 가격 파동이 더 커지고, Guo & Qi(2012)은 미국의 선거로 인한 정치불확실성으로, 채권 발행의 비용이 7~8% 정도 인상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중국의 경우 선출 직에 의한 서방과 달리 임용으로 발생하기에 정치적 불확실성은 어떻게 보면 더 클 수가 있다. 그러나 정치불확실성에 대한 중국 국내의 연구는 2010년 이후부터 비교적 늦게 시작되었다. 그 연구는 주로 지역장 교체가 거시적인 실업률, 지역경제성장, 재정건전성, 사회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대부분이었다.

Ding et al.(2015)은 1994년부터 2013년에 걸쳐 중국의 29개 성의 성서기와 성장의 교체와 임기를 독립변수로, 성서기와 성장의 연령, 재직기간, 학력을 통제변수로 정부의 교통시설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동적 패널데이터 분석으로 추정하였는데, 지역장의 교체는 부(-)의 영향을, 재직기간, 연령, 학력 통제변수는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Li & Yu(2016)은 2002년부터 2013년에 걸쳐 중국의 29개의 성의 성서기 교체를 설명변수로, 지역의 1인당gdp, 2차산업비중, 3차산업비중, 도시화수준, 실업률, 고학력비중을 통제변수로 지역의 단기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데이터의 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을 하였는데 주요

설명변수가 종속변수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가졌다.

Lei et al.(2017)은 2002년부터 2013년에 걸쳐 중국의 30개 성의 성서기와 성장의 교체를 설명변수로, 지역의 경제성장률, 외국인거주비중, 도시화수준, 인프라구축, 환율 등을 통제변수로 지역투자에서의 외국자본액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데이터의 고정효과와 확률효과모형으로 추정하였는데 정치 불확실성은 부(-)의 영향을, 도시화수준, 경제성장률 등 통제변수는 외국자본투자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가졌다.

Piao et al.(2019)은 중국의 283개 지급시를 대상으로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총 14개 년도의 패널데이터를 구축해 지역 고정자산투자를 종속변수로, 시당위서기의 교체를 설명변수로, 시당위서기의 개인특성과 지역의 사회·경제특성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고정효과모형과 시스템GMM모형을 사용하였으며, 분석결과 시당위서기의 교체가 지역 고정자산투자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쳤고, 그 영향이 서부 지역이 중부보다, 중부지역이 동부지역보다 더 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역장의 정치불확성이 기업활동에 미친 영향은 비교적 적으며 주로 기업투자에 대한 연구가 많다. 연구결과 주로 지역장의 정치불확실성이 실질적으로 기업투자를 위축하였다.

Xu et al.(2013)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의 상장한 민영기업을 대상으로 시당위서기의 교체가 민영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통제변수로 해당 시의 gdp증가율, 기업의 ROA(전기), TobinQ(전기), 부채비율, 관리비용율, 연도더미, 산업더미를 포함시켜 합동OLS 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요 설명변수인 시당위서기 교체가 민영기업의 투자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나타냈다. 또한 시당위서기가 타지역에서 부임해 왔을 때, 기업투자가 더 크게 위축되며, 이러한 영향이 시차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

이 외에도 Xu et al.(2013)은 연구모형에 민영기업의 정치관령성 변수를 포함시켰는데, 정치관련성이 있는 기업이 없는 기업에 비해 유의미하게 기업투자가 많은 한편 정치불확실성이 있을 때 더 위축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Wang et al.(2017)은 고위급 간부의 부패 적발이 지역과 기업의

고정자산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1998년부터 2013년까지의 부성급(부부급) 간부의 부패적발 여부가 지역전체의 고정자산투자와, 기업 고정자산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으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해당 성의 고위급 간부가 부패 적발로 낙마 했을 때, 지역의 전체 고정자산투자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쳤고, 기업의 경우 국유기업에는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쳤지만 민영기업의 경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해(실제로 유의미하지 않는 정의 영향을 미침), 지역 고정자산투자의 감소는 주로 국유기업의 투자 위축에 따른 것이고, 이는 오히려 민영기업에 투자기회를 늘려주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2. 지역장의 개인특성과 승진동기

설명변수를 지역장 교체가 아니라 지역장의 특성으로 지역경제에 미친 연구들이 있다. 특히 지역장의 취임시나이를 승진동기와 연계시켜 실증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이때 취임시나이가 어릴 경우 승진동기가 있다고 조작적 정의하였다(Luo, et al., 2015; Li et al.,(2015); Guo & Lin, 2017).

Luo et al.(2015)은 1999년부터 2009년까지의 시당위서기의 취임시나이를 주요 설명변수로, 시당위서기의 성별, 재직연차, 학력, 지역더미(동중서부) 등을 통제변수로 지역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취임시나이가 어릴수록 승진동기가 높아 지역경제 성장률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Li et al.(2015)은 2000년부터 2013년까지의 266개 시의 시장의 취임시연령과 재직연차를 주요 설명변수로, 통제변수에 시장의 학력, 성별, 민족 등 변수를 추가하여 지역의 1인당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승진동기가 높을수록 종속변수 1인당소득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나타냈다.

이 외에도 Guo & Lin(2017)은 1998년부터 2015년에 걸쳐 중국의 30개 성의 성당위서기와 성장의 학력, 연령, 임기기간을 설명변수로, 지역의 특성을 통제변수에 포함시켜 정부의 사회보장지출, 의료지출, 교육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Li & Wang(2017), Jiang & Yi(2017) 등은 시당위서기의 임기기간, 연령, 학력 등 특성이 지역경제와 정부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유의미한 결론을 가졌다.

지역장의 개인특성과 승진동기가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에는 지역장 취임시나리와 재임기이 기업투자, 주요 상업은행의 대출규모 등에 미치는 연구가 있다.

Sun & Zhong(2014)은 1998년부터 2011년까지 상장한 중국 국유기업을 대상으로 성장의 임기기간이 기업투자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통제변수에 기업규모, 부채비율, 시1인당 재정지출, 연도더미, 산업더미를 포함한 결과 임기기간 초반이 후반보다

기업투자를 더 늘리는데, 이를 재임초기 성장의 승진동기가 높아 투자를 확대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한편 기업성과에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Fu & Li(2015)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상장한 국유기업을 대상으로, 시장의 취임시나이를 승진동기로 보고, 재직기간, 학력 등을 시장의 개인특성으로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통제변수에 ROA, 부채비율 등 기업변수와, 연도더미를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취임시 나이가 어린 시장일수록 승진동기가 높아 국유기업 투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나타냈다.

이 외에도 Ji et al.(2014)은 1999년부터 2009년까지의 성급 상업은행에 대한 분석에 의하면 시당위서기와 시장의 승진동기가 높을수록 주요 상업은행의 대출규모와 부실대출 건수가 크게 늘어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역장의 승진에 있어 지역경제 성장률이 주요 평가기준이기에, 지역장의 승진동기가 높을수록 재정지출을 늘려 정부투자를 확대하거나, 국유기업을 통해 지역경제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제3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중국을 주요 생산요소에 대한 정부의 독점과 까다로운 행정심사 등으로 기업이 정상적인 경쟁만으로는 생존과 성장에 한계가 있다(Deng, 2009). 중국의 시장경제는 아직 건전하지 않아 재산권에 대한 보호, 사업 진출에 대한 제약, 금융권에 대한 정부의 통제로 융자난이 심한데 이는 기업의 성장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Che & Qian, 1998; Cull & Xu, 2004; Le, 2003; Wang & Shi, 2006; Hu, 2006).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기업 차원의 정치관련성이 기업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중국 정치 권력의 특수성과, 경제에 대한 정부의 절대적 영향력으로, 중국 기업과 정부의 유착관계, 기업부패는 훨씬 더 복잡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기존연구와 아래와 같은 차별성을 두고자 한다.

첫째, 중국의 정경유착에 대한 분석에서 기업의 정치관련성 외에 지방정부 요인 특히 지역장의 인사행정 요인에 대한 분석을 함께 진행하고자 한다. 과거 중국의 지방정부 주도의 불균형 성장전략으로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는 대부분 지역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기업 CEO의 정치관련성으로 한정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역장의 요인으로 지역장의 승진동기와 지역장의 정치불확실성 외에 중앙의 낙하산인사를 모형에 포함하고자 한다. 지역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력 강화로 시작되었으나, 다른 한 측면에서 지방정부와 기업 사이의 고착화된 정경유착을 줄이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국유기업의 정경유착과 기업부패, 민영기업의 정경유착과 기업부패를 따로 분리해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기존연구에서는 주로 민영기업의 기업부패를 다루었는데, 이는

국유기업의 복잡한 소유구조의 자료를 획득하기 어려워서 연구에 제외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중국의 국유기업은 여전히 지방정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되었다.

이 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복잡한 소유구조를 통제하기 위하여 역민영화와 민영화더미를 추가하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는 지역을 성급에서 시(지급시)로 확대하고자 한다. 이는 대부분의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은 시에 본사를 두고, 비즈니스를 해 오기 때문이다. 또한, 상장기업의 경우 시당위서기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서기 혹은 성급정부 차원의 특이성과 불확실성의 영향도 받기에 본 연구는 31개 성을 더미변수를 모형에 포함시켰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본격화된 ‘국진민퇴’ 정책과 2013년부터 본격화된 ‘시진핑반부패’ 정책이 기업부패와 정경유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2011년의 국진민퇴는 국유기업의 강세(확정) 정책으로 민영기업의 부패를 어느 정도 잡아 줄 것으로 예측되고, 2013년의 시진핑의 고강도 반부패정책은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정부와의 유착관계를 줄이고, 기업부패를 줄이는 효과가 창출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정치적 요인이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업성과 외에, 기업성과에 영향을 주는 주요 경로인 세금특혜와 투자특혜에 대해 독립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과거 정치적 요인이 왜서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해답과, 애매모호한 경로에 대한 추측에서 벗어나 새로운 접근방법을 찾아보고자 시도한다. 이는 국진민퇴와 시진핑반부패 정책이 정경유착과 기업부패 억제 효과에서, 그 경로에 대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4장 연구설계

제1절 분석대상과 자료

1. 분석대상

1) 기업

본 연구는 정치적 요인이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실증연구로서, 기업차원의 연구대상과 지역차원의 연구대상이 있다. 기업의 경우 중국의 상장한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이 포함된다.

국유기업은 실제 소유주가 중앙의 ‘국자위’와 지방 ‘국자위’인 기업을 의미하고, 민영기업은 개인이나 가족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 기업의 경영성과 등 주요 재무지표 측정의 차이를 감안해 금융업의 전체 상장사는 본 연구에서 제외된다.

시간의 경우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포함하였는데 이는 기업합병법개정으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진민퇴’ 정책과 2013년 시진핑의 반부패 정책 전과 후의 기간을 전부 분석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연구문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국유기업의 경우 ‘국자위’와 ‘공사(정부 독점기업)’ 소속 상장 중앙기업을 제외하고,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상장한 1,880여 개의 기업이 포함되어 있고, 민영기업에는 동 기간 상장한 1,577여 개의 기업이 포함되었다.

2) 지역

실제로 중국의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은 시 단위로 분포되어 있다. 하여 본 연구는 Fu & LI(2015), Xu et al.(2014) 등의 연구를 참조하여 지역을 시 단위로 세분화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지역적 범위는 293개의 지급시로 한정한다. 단 일부 시에 상장사가 없는 이유로 최종적으로 포함된 시의 개수는 연구문제에 따라 야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230개 정도가 포함되어 있다.

지역장의 경우 본 연구의 제2장 연구배경에서 설명했듯이 중국의 정치·행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장이 아닌 시당위서기로 한정한다.

2. 자료출처

본 연구의 기업의 재무자료와 정치관련성 자료는 ‘国泰安(CSMAR)’과 资讯(WIND)에서 수집하였다. 단, 기업의 정치관련성 변수가 많이 빠져, 해당 기업의 홈페이지와 ‘百度(BAIDU)’를 통해 하나씩 검색 및 확인하는 추가 작업을 실행하였다.

지역관련 변수에서 성급 단위 지역의 주요 거시경제 변수는 ‘국가통계청’에서, 지급시 단위 지역의 주요 거시경제 변수는 ‘国泰安(CSMAR)’에서 수집하였다. 지역장의 개인특성과 전직 경력, 교체 변수는 ‘国泰安(CSMAR)’과 资讯(WIND)에서 1 차적으로 수집하였다. 그러나 일부지역, 특히 지급시 서기의 전직 경력 등 주요변수가 많이 누락되어, 각 시의 홈페이지, ‘People’s Daily’, ‘百度(BAIDU)’를 통해 하나씩 검색 및 확인하는 추가 작업을 실행하였다.

산업 특성에 따른 차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산업더미를 포함한다. 상장사에 대한 산업분류 기준은 국가통계국에서 2012 년에 제정한 규정에 따라 농업, 채광업, 제조업, 에너지 생산 및 공급, 건설업, 유통업, 교통 및 우정업, 숙박 및 외식업, 정보기술서비스업, 금융업, 부동산업, 임대 및 상업서비스업, 과학연구 및 기술서비스업, 수력과 환경 및 공공시설관리업, 주민서비스업, 교육업, 위생 및 사회공작업, 문화와 체육 및 오락업, 기타⁴⁴ 등 19 개의 분류법을 따른다. 단, 재무 등 주요변수의 특이성으로 금융업을 제외한 18 개의 산업분류가 본 연구에 포함된다⁴⁵.

44) 통상적으로 해당 상장사의 한 분야의 영업수익과 이윤이 가장 많은 업종을 기준으로 산업분류를 구분함. 단, 최대 분야의 영업수입과 이윤이 기업 전체의 30%이 경우 기타로 분류.

45) 원문: 农林牧渔业, 采矿业, 制造业, 电力、热力、燃气及水生产和供应业、建筑业、批发和零售业, 交通运输、仓储和邮政业, 住宿和餐饮业, 信息传输、软件和信息技术服务业, 金融业, 房地产业, 租赁和商务服务业, 科学研究和技术服务业, 水利、环境和公共设施管理业, 居民服务、修理和其他服务业, 教育业, 卫生和社会工作, 文化、体育和娱乐业、其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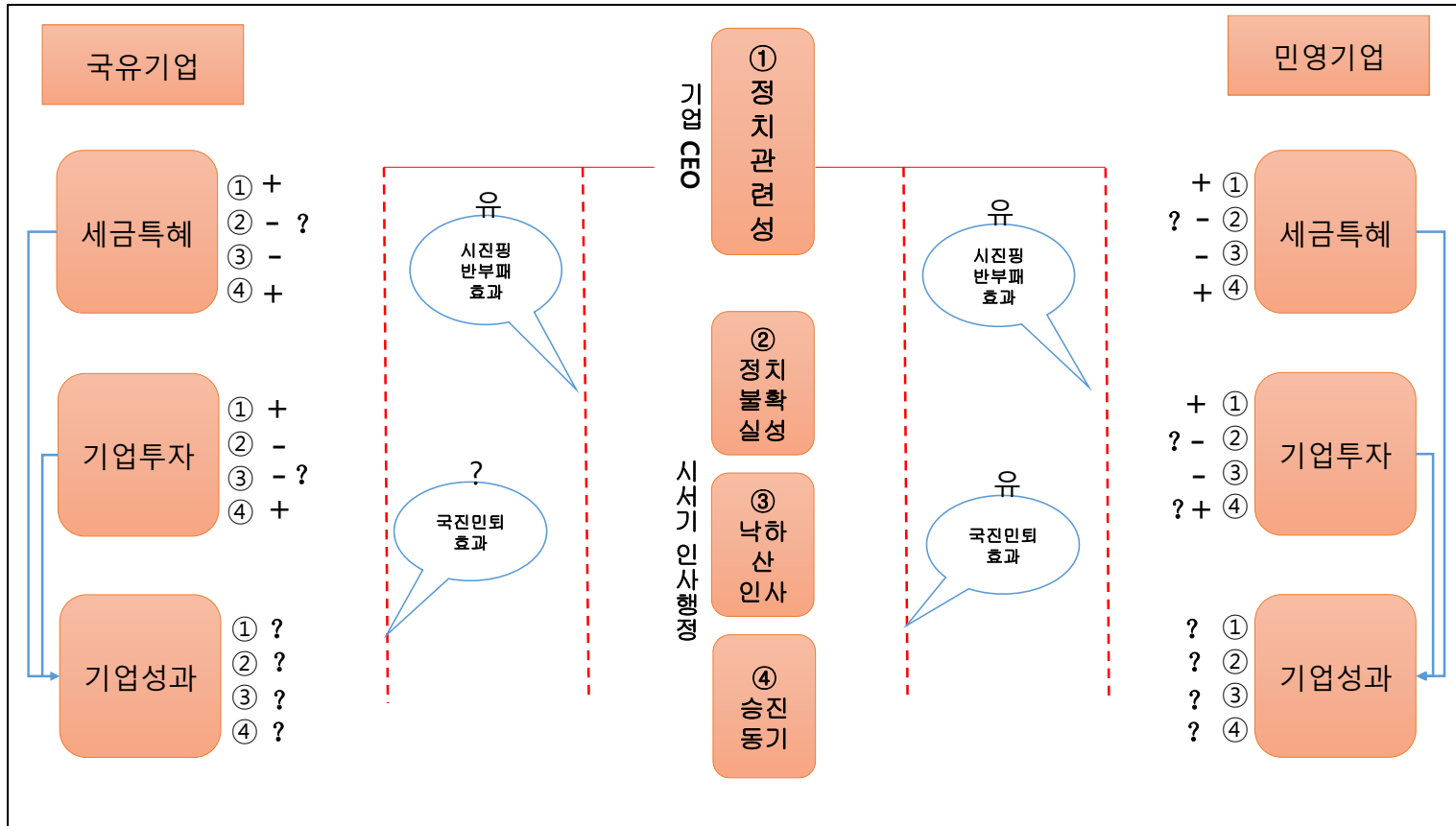
제2절 연구문제 설정

본 연구는 연구의 배경,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아래 <표 12>와 <그림 4> 같은 주요 연구문제와 가설을 제기하고자 한다.

표 12 주요 연구문제

연구문제 1-1	1) 기업의 정치관련성과 시당위서기의 인사행정이 국유기업의 세금부담에 영향을 미치는지? 2) 국진민퇴와 시진핑반부패 정책이 정치관련성으로 얻은 국유기업의 세금혜택을 줄여 주는지?
연구문제 1-2	1) 기업의 정치관련성과 시당위서기의 인사행정이 민영기업의 세금부담에 영향을 미치는지? 2) 국진민퇴와 시진핑반부패 정책이 정치관련성으로 얻은 민영기업의 세금혜택을 줄여 주는지?
연구문제 2-1	1) 기업의 정치관련성과 시당위서기의 인사행정이 국유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지? 2) 국진민퇴와 시진핑반부패 정책이 정치관련성으로 얻은 국유기업의 투자혜택을 줄여 주는지?
연구문제 2-2	1) 기업의 정치관련성과 시당위서기의 인사행정이 민영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지? 2) 국진민퇴와 시진핑반부패 정책이 정치관련성으로 얻은 민영기업의 투자혜택을 줄여 주는지?
연구문제 3-1	1) 기업의 정치관련성과 시당위서기의 인사행정이 국유기업의 성과(ROA)에 영향을 미치는지? 2) 국진민퇴와 시진핑반부패 정책이 정치관련성으로 얻은 국유기업의 높은 성과를 줄여 주는지?
연구문제 3-2	1) 기업의 정치관련성과 시당위서기의 인사행정이 민영기업의 성과(ROA)에 영향을 미치는지? 2) 국진민퇴와 시진핑반부패 정책이 정치관련성으로 얻은 민영기업의 높은 성과를 줄여 주는지?

그림 4 주요 설명변수와 연구가설



제5장 정치적 요인이 기업 세금부담에 미치는 영향

제1절 정치적 요인이 국유기업 세금부담에 미치는 영향

1. 분석모형

본 장에서는 기업의 정치관련성과 중앙의 지역장 인사행정이 기업의 세금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기업의 정치관련성, 특히 기업 CEO의 정치관련성이 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여준다는 결론을 가져왔다(Feng, 2012; Zou & Li, 2016).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주로 민영기업에 의한 연구로 국유기업의 정치관련성이 기업의 세금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잘 설명해주지 못했다.

1994년 중국의 ‘분세제’ 개혁으로 중국 지방정부는 재정수입에 있어 어느 정도의 자주권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토지사용세, 토지증가세, 부동산 관련 세수는 전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이 되었으며, 부가가치세의 25%, 기업소득세의 40%, 개인소득세의 40%, 증권거래세의 3%가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이 되었다.

특히 최근 토지 매각을 통한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이 늘어 나면서, 기업관련 세금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Ba & Zhu, 2017). 즉 선행연구는 기업의 정치관련성이 세금혜택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기업차원에서 분석을 진행하였으나, 실제 기업의 세금납부 비중과 금액은 정부의 재량권이기에, 중국권력의 특수성에 따라 지역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하여 본 장에서는 기업정치관련성이 세금혜택에 미치는 영향을 지역장의 특성과 함께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국유기업의 세금부담을 사용하고자 한다. 중국기업의 세금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데 주로 부가가치세, 소비세, 영업세, 소득세, 자원세, 토지증가세, 도시유지건설세, 부동산세,

토지사용세, 차선사용세⁴⁶, 교육부가가치세, 광산자원보상세 등이 포함⁴⁷되어 있다.

독립변수에는 국유기업 CEO의 정치관련성과 지역장의 정치불확실성, 낙하산인사, 승진동기를 포함하고자 한다.

통제변수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와 달리 국유기업의 역민영화더미를 포함하고자 한다. 실제로 2008년부터 2017년간 중국의 상장한 민영기업 872개가 국유화(역민영화)되었다. 역민영화한 국유기업은 기본적으로 순 국유기업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역민영화더미를 포함하고자 한다. 중국의 국유기업은 복잡한 소유구조를 가지고 있어, 지방에 있는 국유기업이어도 중앙 국자위의 관리를 받는 중앙국유기업이 있어 중앙기업더미를 포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진민퇴의 정책효과와 시진핑반부패 정책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해당 관련 더미변수를 추가하고자 한다. 이 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Gupta(1997)와 Feng(2012) 등의 연구대로 기업의 자산규모, ROA, 부채비율, 국가지분율, 산업더미, 연도더미를 포함한다. 또한 지역을 나타내는 지역 총생산액과,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성더미(31개)를 연구모형에 포함하고자 한다.

분석모형에 사용될 변수들과 각각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3 연구문제 1-1의 변수구성과 조작적 정의

구분	변수명	변수의 조작적 정의
종속 변수	세금부담	연말 세금납부 총액 / 연말 총 영업 수입
	기업정치관련성	기업의 CEO가 현재 정부(인민대표대회,

46) 차량과 선박에 대한 사용세

47) 원문: 企业税负包括增值税、消费税、营业税、所得税、资源税、土地增值税、城市维护建设税、房产税、土地使用税、车船使用税、教育附加税、矿产补偿税等

독립 변수		정치협상회) 보직을 겸했으면 1, 아니면 0
	정치불확실성	전직 시 서기의 재임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시 서기가 교체하면 1, 아니면 0
	지역장낙하산인사	시 서기가 성, 혹은 중앙부터 부임해 왔으면 1, 아니면 0
	지역장승진동기	시 당위서기의 취임 시 나이가 해당 연도 평균 취임 나이보다 어리면 1, 아니면 0
통계 변수	역민영화더미	민영기업을 국유화한 국유기업이면 1, 아니면 0
	국진민퇴더미	2008~2010년 = 0; 2011~2017년 = 1
	시진평반부패더미	2008~2012년 = 0; 2013~2017년 = 1
	중앙기업더미	중앙기업 소속이면 1, 아니면 0
	자산규모(로그)	자본금(로그값)
	ROA	총자산수익율=당기순이익/자산총액
	부채비율	부채총액/자산총액
	국가지분율	국가 지분율
	GRDP(로그)	해당 시의 지역 내 총생산액(로그값)
	지역재정자립도	해당 시의 재정자립도 = 재정수입/재정지출
	지역더미(성더미)	성기준
	산업더미	산업기준(중국 통계청 산업분류: 18개)
	연도더미	연도기준

연구문제 1-1의 분석에 사용될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4 연구문제 1-1의 기술통계량

변수명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세금부담	8,489	0.018350	0.015946	0.00195	0.075004
기업정치관련성	8,489	0.138688	0.345641	0	1
정치불확실성	8,489	0.168413	0.3742552	0	1

지역장낙하산인사	8,489	0.359321	0.4798299	0	1
지역장승진동기	8,489	0.520135	0.443003	0	1
역민영화더미	8,489	0.378122	0.484946	0	1
국진민퇴더미	8,489	0.7903339	0.4070941	0	1
시진평반부패더미	8,489	0.6090357	0.4879949	0	1
중앙기업더미	8,489	0.3024749	0.4593566	0	1
자산규모(로그)	8,489	21.90635	1.290049	15.57726	28.50873
ROA	8,489	0.048103	0.030636	-0.16445	0.19248
부채비율	8,489	0.409472	0.175591	0.092313	0.753749
국가지분율	8,489	40.34554	16.01501	3.62	99
GRDP(로그)	8,489	8.584112	1.201009	4.189129	9.587425
지역재정자립도	8,489	0.774324	0.204691	0.040045	1.541259

2.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될 자료는 패널데이터여서 이에 대한 적절한 모형에는 합동(pooled)OLS 분석과 패널의 특성을 고려하는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이 있다. 단,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핵심적 독립변수인 기업 CEO 변수는 시간에 따라 잘 변하지 않고, 주요 통제변수인 역민영화더미, 중앙국유기업더미, 산업더미, 지역더미(성)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기에 고정효과모형의 추정이 불가하다. 하여 본 연구에서는 확률효과모형과 합동(pooled)OLS 모형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우선 Breusch-Pagan 의 LM(Lagrangian Multiplier) 검증결과 유의수준이 1%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는데, 이는 합동(pooled)OLS 모형보다 패널 그룹(기업)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확률효과모형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이하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은 확률효과모형 결과에 따르고자 한다.

아래 표와 같이 모형 1 의 분석결과 주요 독립변수인 기업정치관련성은 10%의 유의수준에서 국유기업의 세금부담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국유기업의 경우 정치관련성이 있으면 기업의 세금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국유기업의 정치관련성이 세금혜택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독립변수 지역장의 낙하산인사는 5%의 유의수준에서 부(-)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시당위서기가 중앙 혹은 성정부(지급시의 경우)에서 부임해 왔을 시 국유기업의 세금부담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유기업의 정치관련성에 의한 국유기업과 지방정부의 정경유착에 의한 세금특혜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효과로 설명되기도 한다.

독립변수 정치불확실성은 부(-)의 영향을 나타냈지만 유의수준이 관찰되지 않았고, 지역장승진동기 변수는 정(+)의 영향을 나타냈지만 여전히 유의수준이 발견되지 않았다.

통제변수 중 역민영화더미는 부(-)의 영향을 나타냈지만 유의수준이 관찰되지 않았고, 중앙기업더미는 정(+)의 영향을 나타냈지만 여전히 유의수준이 관찰되지 않았다. 국유기업의 자산규모는 1%의 유의수준에서 부(-)의 영향을 나타냈는데, 이는 국유기업의 자산규모가

클수록 세금부담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유기업의 성과를 나타내는 ROA 은 10%의 유의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나타냈다. 국유기업의 부채비율은 1%의 유의수준에서 부(-)의 영향을 나타냈는데, 이는 국유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세금부담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지분율은 정(+)의 영향을 지역내총생산과 지역재정자립도는 부(-)의 영향을 나타냈지만 유의수준이 관찰되지 않았다.

모형 2 은 유의미한 독립변수에서 역민영화한 국유기업과 순 국유기업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순 국유기업에 비해 역민영화한 국유기업의 경우 정치관련성이 있을 시 국유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영향을 나타냈지만 유의수준이 나타나지 않았다. 순 국유기업에 비해 역민영화한 국유기업이 지역장의 낙하산 인사가 있을 시 국유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영향을 나타냈지만 유의수준이 관찰되지 않았다.

모형 3 은 국진민퇴의 정책이 국유기업이 정치관련성으로 세금특혜를 받는 것을 줄여 주는 효과가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모형3은 모형1에 기업정치관련성과 국진민퇴 교차항 변수를 포함시켰다. 분석 결과, 정책효과를 나타나는 기업정치관련성과 국진민퇴 교차항 변수가 정(+)의 영향을 나타냈지만 유의수준이 관찰되지 않았다.

국진민퇴는 국유기업의 인수·합병 정책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국유기업의 확장정책이기에 정치관련성을 통해 받는 세금혜택을 줄일 수는 없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모형 4 은 시진핑반부패 이 국유기업이 정치관련성으로 세금특혜를 받는 것을 줄여 주는 효과가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모형 4 은 모형 1 에 기업정치관련성과 시진핑반부패 교차항 변수를 포함시켰다. 분석 결과, 정책효과를 나타나는 기업정치관련성과 시진핑반부패 교차항 변수가 10%의 유의수준에서 정(+)의 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시진핑반부패 정책이 국유기업이 정치관련성을 통해 얻는 세금혜택을 줄여주는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국유기업이 정치관련성을 통해 얻는 세금특혜를 우리는 기업부패 혹은 기업과 정부의 유착, 즉 정경유착으로 볼 수 있다. 연구문제 1-1 의 결과 중국의 국유기업은 정치관련성으로 세금특혜를 지속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유기업의 세금특혜는 2013년 이후 시진핑정부의 강도 높고, 지속적인 반부패 정책으로 크게 위축되었는데 이를 반부패 정책의 효과로 볼 수 있다. 단,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국유기업이 정치관련성으로 세금혜택을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표 15 연구문제 1-1의 분석결과

변수 구분	확률효과모형				합동(Pooled) OLS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기업정치관련성	-0.0018**	-0.0016	-0.0028**	-0.0026**	-0.0009	-0.0021**	-0.0021	-0.0020*
정치불확실성	0.0002	0.0002	0.0002	0.0002	0.0009	0.0009	0.0009	0.0009
지역장낙하산인사	0.0015***	0.0016**	0.0015***	0.0015***	0.0017***	0.0019***	0.0017***	0.0017***
지역장승진동기	0.0014	0.0014	0.0015	0.0014	0.0010	0.0010	0.0010	0.0010
역민영화더미	-0.0010	-0.0008	-0.0010	-0.0010	-0.0006	-0.0008	-0.0006	-0.0006
정치관련성*역민영화		-0.0006				0.0028*		
낙하산인사*역민영화		-0.0004				-0.0004		
국진민퇴더미			0.0081***				0.0071***	
정치관련성*국진민퇴			0.0014				0.0015	
시진핑반부패더미				0.0082***				0.0071***
정치관련성*시반부패				0.0016**				0.0022*
중앙기업더미	0.0000	0.0000	0.0000	0.0000	0.0001	0.0001	0.0001	0.0001
자산규모(로그)	-0.0011***	-0.0011***	-0.0011***	-0.0011***	-0.0027***	-0.0027***	-0.0027***	-0.0027***
ROA	0.0038*	0.0038*	0.0037*	0.0037*	0.0020	0.0020	0.0020	0.0019
부채비율	-0.0033***	-0.0033***	-0.0033***	-0.0033***	0.0029***	0.0029***	0.0029***	0.0028***
국가지분율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GRDP(로그)	-0.0002	-0.0002	-0.0002	-0.0002	0.0005	0.0005	0.0005	0.0005
지역재정자립도	0.0002	0.0002	0.0002	0.0002	-0.0010	-0.0009	-0.0010	-0.0009
상수항	0.0326***	0.0325***	0.0330***	0.0330***	0.0684***	0.0690***	0.0687***	0.0686***
지역더미(성더미)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산업더미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연도더미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R ²	0.1824	0.1822	0.1824	0.1827	0.2118	0.2122	0.2119	0.2120
Number of groups	1,875	1,875	1,875	1,875	1,875	1,875	1,875	1,875
Number of obs	8,489	8,489	8,489	8,489	8,489	8,489	8,489	8,489
Breusch-Pagan Test	0.0000	0.0000	0.0000	0.0000	-	-	-	-

주) *p<.10 **p<.05 ***p<.01

제2절 정치적 요인이 민영기업 세금부담에 미치는 영향

1. 분석모형

민영기업의 정치관련성이 기업의 세금부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많다. Li & Xu(2013), Yao & Xu(2014), Zou & Li(2016)의 연구에서는 민영기업의 정치관련성을 기업의 CEO가 과거 정부 보직을 겸했거나, 현재 인민대표대회 혹은 정치협상회의 대표의 경우로 조작적 정의해 실증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민영기업의 정치관련성이 세금부담을 줄여주었다.

그러나 연구문제 1-1에서 설명했듯이 본 연구는 기업의 정치관련성 외에 기업의 세금납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당 기업 소속의 지역요인(특히 지역장)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민영기업의 세금부담⁴⁸을, 독립변수로 민영기업 CEO의 정치관련성과 지역장의 정치불확실성, 낙하산인사, 승진동기를 포함하고자 한다. 단, 민영기업의 경우 현재 정부의 보직을 겸하는 경우는 없고, 인민대표대회나, 정치협상회의 대표로 활동하는 경우만 다소 있다. 하여 본 연구에서는 민영기업의 정치관련성을 기업 CEO가 과거 정부보직을 겸한 여부로 정의하고자 한다.

통제변수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와 달리 민영화더미를 포함하고자 한다. 실제로 2008년부터 2017년간 중국의 상장한 국유기업 중 954개가 민영화 되었다. 민영화한 민영기업은 기본적으로 순 민영기업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민영화더미를 포함하고자 한다.

또한 민영기업도 연구문제 1-1과 같이 국진민퇴의 정책효과와 시진핑반부패 정책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해당 관련 더미변수를 연구모형에 추가하고자 한다.

이 외에도 Gupta(1997)와 Feng(2012) 연구를 참조하여 기업의 자산규모, ROA, 부채비율, 오너지분율, 산업더미, 연도더미를 포함한다.

48) 세금부담에 대한 정의는 국유기업 세금부담의 정의와 동일

또한 본 연구는 지역을 나타내는 지역 총생산액과,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성더미(31 개)를 연구모형에 포함하고자 한다.

표 16 연구문제 1-2의 변수구성과 조작적 정의

구분	변수명	변수의 조작적 정의
종속 변수	세금부담	연말 세금납부 총액 / 연말 총 영업 수입
독립 변수	기업정치관련성	기업의 CEO가 과거 정부(인민대표대회, 정치협상회) 보직을 겸했으면 1, 아니면 0
	정치불확실성	전직 시 서기의 재임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시 서기가 교체하면 1, 아니면 0
	지역장낙하산인사	시 서기가 성, 혹은 중앙부터 부임해 왔으면 1, 아니면 0
	지역장승진동기	시 당위서기의 취임 시 나이가 해당 연도 평균 취임 나이보다 어리면 1, 아니면 0
통제 변수	민영화더미	국유기업을 민영화한 민영기업이면 1, 아니면 0
	국진민퇴더미	2008~2010년 = 0; 2011~2017년 = 1
	시진평반부패더미	2008~2012년 = 0; 2013~2017년 = 1
	자산규모(로그)	자본금(로그값)
	ROA	총자산수익율=당기순이익/자산총액
	부채비율	부채총액/자산총액
	국가지분율	국가 지분율
	GRDP(로그)	해당 시의 지역 내 총생산액(로그값)
	지역재정자립도	해당 시의 재정자립도 = 재정수입/재정지출
	지역더미(성더미)	성기준
	산업더미	산업기준(중국 통계청 산업분류: 18개)
	연도더미	연도기준

연구문제 1-2의 분석모형에 사용될 변수들과 각각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7 연구문제 1-2의 기술통계량

변수명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세금부담	5,578	0.018927	0.0160125	0.000987	0.080021
기업정치관련성	5,578	0.307211	0.461378	0	1
정치불확실성	5,578	0.155634	0.362541	0	1
지역장낙하산인사	5,578	0.338953	0.473396	0	1
지역장승진동기	5,578	0.502548	0.490015	0	1
민영화더미	5,578	0.412163	0.492267	0	1
국진민퇴더미	5,578	0.814944	0.388377	0	1
시진평반부패더미	5,578	0.645178	0.478501	0	1
자산규모(로그)	5,578	21.98298	1.272525	17.66334	28.50853
ROA	5,578	0.048296	0.031657	-0.1631	0.139159
부채비율	5,578	0.411638	0.175044	0.102496	0.771628
오너지분율	5,578	32.4446	14.10052	2.197	95.95
GRDP(로그)	5,578	8.234521	1.005957	4.189129	10.24632
지역재정자립도	5,578	0.768175	0.204604	0.040045	1.541259

2.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될 자료는 패널데이터여서 이에 대한 적절한 모형에는 합동(pooled)OLS 분석과 패널의 특성을 고려하는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이 있다. 단,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핵심적 독립변수인 기업 CEO의 정치관련성 변수와, 주요 통제변수인 민영화더미, 산업더미, 지역더미(성)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기에 고정효과모형의 추정은 힘들다. 하여 본 연구에서는 확률효과모형과 합동(pooled)OLS 모형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우선 Breusch-Pagan 의 LM(Lagrangian Multiplier) 검증결과 유의수준이 1%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는데, 이는 합동(pooled)OLS 모형보다 패널 그룹(기업)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확률효과모형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이하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은 확률효과모형 결과에 따르고자 한다.

아래 표와 같이 모형 1 의 분석결과 주요 독립변수인 기업정치관련성은 10%의 유의수준에서 부(-)의 영향을 나타냈다. 이는 정치관련성이 있는 민영기업의 경우 세금부담이 더 낮음을 의미한다. 단, 직할시를 포함했을 시 민영기업의 정치관련성이 세금부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는 Feng(2012), Li & Xu(2013), Yao & Xu(2014), Zou & Li(2016) 등의 연구결과와 상이하다.

이러한 상이한 결론에는 본 연구에서 민영기업의 세금납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장 변수, 지역변수(재정자립도, 성급더미)와 민영화더미 변수 등의 추가와 통제로 나타났을 수 있으나, 추후의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독립변수 지역장의 승진동기는 1%의 유의수준에서 부(-)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시당위서기의 승진동기가 높을수록 민영기업의 세금부담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시당위서기의 승진동가가 높으면 민영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경제성장에서의 민영기업의 역할이 확대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외에도 독립변수 정치불확실성은 부(-)의 영향을 나타냈지만 유의수준이 관찰되지 않았고, 낙하산인사 변수는 정(+)의 영향을 나타냈지만 여전히 유의수준이 발견되지 않았다.

통제변수 중 민영화더미는 부(-)의 영향을 나타냈지만 유의수준이 발견되지 않았다. 민영기업의 자산규모는 1%의 유의수준에서 부(-)의 영향을 나타냈는데, 이는 민영기업의 자산규모가 클수록 세금부담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영기업의 성과를 나타내는 ROA와 부채비율은 정(+)의 영향을 나타냈지만 유의수준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 외에도 오너지분율은 정(+)의 영향을, 지역내총생산은 부(-)의 영향을, 지역재정자립도는 정(+)의 영향을 나타냈지만 여전히 유의수준이 관찰되지 않았다.

모형 2은 유의미한 독립변수에서 국유기업을 민영화한 민영기업과 순 민영기업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순 민영기업에 비해 민영화한 민영기업의 경우 지역장승진동기가 세부담을 더 줄여주는 영향을 나타냈지만 유의수준이 나타나지 않았다.

모형 3과 모형 4은 모형 1에 국진민퇴 정책과 시진핑반부패가 민영기업의 정치관련성이 세금부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보기 위해서이다. 분석 결과 세금부담에 부(-)의 영향을 나타냈지만 유의수준이 관찰되지 않았다.

표 18 연구문제 1-2의 분석결과

변수 구분	확률효과모형				합동(Pooled) OLS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기업정치관련성	-0.0008*	-0.0014**	-0.0005	-0.0005	-0.0003**	-0.0004*	-0.0001	-0.0002
정치불확실성	-0.0003	-0.0003	-0.0003	-0.0003	-0.0001	-0.0001	-0.0001	-0.0001
지역장낙하산인사	0.0007	0.0007	0.0007	0.0007	0.0008	0.0008	0.0008	0.0008*
지역장승진동기	-0.0011***	-0.0011***	-0.0011***	-0.0011***	-0.0011**	-0.0011**	-0.0011**	-0.0011**
민영화더미	-0.0008	-0.0012	-0.0008	-0.0008	-0.0006	-0.0007	-0.0006	-0.0006
정치관련성*민영화		0.0014				0.0001		
승진동기*민영화		-0.0014				-0.0001		
국진민퇴더미			0.0028***				0.0025**	
정치관련성*국진민퇴			-0.0004				-0.0005	
시진평반부패더미				0.0028***				0.0025**
정치관련성*시반부패				-0.0005				-0.0008
자산규모(로그)	-0.0002***	-0.0002***	-0.0002***	-0.0002***	-0.0008***	-0.0008***	-0.0008***	-0.0008***
ROA	0.0013	0.0013	0.0013	0.0013	0.0018	0.0018	0.0018	0.0018
부채비율	0.0005	0.0005	0.0006	0.0006	-0.0018**	-0.0018**	-0.0018**	-0.0018**
오너지분율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GRDP(로그)	0.0003	0.0003	0.0003	0.0003	0.0009***	0.0009***	0.0009***	0.0009***
지역재정자립도	0.0001	0.0001	0.0001	0.0001	-0.0025	-0.0025	-0.0025	-0.0025
상수항	0.0103	0.0106	0.0101	0.0101	0.0168***	0.0168***	0.0167***	0.0167***
지역더미(성더미)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산업더미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연도더미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R ²	0.1392	0.1389	0.1392	0.1393	0.1433	0.1528	0.1528	0.1529
Number of groups	1,503	1,503	1,503	1,503	1,503	1,503	1,503	1,503
Number of obs	5,578	5,578	5,578	5,578	5,578	5,578	5,578	5,578
Breusch-Pagan Test	0.0000	0.0000	0.0000	0.0000	-	-	-	-

주) *p<.10 **p<.05 ***p<.01

제3절 소결

본 장에서는 기업의 정치관련성과 시당위서기의 인사행정이 기업의 세금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분석에 앞서 중국의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이질성과 기업의 정치관련성에 대한 상이한 조작적 정의로 본 장에서는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을 따로 분리해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핵심변수 중심으로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국유기업의 경우 첫째, 기업의 정치관련성이 기업의 세금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 주었는데 이는 국유기업이 정치관련성으로 세금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지역장의 낙하산 인사행정은 국유기업의 세금부담을 높여주었는데 이는 지역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가 지역의 정경유착으로 받는 국유기업의 세금특혜를 간접적으로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다 주는데 그 의미가 있다. 단 지역장의 정치불확실성과 승진동기는 국유기업의 세금부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둘째, 2011년 이후 특정산업에 대한 국유기업의 인수·합병이 본격화되면서 지방의 많은 국유기업들이 중앙(국유)기업에 합병되어, 국유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더 높아졌다. 한편 중앙의 국유기업 집중정책은 민영기업의 인수·합병을 초래해 국유기업의 확장정책으로 변질되었다. 이러한 국유기업의 집중·확장정책, 이른바 국진민퇴정책은 국유기업의 정치관련성을 통한 세금특혜를 실질적으로 줄여주지는 못했다.

셋째, 2013년 이후 시진핑 정부의 전례없는 고강도의 반부패 운동은 정치관련성을 통한 국유기업의 세금특혜를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역할을 하였다. 이는 정치적인 지속적인 반부패 운동이 기업의 부패와 지방정부의 정경유착을 줄여주는 효과를 주었다. 한편, 이는 과거 중국의 발전모델의 경우 부패와 함께 경제성장을 이룩했음을 의미하는데, 시진핑 정부의 반부패 운동의 효과가 이를 입증해 준다.

민영기업의 경우 첫째, 기업의 정치관련성이 기업의 세금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 주었는데 이는 민영기업이 정치관련성으로 세금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시당위서기의 승진동기는 민영기업의

세금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었는데 이는 승진동기가 높은 시당위서기일수록 민영기업의 세금을 줄여주면서 지역경제에 대한 민영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참여로 지역경제를 끄러 올리려는 유인이 있음을 검증하였다. 한편 지역장의 경우 실질적으로 국유기업의 기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에, 세금혜택을 주지 않고서도 국유기업의 투자 등 기타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지역장의 승진동기가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에 서로 다른 결론을 가져온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2011년 이후 국유기업의 집중·확장정책, 이른바 국진민퇴정책은 정치관련성을 통한 민영기업의 세금특혜를 실질적으로 줄여주지 못했다. 이러한 중앙의 국진민퇴정책은 국유기업의 세금특혜는 물론 민영기업의 세금특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 못했다.

셋째, 2013년 이후 시진핑 정부의 전례없는 고강도의 반부패 운동은 정치관련성을 통한 민영기업의 세금특혜를 실질적으로 줄여주지 못했다. 이는 시진핑의 반부패 운동이 국유기업의 세금특혜를 줄여주는 효과를 주었지만, 민영기업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지 못했다. 이는 시진핑 반부패 운동이 정부(지역장 포함)와 국유기업에서 더 좋은 효과를 보았음을 의미한다.

제6장 정치적 요인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제1절 정치적 요인이 국유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

1. 분석모형

본 장에서는 기업의 정치관련성과 중앙의 지역장 인사행정이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지역장의 정치불확실성이나 지역장의 특징, 승진동기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국유기업의 경우 정치불확실성이 있을 시 기업의 투자가 일시적으로 위축되는 영향을 받으며, 지역장의 승진동기가 높을수록 국유기업이 더 투자를 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Xu et al., 2013; Sun & Zhong, 2014; Fu & Li; Wang et al., 2017).

그러나 중국은 주요 생산요소와 주요산업에 대한 정부의 독점과, 까다로운 행정규제 등으로 중국기업은 자유로이 투자를 확대하기 힘들다. 특히 금융권에 대한 정부의 통제로 투자의 기회는 더욱 적어 진다(Che & Qian, 1998; 2003; Wang & Shi, 2006). 실제로 과거 중국의 경제성장은 투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주로 정부의 직접투자나 국유기업을 통한 투자가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업과 산업의 고유 특성을 통제한 이후, 정치적 요인 특히 기업의 정치관련성이 기업투자를 높여준다면 이를 기업이 융자를 많이 받을 수 있거나, 사업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또한 기업의 혜택으로 접근할 수 있다.

하여 본 장에서는 기업의 정치관련성과 지역장에 대한 중앙의 인사행정, 지역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업의 정치관련성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또한 국진민퇴 정책과 시진핑반부패 정책이 기업과 지방정부의 유착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해보기 위하여 국진민퇴더미와 시진핑반부패더미를 모형에 추가한다.

종속변수로 기업투자를, 독립변수에 기업CEO의 정치관련성과

지역장의 정치불확실성, 낙하산인사, 승진동기를 포함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도 제5장과 같이 통제변수에 국유기업의 역민영화더미, 중앙기업더미를 포함하고자 한다.

이 외에도 기업의 자산규모, ROA, Tobin Q, 부패비율, 국가지분율, 관리비용율을 포함한다(Zhang, 2010; Yonce, 2010; Xu et al., 2013). 또한 Julio & Yook(2012)의 방법대로 ROA와 Tobin Q 변수는 전년도 값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지역을 나타내는 지역총생산액과,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성더미(31개)와, 연도, 산업더미를 연구모형에 포함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2-1의 분석모형에 사용될 변수들과 각각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9 연구문제 2-1의 변수구성과 조작적 정의

구분	변수명	변수의 조작적 정의
종속 변수	기업투자	(고정 및 무형자산 총 투자액 + 고정 및 무형자산 매각액) / 자산총액
독립 변수	기업정치관련성	기업의 CEO가 현재 정부(인민대표대회, 정치협상회) 보직을 겸했으면 1, 아니면 0
	정치불확실성	전직 시 서기의 재임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시 서기가 교체하면 1, 아니면 0
	지역장낙하산인사	시 서기가 성, 혹은 중앙부터 부임해 왔으면 1, 아니면 0
	지역장승진동기	시 당위서기의 취임 시 나이가 해당 연도 평균 취임 나이보다 어리면 1, 아니면 0
	역민영화더미	민영기업을 국유화한 국유기업이면 1, 아니면 0
	국진민퇴더미	2008~2010년 = 0; 2011~2017년 = 1
	시진평반부패더미	2008~2012년 = 0; 2013~2017년 = 1

통계 변수	중앙기업더미	중앙기업 소속이면 1, 아니면 0
	자산규모(로그)	자산규모(로그값)
	ROA(전기)	총자산수익율=당기순이익/자산총액
	TobinQ(전기)	기업가치/(부채+자산규모)
	부채비율	부채총액/자산총액
	국가지분율	국가 지분율
	관리비용율	관리비용/영업수입
	GRDP(로그)	해당 시의 지역 내 총생산액(로그값)
	지역재정자립도	해당 시의 재정자립도 = 재정수입/재정지출
	지역더미	성기준
	산업더미	산업기준(중국 통계청 산업분류: 18개)
	연도더미	연도기준

연구문제 2-1의 분석에 사용될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0 연구문제 2-1의 기술통계량

변수명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기업투자	8,481	0.136124	0.230154	-0.13458	1.021547
기업정치관련성	8,481	0.138688	0.345641	0	1
정치불확실성	8,481	0.168413	0.3742552	0	1
지역장낙하산인사	8,481	0.359321	0.4798299	0	1
지역장승진동기	8,481	0.520135	0.443003	0	1
역민영화더미	8,481	0.378122	0.484946	0	1
국진민퇴더미	8,481	0.7903339	0.4070941	0	1
시진평반부패더미	8,481	0.6090357	0.4879949	0	1
중앙기업더미	8,481	0.3024749	0.4593566	0	1
자산규모(로그)	8,481	21.98414	1.225741	17.6413	28.50873
ROA(전기)	8,481	0.046443	0.043476	-0.1646	0.192197
TobinQ(전기)	8,481	2.152097	1.295306	0.61929	8.04712
부채비율	8,481	0.423508	0.180032	0.094477	0.778623

국가지분율	8,481	40.30932	16.06276	3.62	99
관리비용율	8,481	0.091829	0.065162	0.001501	1.510241
GRDP(로그)	8,481	8.584112	1.201009	4.189129	9.587425
지역재정자립도	8,481	0.77822	0.203351	0.040045	1.541259

2.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될 자료는 패널데이터여서 이에 대한 적절한 모형에는 합동(pooled)OLS 분석과 패널의 특성을 고려하는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이 있다. 단,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핵심적 독립변수인 기업 CEO 변수는 시간에 따라 잘 변하지 않고, 주요 통제변수인 역민영화더미, 중앙국유기업더미, 산업더미, 지역더미(성)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기에 고정효과모형의 추정은 힘들다. 하여 본 연구에서는 확률효과모형과 합동(pooled)OLS 모형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우선 Breusch-Pagan 의 LM(Lagrangian Multiplier) 검증결과 유의수준이 1%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는데, 이는 합동(pooled)OLS 모형보다 패널 그룹(기업)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확률효과모형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이하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은 확률효과모형 결과에 따르고자 한다.

아래 표와 같이 모형 1 의 분석결과 주요 독립변수인 기업정치관련성은 1%의 유의수준에서 국유기업의 기업투자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국유기업의 경우 정치관련성이 있으면 기업투자를 늘린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국유기업의 정치관련성이 투자혜택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독립변수 지역장의 정치불확실성은 10%의 유의수준에서 부(-)의 영향을 미쳤다. 시당위서기의 정치불확실성이 있을 시 국유기업의 투자가 위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Xu et al.(2013)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다.

지역장의 낙하산인사는 부(-)의 영향을 나타냈지만 유의수준이 관찰되지 않았다. 지역장 낙하산인사도 하나의 정치불확실성으로 볼 수 있어 기업의 경우 투자가 위축되어야 하나, 이러한 불확실성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중앙 혹은 성급정부(지급시의 경우)에서 부임해 온 정보 비대칭 등으로 발생하는 불확실성이다. 그러나, 중국 국유기업의 경우 중앙에서 성급으로, 성급에서 시로 수직계열화 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상급(중앙 혹은 성급)에 따른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적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역장승진동기 변수는 정(+)의 영향을 나타냈지만 여전히 유의수준이 발견되지 않았다.

통제변수 중 역민영화더미는 정(+)의 영향을 나타냈지만 유의수준이 관찰되지 않았고, 중앙기업더미는 부(-)의 영향을 나타냈지만 여전히 유의수준이 관찰되지 않았다. 국유기업의 자산규모는 5%의 유의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나타냈다. 기업성과를 나타내는 ROA(전기)은 정(+)의 영향을 나타냈지만 유의수준이 관찰되지 않았다. Tobin Q 은 1%의 유의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나타냈다. 국가지분율과 부채비율은 부(-)의 영향을 나타냈지만 유의수준이 관찰되지 않았다. 국가지분율은 정(+)의 영향을 지역내총생산과 지역재정자립도는 부(-)의 영향을 나타냈지만 유의수준이 관찰되지 않았다. 관리비용율은 1%의 유의수준에서 부(-)의 영향을 나타냈는데, 이는 Xu et al.(2013)의 연구처럼 관리비용이 많이 드는 국유기업일수록 기업투자가 적게 나타났다.

모형 2 은 유의미한 독립변수에서 역민영화한 국유기업과 순 국유기업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순 국유기업에 비해 역민영화한 국유기업의 경우 정치관련성이 있을 시 국유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영향을 나타냈지만 유의수준이 나타나지 않았다. 순 국유기업에 비해 역민영화한 국유기업이 지역장의 낙하산 인사가 있을 시 국유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영향을 나타냈지만 유의수준이 관찰되지 않았다.

모형 3 은 국진민퇴의 정책이 국유기업 기업정치관련성의 투자혜택을 줄여 주는가를 보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모형 3 은 모형 1 에 기업정치관련성과 국진민퇴 교차항 변수를 포함시켰다. 분석 결과, 정책효과를 나타내는 기업정치관련성과 국진민퇴 교차항 변수가 정(+)의 영향을 나타냈고 유의수준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 또한 국진민퇴는 국유기업의 인수·합병 정책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국유기업의 확장정책이기에 정치관련성을 통해 받는 투자혜택을 줄일 수는 없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모형 4 은 시진핑반부패 정책이 국유기업 기업정치관련성의 투자혜택을 줄여 주는가를 보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모형 4 에서는 모형 1 에 기업정치관련성과 시진핑반부패 교차항 변수를 포함시켰다. 분석 결과, 정책효과를 나타내는 기업정치관련성과 시진핑반부패 교차항 변수가 혜택을 줄이는 부(-)의 효과를 나타냈지만 유의수준이 관찰되지 않았다.

표 21 연구문제 2-1의 분석결과

변수 구분	확률효과모형				합동(Pooled) OLS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기업정치관련성	0.0589***	0.0467*	0.0222	0.0640**	0.0632***	0.0447**	0.0287	0.0645***
정치불확실성	-0.0256*	-0.0262*	-0.0253*	-0.0256*	-0.0301*	-0.0309	-0.0298*	-0.0301*
지역장낙하산인사	-0.0034	-0.0033	-0.0032	-0.0034	-0.0061	-0.0059	-0.0059	-0.0061
지역장승진동기	0.0169	0.0167	0.0173	0.017	0.0134	0.0131	0.0136	0.0134
역민영화더미	0.0175	0.0129	0.0176	0.0174	0.0203*	0.0133	0.0204*	0.0203*
정치관련성*역민영화		0.0308				0.0465		
정치불확실성*역민영화		0.0017				0.002		
국진민퇴더미			-0.0537*				-0.0026	
정치관련성*국진민퇴			0.0491				0.0462	
시진핑반부패더미				-0.0469				0.0034
정치관련성*시반부패				-0.0103				-0.0028
중앙기업더미	-0.0091	-0.0091	-0.0092	-0.0091	-0.0128	-0.0128	-0.0129	-0.0128
자산규모(로그)	0.0186**	0.0183**	0.0186**	0.0186**	0.0117**	0.0114*	0.0117**	0.0116**
ROA(전기)	0.0014	0.0013	0.0014	0.0014	0.0016	0.0016	0.0016	0.0016
TobinQ(전기)	0.0182***	0.0182***	0.0183***	0.0182***	0.0190***	0.0189***	0.0190***	0.0190***

부채비율	-0.0024	-0.0024	-0.0024	-0.0024	-0.0046	-0.0046	-0.0046	-0.0046
국가지분율	-0.0003	-0.0003	-0.0003	-0.0003	-0.0003	-0.0003	-0.0003	-0.0003
관리비용율	-0.1677***	-0.1677***	-0.1682***	-0.1676***	-0.1556***	-0.1559***	-0.1561***	-0.1556***
GRDP(로그)	0.018	0.018	0.018	0.0181	0.0148	0.0146	0.0148	0.0148
지역재정자립도	0.0653	0.0664	0.0647	0.0651	0.0743	0.0759	0.0739	0.0742
상수항	-0.5408***	-0.5330***	-0.5339***	-0.5419***	-0.3820**	-0.3712**	-0.3760**	-0.3823**
지역더미(성더미)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산업더미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연도더미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R ²	0.1282	0.1283	0.1285	0.1284	0.1418	0.1420	0.1423	0.1425
Number of groups	1,874	1,874	1,874	1,874	1,874	1,874	1,874	1,874
Number of obs	8,481	8,481	8,481	8,481	8,481	8,481	8,481	8,481
Breusch-Pagan Test	0.0000	0.0000	0.0000	0.0000	-	-	-	-

주) *p<.10 **p<.05 ***p<.01

제2절 정치적 요인이 민영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

1. 분석모형

연구문제 2-2에서는 민영기업의 정치관련성과 지역장에 대한 중앙의 인사행정이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실제로 민영기업은 국유기업에 비해 기업투자에 있어 더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 주요 생산요소와 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 및 국유기업의 독점으로 민영기업은 국유기업에 비해 투자의 기회가 훨씬 적다. 이러한 적은 투자 기회는 적극적인 기업투자가 기업성장을 창출하는 경제성장기에 더욱 불리하게 작동된다.

중국의 경우 민영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는 정부로부터의 사업기회와 정보의 획득뿐만이 아니라 용자가 편의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Luo & Zhen(2006)은 민영기업 성장에 있어 용자난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중국의 경우 금융에 대한 정부에 지나친 독점과 관련이 있다.

하여 본 장에서는 기업의 정치관련성과 지역장에 대한 중앙의 인사행정, 지역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민영기업의 정치관련성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또한 국진민퇴 정책과 시진핑반부패 정책이 기업과 지방정부의 유착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해보기 위하여 국진민퇴더미와 시진핑반부패더미를 변수에 추가한다.

종속변수로 기업투자를, 독립변수에 기업CEO의 정치관련성과 지역장의 정치불확실성, 낙하산인사, 승진동기를 포함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도 제5장과 같이 민영기업의 민영화더미를 포함하고자 한다.

통제변수로 기업투자에 규모, ROA, Tobin Q, 부패비율, 오너지분율, 관리비용율을 포함한다(Zhang, 2010; Yonce, 2010; Xu et al., 2013). 또한 Julio & Yook(2012)의 방법대로 ROA와 Tobin Q 변수는 전년도 값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지역을 나타내는 지역 총생산액과,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성더미(31개)와 연도더미, 산업더미를 연구모형에 포함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2-2의 분석모형에 사용될 변수들과 각각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2 연구문제 2-2의 변수 구성과 조작적 정의

구분	변수명	변수의 조작적 정의
종속 변수	기업투자	(고정 및 무형자산 총 투자액 + 고정 및 무형자산 매각액) / 자산총액
독립 변수	기업정치관련성	기업의 CEO가 현재 정부(인민대표대회, 정치협상회) 보직을 겸했으면 1, 아니면 0
	정치불확실성	전직 시 서기의 재임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시 서기가 교체하면 1, 아니면 0
	지역장낙하산인사	시 서기가 성, 혹은 중앙부터 부임해 왔으면 1, 아니면 0
	지역장승진동기	시 당위서기의 취임 시 나이가 해당 연도 평균 취임 나이보다 어리면 1, 아니면 0
통제 변수	민영화더미	국유기업을 민영화한 민영기업이면 1, 아니면 0
	국진민퇴더미	2008~2010년 = 0; 2011~2017년 = 1
	시진평반부패더미	2008~2012년 = 0; 2013~2017년 = 1
	자산규모(로그)	자산규모(로그값)
	ROA(전기)	총자산수익율=당기순이익/자산총액
	TobinQ(전기)	기업가치/(부채+자산규모)
	부채비율	부채총액/자산총액
	오너지분율	국가 지분율
	관리비용율	관리비용/영업수입
	GRDP(로그)	해당 시의 지역 내 총생산액(로그값)
	지역재정자립도	해당 시의 재정자립도 = 재정수입/재정지출
	지역더미	성기준

	산업더미	산업기준(중국 통계청 산업분류: 18개)
	연도더미	연도기준

연구문제 2-2의 분석모형에 사용될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3 연구문제 2-2의 기술통계량

변수명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기업투자	6,151	0.125345	0.245427	-0.18126	1.211271
기업정치관련성	6,151	0.317812	0.465663	0	1
정치불확실성	6,151	0.144181	0.351302	0	1
지역장낙하산인사	6,151	0.332412	0.471116	0	1
지역장승진동기	6,151	0.504587	0.489541	0	1
민영화더미	6,151	0.407431	0.4913955	0	1
국진민퇴더미	6,151	0.788391	0.4084816	0	1
시진평반부패더미	6,151	0.604050	0.489092	0	1
자산규모(로그)	6,151	21.99577	1.354927	16.93942	28.50853
ROA(전기)	6,151	0.048306	0.031618	-0.16976	0.19143
TobinQ(전기)	6,151	2.134455	1.334179	0.415778	6.168814
부채비율	6,151	0.426003	0.175273	0.102802	0.797175
국가지분율	6,151	32.56293	14.14919	2.197	95.95
관리비용율	6,151	0.096301	0.084055	0.001969	2.045475
GRDP(로그)	6,151	8.233154	1.005142	4.189129	10.24632
지역재정자립도	6,151	0.763878	0.203186	0.040045	1.541259

2.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될 자료는 패널데이터여서 이에 대한 적절한 모형에는 합동(pooled)OLS 분석과 패널의 특성을 고려하는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이 있다. 단,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핵심적 독립변수인 기업 CEO 변수는 시간에 따라 잘 변하지 않고, 주요 통제변수인 민영화더미, 산업더미, 지역더미(성)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기에 고정효과모형의 추정은 힘들다. 하여 본 연구에서는 확률효과모형과 합동(pooled)OLS 모형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우선 Breusch-Pagan 의 LM(Lagrangian Multiplier) 검증결과 유의수준이 1%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는데, 이는 합동(pooled)OLS 모형보다 패널 그룹(기업)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확률효과모형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이하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은 확률효과모형 결과에 따르고자 한다.

아래 표와 같이 모형 1 의 분석결과 주요 독립변수인 기업정치관련성은 10%의 유의수준에서 민영기업의 기업투자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민영기업의 경우 정치관련성이 있으면 기업투자를 늘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영기업의 정치관련성이 투자혜택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독립변수 지역장의 정치불확실성은 정(+)의 영향을 나타냈는데 유의수준이 관찰되지 않았다. 국유기업은 시당위서기의 정치불확실성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나타냈지만 민영기업의 기업투자는 위축되지 않았다. 이는 국유기업이 지역장의 영향을 더 직접적으로 받는데, 이러한 영향이 일시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영기업의 경우 지역장의 낙하산인사는 10%의 유의수준에서 부(-)의 영향을 나타냈는데 이는 시당위서기가 중앙 혹은 성급(지급시의 경우)에서 부임해 왔을 시 민영기업의 투자가 유의미하게 위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부터 수직계열화 된 국유기업과 달리 민영기업이 지역장의 낙하산인사에 영향을 받는 것은, 낙하산인사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 및 정보비대칭성과, 기존 정부와의 유착관계가 깨지게 되어 투자기회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지역장승진동기가 민영기업의 투자에 정(+)의 영향을 나타냈지만 여전히 유의수준이 발견되지 않았다.

통제변수 중 민영화더미는 10%의 유의수준에서 부(-)의 영향을 나타냈다. 민영기업의 자산규모, ROA(전기)은 1%의 유의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나타냈다. 이는 민영기업의 자산규모가, 수익성이 높을수록 기업투자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는 민영기업의 경우 국유기업보다 기업의 수익성 등 자체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Tobin Q의 경우도 1%의 유의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나타냈는데, 이는 국유기업과 일치하다.

민영기업의 부채비율과 관리비용률은 부(-)의 영향을, 오너지분율은 정(+)의 영향을 나타냈지만 유의수준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 외에도 지역내총생산은 정(+)의 영향을, 지역재정자립도는 부(-)의 영향을 나타냈지만 유의수준이 관찰되지 않았다.

모형 2은 유의미한 독립변수에서 국유기업을 민영화한 민영기업과 순 민영기업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모형 2은 모형 1에서 기업정치관련성과 민영화더미의 교차항과, 낙하산인사와 민영화더미 교차항 변수를 포함시켰다. 분석 결과 정치관련성과 민영화더미의 교차항의 경우 부(-)의 영향을 나타냈지만 유의수준이 관찰되지 않았다. 한편 낙하산인사와 민영화더미의 교차항은 1%의 유의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나타냈는데, 이는 민영화한 민영기업이 순 민영기업보다 지역장의 낙하산인사로 인한 투자위축을 적게 위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형 3은 국진민퇴의 정책이 민영기업 기업정치관련성의 투자혜택을 줄여 주는가를 보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모형 3은 모형 1에서 기업정치관련성과 국진민퇴 교차항 변수를 포함시켰다. 분석 결과, 정책효과를 나타내는 기업정치관련성과 국진민퇴 교차항 변수가 5%의 유의수준에서 부(-)의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국진민퇴 정책이 민영기업의 기업정치관련성이 투자혜택을 가졌던, 기업부패를 줄여주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는 2011년 이후부터 국유기업의 확장 계획으로, 민영기업의 성장환경이 더욱 좋아 졌음을 의미한다.

모형4은 시진핑반부패 정책이 민영기업 기업정치관련성의 투자혜택을 줄여 주는가를 보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모형4은 모형1에서 기업정치관련성과 시진핑반부패 교차항 변수를 포함시켰다. 분석 결과, 정책효과를 나타내는 기업정치관련성과 시진핑반부패 교차항 변수가 혜택을 줄이는 부(-)의 효과를 나타냈지만 유의수준이 관찰되지 않았다.

표 24 연구문제 2-2의 분석결과

변수 구분	확률효과모형				합동(Pooled) OLS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기업정치관련성	0.0129*	0.0169*	0.0259**	0.0210**	0.0159**	0.0198**	0.0243*	0.0202**
정치불확실성	0.0115	0.0125	0.0115	0.0116	0.013	0.014	0.0131	0.0131
지역장낙하산인사	-0.0087*	-0.0295***	-0.0089*	-0.0089*	-0.0112**	-0.0323***	-0.0113**	-0.0113**
지역장승진동기	0.0142	0.0162	0.0141	0.014	0.01	0.0116	0.0099	0.0099
민영화더미	-0.0156*	-0.0282***	-0.0157*	-0.0158*	-0.0128*	-0.0257***	-0.0128*	-0.0128*
정치관련성*민영화		-0.0101				-0.0103		
낙하산인사*민영화		0.0480***				0.0491***		
국진민퇴더미			-0.0414*				-0.0251**	
정치관련성*국진민퇴			-0.017**				-0.0111**	
시진평반부패더미				-0.0429**				-0.0265**
정치관련성*시반부패				-0.0145				-0.008
자산규모(로그)	0.0180***	0.0179***	0.0181***	0.0180***	0.0151***	0.0150***	0.0151***	0.0151***
ROA(전기)	0.4137***	0.4111***	0.4133***	0.4129***	0.4520***	0.4486***	0.4513***	0.4514***
TobinQ(전기)	0.0088***	0.0088***	0.0088***	0.0088***	0.0091***	0.0090***	0.0090***	0.0091***
부채비율	-0.012	-0.0124	-0.0119	-0.0117	-0.0084	-0.0086	-0.0084	-0.0083

오너지분율	0.0003	0.0003	0.0003	0.0003	0.0003	0.0003	0.0003	0.0003
관리비용율	-0.0204	-0.0203	-0.0206	-0.0203	-0.0209	-0.0206	-0.0209	-0.0208
GRDP(로그)	-0.0012	-0.0013	-0.0012	-0.0012	-0.0003	-0.0001	-0.0004	-0.0003
지역재정자립도	0.0305	0.0316	0.031	0.0306	0.0272	0.0277	0.0274	0.0271
상수항	-0.3119***	-0.3096***	-0.3172***	-0.3153***	-0.2692***	-0.2689***	-0.2720***	-0.2705***
지역더미(성더미)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산업더미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연도더미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R ²	0.1993	0.1992	0.1994	0.1995	0.2011	0.2012	0.2018	0.2014
Number of groups	1,544	1,544	1,544	1,544	1,544	1,544	1,544	1,544
Number of obs	6,151	6,151	6,151	6,151	6,151	6,151	6,151	6,151
Breusch-Pagan Test	0.0000	0.0000	0.0000	0.0000	-	-	-	-

주) *p<.10 **p<.05 ***p<.01

제3절 소결

본 장에서는 기업의 정치관련성과 시당위서기의 인사행정이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분석에 앞서 중국의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이질성과 기업의 정치관련성에 대한 상이한 조작적 정의로 본 장에서는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을 따로 분리해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핵심변수 중심으로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국유기업의 경우 첫째, 기업의 정치관련성이 기업의 투자를 실질적으로 늘여 주었는데 이는 국유기업이 정치관련성으로 투자기회를 더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중국의 경우 주요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과, 정부와 각 공사(국유독자 비상장기업)의 과도한 직접 투자로 상장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투자기회가 비교적 적은 실정에서, 국유기업은 정치관련성으로 사업기회를 더 얻음을 의미한다.

또한 지역장의 정치불확실성은 국유기업의 투자의 일시적 위축을 초래하였다. 이는 국유기업의 경우 지방정부의 영향을 민영기업보다 더 크게 받아, 지역장의 교체와 불확실성이 있을시 투자를 기피하거나 관망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단 지역장의 낙하산인사와 승진동기는 국유기업의 세금주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둘째, 2011년 이후 특정산업에 대한 국유기업의 인수·합병이 본격화되면서 지방의 많은 국유기업들이 중앙(국유)기업에 합병되어, 국유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더 높아졌다. 한편 중앙의 국유기업 집중정책은 민영기업의 인수·합병을 초래해 국유기업의 확장정책으로 변질되었다. 이러한 국유기업의 집중·확장정책, 이른바 국진민퇴정책은 국유기업의 정치관련성을 통한 투자혜택에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셋째, 앞장에서의 연구결과에서는 2013년 이후 시진핑 정부의 전례없는 고강도의 반부패 운동은 정치관련성을 통한 국유기업의 세금특혜를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역할을 나타냈지만, 본 장에서의 연구결과에서는 정치관련성을 통한 국유기업의 투자혜택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민영기업의 경우 첫째, 앞장에서의 연구결과와 같이 기업의

정치관련성이 민영기업의 세금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 줄 뿐만 아니라 투자기회도 확대해준다. 특히 중국의 민영기업은 용자난과 투자난으로 기업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정치관련성을 통해 투자혜택을 더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지역장의 낙하산 인사행정은 민영기업의 투자 위축을 초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유기업의 경우 복잡한 소유구조로, 성 혹은 중앙 국유기업에 수직계열화가 된 경우가 많아 낙하산 인사행정의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지만, 민영기업의 경우 지역장의 상급교체에 따른 불확실성에 더 취약함을 의미한다. 단 지역장의 정치불확실성과 승진동기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

둘째, 2011년 이후 국유기업의 집중·확장정책, 이른바 국진민퇴정책은 정치관련성을 통한 민영기업의 투자혜택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특정산업에 대한 국유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민영기업에 대한 지방 국유기업의 인수·합병정책과 문어발식 사업확장으로, 정치관련성을 통한 민영기업의 투자기회를 크게 위축시켰다. 정치관련성을 통해 얻은 투자기회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 국진민퇴정책이 민영기업의 투자특혜를 줄여줌으로써, 긍정적인 의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중국의 민영기업의 경우 국유기업에 비해 투자와 용자 기회가 훨씬 적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앞 장에서의 연구결과와 같이 2013년 이후 시진핑 정부의 전례없는 고강도의 반부패 운동은 정치관련성을 통한 민영기업의 투자혜택을 줄이지는 못하였다.

제7장 정치적 요인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제1절 정치적 요인이 국유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1. 분석모형

본 장에서는 기업의 정치관련성과 중앙의 지역장 인사행정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기업의 정치관련성은 기업성과에 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지만, 일부 상이한 연구결과도 있었다(Deng, 2011; Yu, 2017).

본 연구는 지방정부 요인, 특히 지역장의 인사행정 요인을 포함시켜, 기업의 정치관련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앞의 두 연구문제에서 국유기업의 정치관련성이 세금혜택과 투자혜택에 유의미한 긍정적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연구모형을 구성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로 기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ROA 를, 독립변수에는 국유기업 CEO 의 정치관련성과 지역장의 정치불확실성, 낙하산인사, 승진동기를 포함하고자 한다. 통제변수로 본 연구에서도 기존 선행연구와 달리 국유기업의 역민영화더미와 중앙기업더미를 포함하고자 한다.

또한 국진민퇴의 정책효과와 시진핑반부패 정책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해당 관련 더미변수를 추가하고자 한다. 이 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Deng(2011)과 Yu(2017) 등의 연구를 참조하여 자산규모, 부채비율, 국가지분율, 산업더미, 연도더미를 포함한다.

본 연구는 지역의 특징도 고려하기에 지역을 나타내는 지역총생산액과,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성더미(31 개)를 연구모형에 포함하고자 한다.

분석모형에 사용될 변수들과 각각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5 연구문제 3-1의 변수구성과 조작적 정의

구분	변수명	변수의 조작적 정의
종속 변수	ROA	총자산수익율=당기순이익/자산총액
독립 변수	기업정치관련성	기업의 CEO가 현재 정부(인민대표대회, 정치협상회) 보직을 겸했으면 1, 아니면 0
	정치불확실성	전직 시 서기의 재임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시 서기가 교체하면 1, 아니면 0
	지역장낙하산인사	시 서기가 성, 혹은 중앙부터 부임해 왔으면 1, 아니면 0
	지역장승진동기	시 당위서기의 취임 시 나이가 해당 연도 평균 취임 나이보다 어리면 1, 아니면 0
통제 변수	역민영화더미	민영기업을 국유화한 국유기업이면 1, 아니면 0
	국진민퇴더미	2008~2010년 = 0; 2011~2017년 = 1
	시진핑반부패더미	2008~2012년 = 0; 2013~2017년 = 1
	중앙기업더미	중앙기업 소속이면 1, 아니면 0
	자산규모(로그)	자본금(로그값)
	부채비율	부채총액/자산총액
	국가지분율	국가 지분율
	GRDP(로그)	해당 시의 지역 내 총생산액(로그값)
	지역재정자립도	해당 시의 재정자립도 = 재정수입/재정지출
	지역더미(성더미)	성기준
	산업더미	산업기준(중국 통계청 산업분류: 18개)
	연도더미	연도기준

연구문제 3-1의 분석에 사용될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6 연구문제 3-1의 기술통계량

변수명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ROA	8,485	0.046533	0.043527	-0.1644	0.192197
기업정치관련성	8,485	0.138869	0.34583	0	1
정치불확실성	8,485	0.169102	0.374864	0	1
지역장낙하산인사	8,485	0.358355	0.479545	0	1
지역장승진동기	8,485	0.520135	0.443003	0	1
역민영화더미	8,485	0.376898	0.484637	0	1
국진민퇴더미	8,485	0.793973	0.404473	0	1
시진평반부패더미	8,485	0.611189	0.487509	0	1
중앙기업더미	8,485	0.303784	0.459917	0	1
자산규모(로그)	8,485	21.86006	1.196194	17.31779	27.78404
부채비율	8,485	0.424565	0.240057	0.007521	7.349638
국가지분율	8,485	40.14508	16.01461	3.62	99
GRDP(로그)	8,485	8.584112	1.201009	4.189129	9.587425
지역재정자립도	8,485	0.7717015	0.213556	0.040045	1.541259

2.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될 자료는 패널데이터여서 이에 대한 적절한 모형에는 합동(pooled)OLS 분석과 패널의 특성을 고려하는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이 있다. 단,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핵심적 독립변수인 기업 CEO 변수는 시간에 따라 잘 변하지 않고, 주요 통제변수인 역민영화더미, 중앙국유기업더미, 산업더미, 지역더미(성)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기에 고정효과모형의 추정은 힘들다. 하여 본 연구에서는 확률효과모형과 합동(pooled)OLS 모형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우선 Breusch-Pagan 의 LM(Lagrangian Multiplier) 검증결과 유의수준이 1%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는데, 이는 합동(pooled)OLS 모형보다 패널 그룹(기업)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확률효과모형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이하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은 확률효과모형 결과에 따르고자 한다.

아래 표와 같이 모형 1 의 분석결과 주요 독립변수인 기업정치관련성은 10%의 유의수준에서 국유기업의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국유기업의 경우 정치관련성이 있으면 성과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유기업의 경우 기업의 정치관련성이 앞선 세금혜택과 투자혜택에 있어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난 것이 궁극적으로 기업의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독립변수 정치불확실성은 정(+)의 영향을, 지역장낙하산인사는 부(-)의 영향을 나타냈지만 유의수준이 관찰되지 않았다. 단, 지역장의 승진동기 변수는 5%의 유의수준에서 국유기업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지역장의 승진동기가 높을수록 국유기업의 성과가 높음을 의미한다. 한편, 지역장의 승진동기가 국유기업의 세금혜택과 투자혜택에는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성과가 좋아졌다는 것은, 지역장의 승진동기가 국유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경로에 세금혜택과 투자혜택 외에 다른 경로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경로에는 지역장의 승진동기에 국유기업의 성과가 주요 승진 평가 기준이 되기에, 국유기업에 일감몰아주기, 정보, 사업기회를 제공해주거나, 상대적으로 민영기업보다 좋은 생산요소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실증연구는 추후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단, 자료 획득의 어려움으로 검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통제변수 중 역민영화더미와 자산규모(로그)은 부(-)의 영향을 나타냈지만 유의수준이 관찰되지 않았고, 중앙기업더미는 부(-)의 영향을 나타냈지만 여전히 유의수준이 관찰되지 않았다. 부채비율은 5%의 유의수준에서 부(-)의 영향을 나타냈는데, 이는 국유기업의 자산규모와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국유기업의 성과가 낮음을 시사한다. 국가지분율은 국유기업의 지분율에 정(+)의 영향을 미쳤지만 유의수준이 관찰되지 않았다.

지역내총생산은 정(+)의 영향을 지역재정자립도는 부(-)의 영향을 나타냈지만 유의수준이 관찰되지 않았다.

모형 2 은 유의미한 독립변수에서 역민영화한 국유기업과 순 국유기업의 차이를 알아 보기 위하여 정치관련성과 역민영화의 교차항 변수와, 지역장승진동기와 역민영화의 교차항 변수를 모형에 추가해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역민영화한 국유기업의 경우 국유기업의 정치관련성과, 지역장승진동기가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정(+)의 영향을 나타냈지만 유의수준이 발견되지 않았다.

모형 3 은 국진민퇴의 정책이 국유기업이 정치관련성으로 받는 기업혜택을 줄일 수 있는가를 보기 위한 모형이다. 이를 위해 모형 3 은 모형 1 에서 기업정치관련성과 국진민퇴 교차항 변수를 포함시켰다. 분석 결과, 정책효과를 나타내는 기업정치관련성과 국진민퇴 교차항 변수가 부(-)의 효과를 나타냈지만 유의수준이 관찰되지 않았다.

모형 4 은 시진핑반부패 정책이 국유기업이 기업정치관련성으로 받는 기업혜택을 줄일 수 있는가를 보기 위한 모형이다. 이를 위해 모형 4 은 모형 1 에서 기업정치관련성과 시진핑반부패 교차항 변수를 포함시켰다. 분석 결과, 정책효과를 나타내는 기업정치관련성과 시진핑반부패 교차항 변수가 5%의 유의수준에서 부(-)의 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시진핑반부패가 국유기업의 정치관련성으로 얻는 기업성과 특혜를 줄이는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시진핑반부패가 국유기업의 투자혜택은 줄여주지 못했지만, 세금혜택을 줄여주면서 국유기업의 성과특혜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정치관련성에 의한 국유기업의 성과특혜가 2013 년 이후 시진핑정부의 강도 높고, 지속적인 반부패 정책으로 크게 위축되었는데 이를 반부패 정책의 효과로 볼 수 있다. 단,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국유기업이 정치관련성으로 성과혜택을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표 27 연구문제 3-1의 분석결과

변수 구분	확률효과모형				합동(Pooled) OLS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기업정치관련성	0.0022*	0.0016	0.0042*	0.0043**	0.0047***	0.0013	0.0054**	0.0054***
정치불확실성	-0.0012	-0.0012	-0.0013	-0.0013	-0.0001	-0.0001	-0.0001	-0.0001
지역장낙하산인사	0.0016	0.0016	0.0016	0.0016	-0.0009	-0.0009	-0.0009	-0.0009
지역장승진동기	0.0034**	0.0045**	0.0034**	0.0034**	0.0030**	0.0029*	0.0030**	0.0030**
역민영화더미	0.000	0.0024	0.0000	-0.0001	0.0009	0.0002	0.0009	0.0009
정치관련성*역민영화		0.0015				0.0082**		
승진동기*역민영화		-0.0031				-0.0006		
국진민퇴더미			-0.0069***				-0.0026***	
정치관련성*국진민퇴			-0.0027				-0.001	
시진핑반부패더미				-0.0069***				-0.0026***
정치관련성*시반부패				-0.0044**				-0.0016**
중앙기업더미	-0.0001	-0.0001	-0.0001	-0.0001	-0.0013	-0.0013	-0.0013	-0.0013
자산규모(로그)	-0.0008	-0.0008	-0.0008	-0.0008	0.0021***	0.0021***	0.0021***	0.0021***
부채비율	-0.0530***	-0.0530***	-0.0530***	-0.0529***	-0.0665***	-0.0665***	-0.0665***	-0.0665***
국가지분율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GRDP(로그)	0.0006	0.0006	0.0006	0.0007	0.0012	0.0012	0.0012	0.0012
지역재정자립도	-0.0005	-0.0004	-0.0004	-0.0006	0.0055	0.0058	0.0055	0.0055
상수항	0.0774***	0.0765***	0.0768***	0.0766***	0.0162	0.0175	0.0161	0.0161
지역더미(성더미)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산업더미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연도더미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R ²	0.1613	0.1615	0.1614	0.1613	0.1814	0.1824	0.1814	0.1814
Number of groups	1,878	1,878	1,878	1,878	1,878	1,878	1,878	1,878
Number of obs	8,485	8,485	8,485	8,485	8,485	8,485	8,485	8,485
Breusch-Pagan Test	0.0000	0.0000	0.0000	0.0000	-	-	-	-

주) *p<.10 **p<.05 ***p<.01

제2절 정치적 요인이 민영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1. 분석모형

앞의 연구문제에서 알 수 있듯이 민영기업의 정치관련성은 세금혜택을 받지는 못했지만, 투자혜택은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중국 민영기업은 용자난과 사업기회 부족으로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Luo & Zhen, 2006).

이러한 맥락에서 민영기업의 정치관련성이 투자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민영기업의 성과로 반영이 되는지를 분석해 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연구모형을 구성한다.

본 장에서는 기업의 정치관련성과 지역장에 대한 중앙의 인사행정, 지역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민영기업의 정치관련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또한 국진민퇴 정책과 시진핑반부패 정책이 기업과 지방정부의 유착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해보기 위하여 국진민퇴더미와 시진핑반부패더미를 변수에 추가한다.

종속변수로 민영기업의 성과(ROA)를, 독립변수에 민영기업CEO의 정치관련성과 지역장의 정치불확실성, 낙하산인사, 승진동기를 포함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도 제5장과 6장과 같이 민영기업의 민영화더미를 포함하고자 한다.

이 외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통제변수에 기업의 자산규모, 부채비율, 오너지분율을 포함하고자 한다(Deng, 2011; Yu, 2017). 또한 지역을 나타내는 지역 총생산액과,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성더미(31개)와 연도더미, 산업더미를 연구모형에 포함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3-2의 분석모형에 사용될 변수들과 각각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8 연구문제 3-2의 변수구성과 조작적 정의

구분	변수명	변수의 조작적 정의
종속 변수	ROA	총자산수익율=당기순이익/자산총액
독립 변수	기업정치관련성	기업의 CEO가 현재 정부(인민대표대회, 정치협상회) 보직을 겸했으면 1, 아니면 0
	정치불확실성	전직 시 서기의 재임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시 서기가 교체하면 1, 아니면 0
	지역장낙하산인사	시 서기가 성, 혹은 중앙부터 부임해 왔으면 1, 아니면 0
	지역장승진동기	시 당위서기의 취임 시 나이가 해당 연도 평균 취임 나이보다 어리면 1, 아니면 0
통제 변수	민영화더미	국유기업을 민영화한 민영기업이면 1, 아니면 0
	국진민퇴더미	2008~2010년 = 0; 2011~2017년 = 1
	시진평반부패더미	2008~2012년 = 0; 2013~2017년 = 1
	자산규모(로그)	자본금(로그값)
	부채비율	부채총액/자산총액
	오너지분율	오너 지분율
	GRDP(로그)	해당 시의 지역 내 총생산액(로그값)
	지역재정자립도	해당 시의 재정자립도 = 재정수입/재정지출
	지역더미(성더미)	성기준
	산업더미	산업기준(중국 통계청 산업분류: 18개)
	연도더미	연도기준

연구문제 3-2의 분석모형에 사용될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9 연구문제 3-2의 기술통계량

변수명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ROA	6,546	0.044542	0.047248	-0.16465	0.20631
기업정치관련성	6,546	0.313314	0.463876	0	1
정치불확실성	6,546	0.147113	0.354245	0	1
지역장낙하산인사	6,546	0.336083	0.472404	0	1
지역장승진동기	6,546	0.504425	0.489024	0	1
민영화더미	6,546	0.408117	0.491522	0	1
국진민퇴더미	6,546	0.791523	0.40625	0	1
시진평반부패더미	6,546	0.608806	0.488054	0	1
자산규모(로그)	6,546	21.84791	1.221751	16.93942	27.37651
부채비율	6,546	0.426054	0.175198	0.102802	0.797175
국가지분율	6,546	32.85974	14.51311	2.197	95.95
GRDP(로그)	6,546	8.233371	1.00733	4.189129	10.24632
지역재정자립도	6,546	0.720102	0.223109	0.040045	1.541259

2.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될 자료는 패널데이터여서 이에 대한 적절한 모형에는 합동(pooled)OLS 분석과 패널의 특성을 고려하는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이 있다. 단,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핵심적 독립변수인 기업 CEO 변수는 시간에 따라 잘 변하지 않고, 주요 통제변수인 민영화더미, 산업더미, 지역더미(성)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기에 고정효과모형의 추정은 힘들다. 하여 본 연구에서는 확률효과모형과 합동(pooled)OLS 모형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우선 Breusch-Pagan 의 LM(Lagrangian Multiplier) 검증결과 유의수준이 1%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는데, 이는 합동(pooled)OLS 모형보다 패널 그룹(기업)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확률효과모형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이하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은 확률효과모형 결과에 따르고자 한다.

아래 표와 같이 모형 1 의 분석결과 주요 독립변수인 기업정치관련성은 10%의 유의수준에서 민영기업의 성과(ROA)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민영기업의 경우 정치관련성이 있으면 기업성고가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영기업의 정치관련성이 기업성고에 혜택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민영기업의 경우 정치관련성이 투자혜택에도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민영기업의 성과에 있어, 기업투자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적극적이고, 많은 투자는 좋은 기업성고를 가져다 줌을 시사한다.

독립변수 지역장의 정치불확실성은 부(-)영향을 나타냈는데 유의수준이 관찰되지 않았다. 민영기업의 경우 지역장의 낙하산인사는 1%의 유의수준에서 부(-)의 영향을 나타냈는데 이는 시당위서기가 중앙 혹은 성급(지급시의 경우)에서 부임해 왔을 시 민영기업의 기업성고가 나빠짐을 시사한다. 이러한 원인에도, 앞 장에서 설명했듯이 민영기업은 국유기업과 달리 중앙과의 유착관계가 없어 중앙 혹은 상급에서 부임된 낙하산인사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기업투자가 크게 위축되거나, 기존에 지방정부와 유착관계가 낙하산인사로 인해 단절되는 효과를 보면서 투자위축으로 인한 민영기업의 성과하락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편

지역장승진동가 민영기업의 성과에 부(-)의 영향을 나타냈지만 유의수준이 발견되지 않았다.

통제변수 중 민영화더미는 1%의 유의수준에서 부(-)의 영향을 나타냈는데, 이는 민영화한 민영기업의 경우 순 민영기업에 비해 기업성과가 낮음을 의미한다. 민영기업의 자산규모, 부채비율은 1%의 유의수준에서 오히려 분율은 정(+)의 영향을 나타냈는데 유의수준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 외에도 지역내총생산은 1%의 유의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지역재정자립도는 부(-)의 영향을 나타냈지만 유의수준이 관찰되지 않았다.

모형 2은 유의미한 독립변수에서 국유기업을 민영화한 민영기업과 순 민영기업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모형 2은 모형 1에서 기업정치관련성과 민영화더미의 교차항과, 낙하산인사와 민영화더미 교차항 변수를 포함시켰다. 분석 결과 정치관련성과 민영화더미의 교차항의 경우 부(-)의 영향을 나타냈지만 유의수준이 관찰되지 않았다. 한편 낙하산인사와 민영화더미의 교차항은 정(+)의 영향을 나타냈지만 유의수준이 여전히 관찰되지 않았다.

모형 3은 국진민퇴의 정책이 민영기업 기업정치관련성이 성과에 주는 혜택을 줄여 주는가를 보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모형 3은 모형 1에서 기업정치관련성과 국진민퇴 교차항 변수를 포함시켰다. 분석 결과, 정책효과를 나타내는 기업정치관련성과 국진민퇴 교차항 변수가 10%의 유의수준에서 부(-)의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국진민퇴 정책이 민영기업의 기업정치관련성이 성과에 주는 혜택을 줄여주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모형4은 시진핑반부패 정책이 민영기업 기업정치관련성이 성과에 주는 혜택을 줄여 주는가를 보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모형4은 모형1에서 기업정치관련성과 시진핑반부패 교차항 변수를 포함시켰다. 분석 결과, 정책효과를 나타내는 기업정치관련성과 시진핑반부패 교차항 변수가 5%의 유의수준에서 혜택을 줄이는 부(-)의 효과를 나타냈다.

표 30 연구문제 3-2의 분석 결과

변수 구분	확률효과모형				합동(Pooled) OLS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기업정치관련성	0.0016*	0.0010*	0.0015**	0.0019**	0.0047***	0.0032**	0.0077***	0.0067***
정치불확실성	-0.0016	-0.0016	-0.0016	-0.0016	-0.0018	-0.0018	-0.0018	-0.0018
지역장낙하산인사	-0.0010***	-0.0017***	-0.0010***	-0.0010***	-0.0007***	-0.0024***	-0.0007***	-0.0007***
지역장승진동기	-0.0053	-0.0051	-0.0053	-0.0053	-0.0076	-0.0074	-0.0076	-0.0076
민영화더미	-0.0062***	-0.0079***	-0.0062***	-0.0062***	-0.0046***	-0.0072***	-0.0046***	-0.0046***
정치관련성*민영화		0.0036				0.0039		
낙하산인사*민영화		0.0018				0.0041*		
국진민퇴더미			-0.0060**				-0.0012**	
정치관련성*국진민퇴			-0.0001*				-0.0039**	
시진평반부패더미				-0.0058**				-0.0009**
정치관련성*시반부패				-0.0006**				-0.0036**
자산규모(로그)	-0.0018***	-0.0018***	-0.0018***	-0.0018***	-0.0012**	-0.0012**	-0.0012**	-0.0012**
부채비율	-0.0197***	-0.0198***	-0.0197***	-0.0197***	-0.0373***	-0.0373***	-0.0372***	-0.0372***
오너지분율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GRDP(로그)	0.0035***	0.0035***	0.0035***	0.0035***	0.0047***	0.0048***	0.0047***	0.0047***

지역재정자립도	-0.0064	-0.0064	-0.0064	-0.0063	-0.0068	-0.0068	-0.0067	-0.0068
상수항	0.0762***	0.0766***	0.0761***	0.0759***	0.0039	0.0038	0.0026	0.0031
지역더미(성더미)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산업더미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연도더미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R ²	0.1069	0.1074	0.1070	0.1071	0.1321	0.1328	0.1323	0.1324
Number of groups	1,577	1,577	1,577	1,577	1,577	1,577	1,577	1,577
Number of obs	6,546	6,546	6,546	6,546	6,546	6,546	6,546	6,546
Breusch-Pagan Test	0.0000	0.0000	0.0000	0.0000	-	-	-	-

주) *p<.10 **p<.05 ***p<.01

제3절 소결

본 장에서는 기업의 정치관련성과 시당위서기의 인사행정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분석에 앞서 중국의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이질성과 기업의 정치관련성에 대한 상이한 조작적 정의로 본 장에서는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을 따로 분리해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핵심변수 중심으로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국유기업의 경우 첫째, 정치관련성이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국유기업이 정치관련성을 통해 좋은 성과를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5장과 제6장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유기업의 경우 정치관련성을 통해 세금특혜와 투자특혜를 받고 있었는데, 본 장에서의 결과는 이러한 경로가 국유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지역장의 승진동기가 국유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는데, 이는 지역장의 승진동기가 높을수록 국유기업의 성과가 높아짐을 의미하는 한편 지역장의 승진에 국유기업의 실적평가도 포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2011년 이후 국유기업의 집중·확장정책, 이른바 국진민퇴정책은 국유기업의 정치관련성을 통해 얻은 높은 기업성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앞 제5장과 제6장에서도 국진민퇴정책이 정치관련성을 통해 얻는 국유기업의 세금혜택과 투자혜택을 줄여주지 못했기에 경로적인 차원에서도 설득력을 가지게 되었다.

셋째, 앞 제5장에서 2013년 이후 시진핑 정부의 전례없는 고강도의 반부패 정책이 정치관련성을 통한 국유기업의 세금특혜를 실질적으로 줄여주여지는 효과가 검증되었는데, 본 장에서의 연구결과에서도 시진핑의 반부패 정책이 실질적으로 정치관련성을 통해 얻은 기업의 높은 성과를 줄여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실증적으로 검증되어, 경로적인 차원에서도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

민영기업의 경우 첫째, 정치관련성이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민영기업이 정치관련성을 통해 좋은 성과를 얻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제5장과 제6장의 결과를 바탕으로 민영기업의 경우

정치관련성을 통해 세금특혜와 투자특혜를 받고 있었는데, 본 장에서의 결과는 이러한 경로가 국유기업의 성과까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시당위서기의 낙하산 인사행정은 민영기업의 성과를 떨어뜨리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를 앞 제6장에서의 결과에서 지역장의 낙하산 인사가 민영기업의 투자를 위축할 수 있다는 실증결과와 연계하여 볼 필요가 있다. 즉 민영기업은 낙하산인사의 불확실성으로 투자기회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기업성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 지역장의 정치불확실성과 승진동기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

둘째, 2011년 이후 국진민퇴정책은 정치관련성을 통해 얻은 민영기업의 높은 기업성가를 줄어주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민영기업의 경우 국진민퇴정책으로 정치관련성을 통해 얻은 투자혜택이 줄어들면서, 기업성과 혜택도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2013년 시진핑의 반부패 정책의 경우 민영기업이 정치관련성을 통해 얻은 성과를 줄여주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시진핑의 반부패 정책이 지방정부와 국유기업 사이의 유착관계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민영기업의 유착관계를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제8장 결론

제1절 종합적 결론

본 연구는 중국의 상장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정치관련성과 시당위서기의 복잡한 인사행정이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중국 특유의 국유기업의 집중·확장의 국진민퇴 정책과 시진핑의 반부패 정책이 기업부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해보고자 한다.

중국은 주요 생산요소에 대한 정부의 독점과 까다로운 행정심사로 기업이 정상적인 경쟁으로는 성장이 한계가 있다(Deng, 2009). 특히 중국의 시장경제는 건전하지 않아 재산권에 대한 보호, 사업진출에 대한 제약, 금융권에 대한 정부의 통제 등으로 기업은 융자난과 투자난에 직면하고 있다(Che & Qian, 1998; Cull & Xu, 2004; Le, 2003; Wang & Shi, 2006; Hu, 2006).

기존의 연구에서는 주로 민영기업의 정치관련성이 기업의 세금부담과 융자 등에 미치는 다소의 실증분석이 있으나, 그나 마저 서로 상이한 결론을 얻게 되었다. 이는 중국의 정치권력의 특수성과 복잡성, 그리고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소유구조의 교체, 지역과 지역장(시당위서기), 특히 시당위서기의 인사행정 등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국유기업의 중앙기업더미, 역민영화더미와 민영기업의 민영화더미 변수와, 지급시의 상급인 성급지역에 대한 통제의 유무에 따라 핵심변수에 대한 실증결과가 상이함이 발견되었다.

중국기업과 정부의 유착관계, 기업부패에 대한 실증분석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08 년부터 2017 년까지의 중국의 상장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을 분석대상에 포함시켰고, 기업성과(ROA)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의 세금부담과 투자를 독립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그 경로를 제시하고자 한다.

기업의 정치관련성과 시당위서기의 인사행정이 기업활동에 미친 영향을 <표 30>과 <표 31>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결론을 가져보고자 한다.

제 5 장에서는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이질성과 정치관련성에 대한 상이한 조작적 정의로 기업의 정치관련성과 시당위서기의 인사행정이 기업의 세금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을 따로 실증분석을 실행하였다. 분석결과 국유기업의 정치관련성이 기업의 세금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 주었는데 이는 국유기업이 정치관련성으로 세금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시당위서기의 낙하산 인사행정은 국유기업의 세금부담을 높여주었는데 이는 지역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가 지역의 정경유착으로 받는 국유기업의 세금특혜를 간접적으로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다 주는데 그 의미가 있다. 한편 국유기업 중심의 집중·확장의 국진민퇴 정책은 정치관련성으로 얻은 국유기업의 세금특혜를 줄여주지 못했지만, 시진핑의 반부패 정책은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시진핑의 반부패가 국유기업과 지방정부의 유착관계를 줄여줄 수 있다.

민영기업의 경우 정치관련성이 기업의 세금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 주었는데 이는 민영기업이 정치관련성으로 세금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당위서기의 승진동기는 민영기업의 세금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었는데 이는 승진동기가 높은 시당위서기일수록 민영기업의 세금을 줄여주면서 지역경제에 대한 민영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참여로 지역경제를 끄러 올리려는 유인이 있음을 검증하였다. 한편 국진민퇴와 시진핑의 반부패 정책은 정치관련성으로 얻은 민영기업의 세금특혜를 줄여주지 못했다.

제 6 장에서는 기업의 정치관련성과 시당위서기의 인사행정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을 실행하였다. 본 장에서도 제 5 장과 같이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을 따로 분리해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는데 분석결과 국유기업의 정치관련성이 기업의 투자를 실질적으로 늘여 주었는데 이는 국유기업이 정치관련성으로 투자기회를 더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시당위서기의 긴급교체에 따른 정치불확실성은 국유기업의 투자의 일시적 위축을 초래하였다. 이는 국유기업의 경우 지방정부의 영향을 민영기업보다 더 크게 받아, 지역장의 교체와 불확실성이 있을 시 투자를 기피하거나 관망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국진민퇴와 시진핑의 반부패 정책은 정치관련성으로 얻은 국유기업의 투자혜택을 줄여주지 못했다.

민영기업의 경우 정치관련성이 기업의 투자를 실질적으로 늘려 주었는데 이는 민영기업이 정치관련성으로 투자혜택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중국의 민영기업은 융자난과 투자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정치관련성으로 투자기회를 더 받을 수 있기에 민영기업은 정부와의 유착관계 형성에 더욱 노력할 유인이 생겨 궁극적으로 정경유착의 고착화를 초래한다. 또한 시당위서기의 낙하산 인사행정은 민영기업의 투자 위축을 초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유기업의 경우 복잡한 소유구조로, 성 혹은 중앙 국유기업에 수직계열화가 된 경우가 많아 낙하산 인사행정의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지만, 민영기업의 경우 지역장의 상급교체에 따른 불확실성에 더 취약함을 의미한다. 한편 국진민퇴의 정책은 정치관련성을 통해 얻은 민영기업의 투자혜택을 줄여 주는 효과를 나타냈다. 반면 시진핑의 반부패 정책은 정치관련성으로 얻은 민영기업의 투자혜택을 줄여주지 못했다.

제 7 장에서는 기업의 정치관련성과 시당위서기의 인사행정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장에서도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은 따로 분리해 실증분석을 실행하였는데 분석결과 국유기업의 정치관련성이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국유기업이 정치관련성을 통해 좋은 성과를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 5 장과 제 6 장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유기업의 경우 정치관련성을 통해 세금특혜와 투자특혜를 받고 있었는데, 본 장에서의 결과는 이러한 경로가 국유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시당위서기의 승진동기가 국유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는데, 이는 지역장의 승진동기가 높을수록 국유기업의 성과가 높아짐을 의미하는 한편 지역장의 승진에 국유기업의 실적평가도 포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국진민퇴의 정책은 정치관련성으로 얻은 국유기업의 높은 성과를 줄여 주지 못했지만 시진핑의 반부패 정책은 이를 축소하는 효과가 검증되었다.

민영기업의 경우 정치관련성이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민영기업이 정치관련성을 통해 좋은 성과를 얻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제 5 장과 제 6 장의 결과를 바탕으로 민영기업의 경우 정치관련성을 통해 세금특혜와 투자특혜를 받고 있었는데, 본 장에서의 결과는 이러한 경로가 국유기업의 성과까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시당위서기의 낙하산 인사행정은

민영기업의 성과를 떨어뜨리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를 낙하산 인사가 민영기업의 투자를 위축할 수 있다는 제 6 장의 실증분석 결과와 연계하면 경로 접근이 가능해 진다. 한편 국진민퇴 정책과 시진핑의 반부패 정책은 정치관련성을 통한 민영기업의 높은 성과를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를 민영기업과 지방정부 사이의 유착관계를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로 해석이 가능하다.

표 31 국유기업의 종합적 결론⁴⁹

국유기업	세금부담				기업투자				기업성과			
	M1	M2	M3	M4	M1	M2	M3	M4	M1	M2	M3	M4
기업정치관련성	-0.0018**	-0.0016	-0.0028**	-0.0026**	0.0589***	0.0467*	0.0222	0.0640**	0.0022*	0.0016	0.0042*	0.0043**
지역정치불확실성	0.0002	0.0002	0.0002	0.0002	-0.0256*	-0.0262*	-0.0253*	-0.0256*	-0.0012	-0.0012	-0.0013	-0.0013
지역장낙하산인사	0.0015***	0.0016**	0.0015***	0.0015***	-0.0034	-0.0033	-0.0032	-0.0034	0.0016	0.0016	0.0016	0.0016
지역장승진동기	0.0014	0.0014	0.0015	0.0014	0.0169	0.0167	0.0173	0.017	0.0034**	0.0045**	0.0034**	0.0034**
정치관련성*역민영화		-0.0006				0.0308				0.0015		
정치불확실성*역민영화						0.0017						
낙하산인사*역민영화		-0.0004										
승진동기*역민영화										-0.0031		
국진민퇴더미			0.0081***				-0.0537*				-0.0069***	
정치관련성*국진민퇴			0.0014				0.0491				-0.0027	
시진평반부패더미				0.0082***				-0.0469				- 0.0069***
정치관련성*시진평				0.0016**				-0.0103				-0.0044**

주) *p<.10 **p<.05 ***p<.01

49) 해당 표는 통제변수를 모두 포함한 제5장, 제6장, 제7장의 분석결과에서 핵심변수만 따로 나열해 편집함

표 32 민영기업의 종합적 결론⁵⁰

민영기업	세금부담				기업투자				기업성과			
	M1	M2	M3	M4	M1	M2	M3	M4	M1	M2	M3	M4
기업정치관련성	-0.0008*	-0.0014**	-0.0005	-0.0005	0.0129*	0.0169*	0.0259**	0.0210**	0.0016*	0.0010*	0.0015**	0.0019**
지역정치불확실성	-0.0003	-0.0003	-0.0003	-0.0003	0.0115	0.0125	0.0115	0.0116	-0.0016	-0.0016	-0.0016	-0.0016
지역장낙하산인사	0.0007	0.0007	0.0007	0.0007	-0.0087*	-0.0295***	-0.0089*	-0.0089*	-0.0010***	-0.0017***	-0.0010***	-0.0010***
지역장승진동기	-0.0011***	-0.0011***	-0.0011***	-0.0011***	0.0142	0.0162	0.0141	0.014	-0.0053	-0.0051	-0.0053	-0.0053
정치관련성*민영화		0.0014				-0.0101				0.0036		
낙하산인사*민영화						0.0480***				0.0018		
승진동기*민영화		-0.0014										
국진민퇴더미			0.0028***				-0.0414*				-0.0060**	
정치관련성*국진민퇴			-0.0004				-0.017**				-0.0001*	
시킨평반부패더미				0.0028***				-0.0429**				-0.0058**
정치관련성*시킨평				-0.0005				-0.0145				-0.0006**

주) *p<.10 **p<.05 ***p<.01

50) 해당 표는 통제변수를 모두 포함한 제5장, 제6장, 제7장의 분석결과에서 핵심변수만 따로 나열해 편집함

제2절 연구의 시사점

1. 이론적 시사점

본 연구는 이론적 시사점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중국기업의 정치관련성이 기업의 세금부담, 투자,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독립적으로 분석하여, 중국 지방정부와 기업 간의 정경유착의 심각성과 기업특혜에 대한 경로를 실증적으로 증명하였다. 특히 기존의 연구에서는 기업의 정치관련성이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친 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으나, 그 경로에 대해서는 정확히 설명을 못했다(Deng, 2011; Yu, 2017). 본 연구에서는 정치관련성이 기업성과를 높여주는 경로로, 세금특혜와 투자특혜에 대한 영향을 독립적으로 실증분석을 실행하였는데, 이는 연구의 내성생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로 이론적 의미가 있다.

둘째, 기존의 연구에는 주로 민영기업의 정치관련성이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국유기업의 정치관련성이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연구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국유기업의 복잡한 소유구조에 대한 자료 획득의 어려움으로 연구가 부족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상장 국유기업의 중앙기업 소속여부와 역민영화더미를 포함시켜, 연구의 신뢰성을 높였다. 이는 향후 중국의 역민영화 정책, 즉 민영기업의 국유화 정책에 대한 연구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데 그 의미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중국기업과 지방정부의 유착관계를 기업차원인 CEO의 정치관련성 외에 지역장(시당위서기) 요인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시당위서기의 인사행정 요인뿐만 아니라 성서기 혹은 성급정부 차원의 특이성과 불확실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성의 더미변수를 모형에 포함시켰다.

넷째, 정부와 기업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의 중국모델에는 점진적인 시장화 개혁, 국유기업의 민영화 등이 있었다. 본 연구는 정경유착에 있어 국유기업의 집중·확장 정책인 국진민퇴 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해, 역사장화(역민영화)의 새로운 중국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시진핑정부의 반부패 정책 효과가 실증적으로 검증되면서 과거와 다른 중국모델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2.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정책적 시사점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중국의 정경유착의 심각성이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정부주도적이면서, 점진적 개혁을 바탕으로 이루어 졌다. 이로 인해 중국의 기업은 비 시장경제적인 요인으로 기업의 성과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이는 정부와 기업의 부패를 초래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에 의하면 기업의 부패가 기업성장을 높여주고 있었는데, 이는 중국의 경제성장과 부패가 동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가 부패를 줄이고자 정책을 실행하면 기업성장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는 부패축소와 경제성장에 대한 중국정부의 결단을 필요로 하고 있다.

둘째, 정치에 대한 중국기업의 취약성이다. 시당위서기의 빈번한 교체, 낙하산 인사, 승진동기는 중국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세금부담, 기업투자,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당위서기의 빈번한 교체에 따른 정치불확실성으로 국유기업의 투자가 크게 위축되고 있고, 시당위서기의 낙하산 인사는 민영기업의 투자와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민영기업은 융자와 투자에 있어 국유기업 보다 훨씬 열세에 처해 있는데, 중앙정부의 이러한 인사행정은 중국 민영기업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이를 정치에 대한 중국기업의 취약성으로 의미한다.

셋째, 국유기업의 집중·확장 정책에 따른 경제력 집중문제이다. 2003년 '국자위'의 설립을 시작으로 중앙정부는 핵심산업에 대한 국유기업의 절대적 통제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유기업의 인수와 합병을 완화하는 법안을 여러 차례 개정 하였다. 이로 인해 국유기업이 민영기업과 경쟁성 산업에까지 확대되면서 국유기업의 경제력 집중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국유기업의 경제력 집중으로, 감독과 규제를 담당하는 국가와 이를 받는 경제행위자의 역할 구분이 불 분명해진다. 이는 국유기업에 편향되는 산업정책을 형성하게 되어 공정한 시장경쟁을 심각히 파괴할 수 있다.

넷째, 국진민퇴 정책과 시진핑반부패 정책 효과의 지속 가능성 문제이다. 정치와 경제의 민주화 입장에서 보면, '국진민퇴' 전략과 중앙집권의 강화를 긍정적으로 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중국 정치의 특수성과 정경유착이 고착화된 현 시점에서 이러한 역시장화와 중앙집권의 국가전략이 일시적으로 효과를 보이고 있다. 물론 이러한 역시장화의 중국모델이 장기적으로 존재하거나, 시진핑의 장기집권의 도구로 악용될 시, 그 효과는 무 의미할 것이다.

한편 역시장화와 중앙집권의 중국모델로 정치적이 리스크가 더 커질 우려도 있다. 중앙정부의 강력한 반부패 정책은 중국의 정치적 문제점을 일부 지방정부와 정부관료의 개개인의 부패문제로 다루어, 그것을 엄벌하는 것으로 중국공산당의 정당성이 부각되거나,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는 시진핑의 장기집권으로 이어가면서 정치개혁의 가능성이 더욱 불 분명해 졌기에, 정치적 요인이 향후 성장에 있어서의 가장 큰 변수로 작동할 수 있다.

제3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기업의 정치관련성과 시당위서기의 인사행정이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중국의 정경유착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데 그 의미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기업 CEO의 정치관련성에 대한 조작작 정의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자료의 한계로 국유기업의 정치관련성을 국유기업의 CEO가 현재 정부, 인민대표대회, 정치협상대회, 군대에 보직을 겸한 것으로, 민영기업의 정치관련성은 과거의 보직 여부로 조작작 정의를 하였다. 그러나 정부, 인민대표대회, 정치협상대회, 군대의 보직은 상이한 정치관련성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정부보직에 대한 직급을 연구모형에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둘째, 기업성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로 기업의 세금부담과 투자를 분석모형에 포함시켰다. 이는 기업의 정치관련성이 기업성가에 혜택을 주는 경로로는 설득이 가능하였으나, 시당위서기의 인사행정 중 승진동기에 대한 경로적인 해석이 어려웠다. 특히 지역장의 승진동기가 국유기업의 세금부담과 투자에 특혜를 주지 않았지만 국유기업의 성과가 좋아지는 것으로 검증되어, 이에 대한 다른 경로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추후의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셋째, 국진민퇴 정책이 지방정부와 기업의 유착관계에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국진민퇴 정책의 핵심 효과인 민영기업의 국유화(역민영화)의 성과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은 다루지 못했다. 어떻 의미에서 이에 대한 검증이 새로운 중국모델론에 대한 평가와 정립에 더 큰 의미를 부과할 수 있어, 이를 향후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참고문헌

- Adhikari, A., Derashid, C., & Zhang, H. (2006). Public policy, political connections, and effective tax rates: Longitudinal evidence from Malaysia.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25(5), 574-595.
- Allen, F., Qian, J., & Qian, M. (2005). Law, finance, and economic growth in China.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77(1), 57-116.
- Bakan, J. (2004). BOOK EXCERPT The Corporation: The Pathological Pursuit of Profit and Power How companies extract money from young children, and more. *DOLLARS AND SENSE*, 21-23.
- Carroll, A. B. (1991). The pyramid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oward the moral management of organizational stakeholders. *Business horizons*, 34(4), 39-48.
- Charumilind, C., Kali, R., & Wiwattanakantang, Y. (2006). Connected lending: Thailand before the financial crisis. *The Journal of Business*, 79(1), 181-218.
- Che, J., & Qian, Y. (1998). Institutional environment, community government, and corporate governance: Understanding China's township-village enterprises. *Journal of Law, Economics, & Organization*, 1-23.
- Chen, S. S., & Ho, K. W. (2000). Corporate diversification, ownership structure, and firm value: The Singapore evidence. *International Review of Financial Analysis*, 9(3), 315-326.
- Claessens, S., Feijen, E., & Laeven, L. (2008). Political connections and preferential access to finance: The role of campaign contribution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88(3), 554-580.
- Erusalimsky, A., Gray, R., & Spence, C. (2006). Towards a more systematic study of standalone corporate social and environmental: An exploratory pilot study of UK reporting. *Social and Environmental Accountability Journal*, 26(1), 12-19.

- Faccio, M. (2006). Politically connected firms. *American economic review*, 96(1), 369-386.
- Faccio, M. (2007). The characteristics of politically connected firms.
- Fair, R. C. (1978). The effect of economic events on votes for president.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159-173.
- Fan, J. P., Rui, O. M., & Zhao, M. (2008). Public governance and corporate finance: Evidence from corruption cases.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36(3), 343-364.
- Fisman, R., & Svensson, J. (2007). Are corruption and taxation really harmful to growth? Firm level evidence.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83(1), 63-75.
- Gallagher, M. E. (2002). "Reform and openness": why China's economic reforms have delayed democracy. *World Politics*, 54(3), 338-372.
- Gupta, S., & Newberry, K. (1997). Determinants of the variability in corporate effective tax rates: Evidence from longitudinal data.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16(1), 1-34.
- Hoskisson, R. E., & Hitt, M. A. (1990). Antecedents and performance outcomes of diversification: A review and critique of theoretical perspectives. *Journal of management*, 16(2), 461-509.
- Jin, H., Qian, Y., & Weingast, B. R. (2005). Regional decentralization and fiscal incentives: Federalism, Chinese style.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9(9-10), 1719-1742.
- Jones, B. F., & Olken, B. A. (2005). Do leaders matter? National leadership and growth since World War II.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0(3), 835-864.
- Kennedy, S. (2010). The myth of the Beijing Consensus.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19(65), 461-477.
- Khanna, T., & Palepu, K. (1997). Why focused strategies may be wrong for emerging markets. *Harvard business review*, 75(4), 41-43.

- Khanna, T., & Palepu, K. (2000). The future of business groups in emerging markets: Long-run evidence from Chil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3(3), 268-285.
- Khwaja, A. I., & Mian, A. (2005). Do lenders favor politically connected firms? Rent provision in an emerging financial market.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0(4), 1371-1411.
- Kramer, G. H. (1971). Short-term fluctuations in US voting behavior, 1896–1964.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5(1), 131-143.
- Lenway, S. A., & Rehbein, K. (1991). Leaders, followers, and free riders: An empirical test of variation in corporate political involvement.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4(4), 893-905.
- Li, H., & Zhang, Y. (2007). The role of managers' political networking and functional experience in new venture performance: Evidence from China's transition economy.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8(8), 791-804.
- Montgomery, C. A. (1994). Corporate Diversifica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8(3), 163-178.
- Peng, M. W., & Luo, Y. (2000). Managerial ties and firm performance in a transition economy: The nature of a micro-macro link.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3(3), 486-501.
- Su, J., & He, J. (2010). Does giving lead to getting? Evidence from Chinese private enterprises. *Journal of business ethics*, 93(1), 73-90.
- Tsai, W. H., & Kou, C. W. (2015). The Party's disciples: CCP Reserve Cadres and the perpetuation of a resilient authoritarian regime. *The China Quarterly*, 221, 1-20.
- Zhang, T., & Zou, H. F. (1998). Fiscal decentralization, public spending, and economic growth in China. *Journal of public economics*, 67(2), 221-240.
- Zhang, W. W. (2012). *The China wave: Rise of a civilizational state*. World Scientific.
- Zhao, S. (2010). The China Model: can it replace the Western model of modernization?.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19(65), 419-436.

- 艾琳. (2017). "强区放权": 分权与集权, 放权与授权的选择. 特区实践与理论, (2017 年 03), 59-61.
- 薄贵利. (1999). 中央与地方权限划分的理论误区. 政治学研究, (2), 23-29.
- 曹春方, 马连福, & 沈小秀. (2014). 财政压力, 晋升压力, 官员任期与地方国企过度投资. 经济学 (季刊), 4, 1415-1436.
- 陈国阶. (1997). 我国东中西部发展差异原因分析. 地理科学, 17(1), 1-7.
- 陈信元, 陈冬华, 万华林, & 梁上坤. (2009). 地区差异, 薪酬管制与高管腐败. 管理世界, (11), 130-143.
- 陈艳艳, & 罗党论. (2012). 地方官员更替与企业投资. 经济研究, 2, 18-30.
- 邓建平 & 曾勇. (2009). 政治关联能改善民营企业的经营绩效吗. 中国工业经济, 2(98), 108.
- 丁从明, 刘明, & 廖艺洁. (2015). 官员更替与交通基础设施投资——来自中国省级官员数据的证据. 财经研究, 41(4), 90-99.
- 冯芸, & 吴冲锋. (2013). 中国官员晋升中的经济因素重要吗?. 管理科学学报, 16(11), 55-68.
- 高顺成. (2011). 中部六省对沿海纺织产业转移承接能力的拟熵权分析. 纺织学报, 32(4), 138-145.
- 葛扬. (2015). 市场机制作用下国企改革, 民企转型与混合所有制经济的发展. 经济纵横, (10), 46-50.
- 郭广珍, & 彭坤. (2011). 地方官员行为与经济发展: 一个分析框架. 当代经济科学, (2), 75-80.
- 郭金龙, & 王宏伟. (2003). 中国区域间资本流动与区域经济差距研究. 管理世界, 7(1).
- 郭平, & 林晓飞. (2018). 地方官员特征与民生财政支出——来自中国省长

- 省委书记的证据. 地方财政研究, (3), 70-77.
- 洪源, 张玉灶, 王群群. (2018). 财政压力, 转移支付与地方政府财务风险: 基于央地财政关系的视觉.
- 胡一帆, 宋敏, & 郑红亮. (2006). 所有制结构改革对中国企业绩效的影响. 中国社会科学, (4), 50-64.
- 黄速建. (2014). 中国国有企业混合所有制改革研究. 经济管理, (7), 1-10.
- 江洪. 中部地区承接产业转移的现状与对策[J]. 中国经贸导刊, 2009, 18(07).
- 江依妮 & 易雯. (2017). 区域差异, 地方官员特征与教育支出行为. 财税与公共管理, (6), 58-66.
- 金圣程, 董逸夫, & 吴顺梦. (2018). 金融创新视野下中小企业融资难的解决途径探究. 中国市场, (23), 99.
- 孔卫拿. (2015). 财政分权, 政治集权与地方政府的财政支出结构——基于1997~2009年省际面板数据的分析. 行政科学论坛, 2(1), 19-35.
- 雷光勇, 刘莱, & 王文忠. (2017). 主政官员更替, 不确定性与外资利用. 经济与管理研究, 38(3), 24-35.
- 李捷, & 余东华. (2016). 官员更替频率, 经济增长与工业产能利用率——以中国地方省级官员为例. 软科学, 30(5), 31-34.
- 李文海. (2007). 我国企业集团兼并重组中的政府行为研究. 统计研究, 24(6), 3-8.
- 李锡炎. (2018). 党的领导力的新时代使命. 中共四川省委党校学报, (1), 25-29.
- 李杨, & 王中兴. (2017). 地方官员任期变化的经济影响与作用机制——基于地市级面板数据的实证研究. 经济问题, (6), 20-25.
- 林尚立. (2007). 制度整合发展: 中国共产党建设的使命与战略. 毛泽东邓小平理论研究, 4(3).
- 刘国亮. (2002). 政府公共投资与经济增长. 改革, (4), 80-85.

- 刘骏, & 刘峰. (2014). 财政集权, 政府控制与企业税负. 会计研究, 1, 21-27.
- 刘求实, & 王名. (2009). 改革开放以来我国民间组织的发展及其社会基础. 公共行政评论, 3, 150-170.
- 刘群. (2005). 我国中小企业融资难之现状与对策分析. 金融纵横, (5), 43-46.
- 刘延东. (2006). 历史必然性 • 伟大独创性 • 巨大优越性——论中国共产党领导的多党合作和政治协商制度. 求是, 13, 13-16.
- 罗必良. (2010). 分税制, 财政压力与政府 “土地财政” 偏好. 学术研究, (10), 27-35.
- 罗冲. (2013). 打破银行垄断对我国金融业的短期和长期的影响. 时代金融, 21, 130.
- 吕劲松. (2015). 关于中小企业融资难, 融资贵问题的思考. 金融研究, (11), 115-123.
- 吕凯波, & 何秋仙. (2016). 分权抑或集权: 省直管县改革对省以下政府间财政关系的影响研究. 现代财经: 天津财经学院学报, (10), 61-73.
- 庞凤喜, & 潘孝珍. (2012). 财政分权与地方政府社会保障支出——基于省级面板数据的分析. 财贸经济, 2, 29-35.
- 宋丽智. (2011). 我国固定资产投资与经济增长关系再检验: 1980-2010 年. 宏观经济研究, (11), 17-21.
- 孙秀林, & 周飞舟. (2013). 土地财政与分税制: 一个实证解释 Land Finance and the Tax-Sharing System: An Empirical Explanation. 中国社会科学, 4, 41-60.
- 汤吉军. (2015). 沉淀投资, 资产重组与企业所有权配置——兼论大型国企为什么不能简单私有化. 吉林大学社会科学学报, 2, 007.
- 滕海峰. (2013). 镇域经济内涵与发展思路. 甘肃科技, 29(18), 6-8.
- 王国兵. (2007). 国有企业内部人控制与国有资产流失: 一个合谋的视角. 江汉论坛, 2007(4), 35-38.

- 王文剑, & 覃成林. (2008). 地方政府行为与财政分权增长效应的地区性差异——基于经验分析的判断, 假说及检验. 管理世界, 1, 9-21.
- 王贤彬, 张莉, & 徐现祥. (2013). 什么决定了地方财政的支出偏向——基于地方官员的视角. 经济社会体制比较, 6, 157-180.
- 王小鲁, & 樊纲. (1994). 中国地区差距的变动趋势和影响因素 3. 西部, 9112(0186), 9163.
- 王小鲁, & 樊纲. (2005). 中国收入差距的走势和影响因素分析. 经济研究, 10, 24-36.
- 王寅. (2013). 中部六省装备制造业产业承接力的评价研究 [D] (Doctoral dissertation, 合肥工业大学).
- 王雍君. (2006). 中国的财政均等化与转移支付体制改革. 中央财经大学学报, (09).
- 肖余春, & 孙兰. (2004). 基于胜任力的党政领导干部情景判断测验维度的理论探讨. 企业经济, (8), 5-7.
- 邢乐成, & 梁永贤. (2013). 中小企业融资难的困境与出路. 济南大学学报: 社会科学版, (2), 1-7.
- 徐现祥 & 刘勇. (2018). 中国任命地方官员的模式, 经济学报, 5(4), 14-44.
- 徐现祥, & 王贤彬. (2010). 任命制下的官员经济增长行为. 经济学 (季刊), 9(4), 1447-1466.
- 徐妍. (2014). 财政分权与地方政府社会保障支出——基于 2003—2010 年省级面板数据. 衡阳师范学院学报, 2, 46-51.
- 徐业坤, 钱先航, & 李维安. (2013). 政治不确定性, 政治关联与民营企业投资——来自市委书记更替的证据. 管理世界, (5), 116-130.
- 杨斌. (2009). 2000—2006 年中国区域生态效率研究——基于 DEA 方法的实证分析. 经济地理, 29(7), 1197-1202.
- 杨记军, 逯东, & 杨丹. (2010). 国有企业的政府控制权转让研究. 经济研究, 2, 69-82.

- 杨岚凯, & 严俊. (2016). 民主集中制与中国共产党的组织形态: 基于生态适应性的分析. 社会主义研究, (2), 80-85.
- 杨卫东. (2013). 国企改革与“再国有化”反思. 华中师范大学学报: 人文社会科学版, (1), 23-37.
- 杨振. (2013). 激励扭曲视角下的产能过剩形成机制及其治理研究. 经济学家, 10(10), 48-54.
- 姚耀军, & 董钢锋. (2014). 中小银行发展与中小企业融资约束——新结构经济学最优金融结构理论视角下的经验研究. 财经研究, 40(1), 105-115.
- 余官胜. (2010). 贸易开放和政府财政支出规模——基于省际动态面板数据的实证研究. 东北大学学报 (社会科学版), 12(1), 19-22.
- 余靖雯, 肖洁, & 龚六堂. (2015). 政治周期与地方政府土地出让行为. 经济研究, 2, 88-102.
- 翟晓叶. (2014). 金融支持中部地区承接产业转移的理论及实证研究 (Doctoral dissertation, 湘潭大学).
- 张君良. (2006). 构建“分合有度”的新型党政关系. 科学社会主义, (4), 53-56.
- 张仁德, & 韩晶. (2003). 国有经济腐败的委托代理因素分析. 当代经济科学, (2), 28-32.
- 张文革. (2008). 当前国有企业腐败现象存在的原因及对策. 现代商贸工业, 20(7), 65-66.
- 张晏 & 龚六堂. (2005). 分税制改革、财政分权与中国经济增长. 经济学 (季刊), 5(1), 75-108.
- 张玉鹏, & 王茜. (2016). 政策不确定性的非线性宏观经济效应及其影响机制研究. 财贸经济, 4, 118-135.
- 郑小三, & 李小克. (2012). 产业结构, 固定资产投资与城乡收入差距——基于中部地区省级面板数据的实证分析. 经济与管理, 26(7), 71-79.

- 周飞舟. (2010). 大兴土木: 土地财政与地方政府行为. 经济社会体制比较, 3, 77-89.
- 宗寒. (2010). 正确认识国有经济的地位和作用——与袁志刚, 邵挺商榷. 学术月刊, (8), 74-82.
- 문익준, 이장규, 최필수, 나수엽, & 이효진. (2015).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KIEP] 정책연구 브리핑, 14(14).
- 이정남. (2009). 최근 중국의 민주화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당내 민주화론을 중심으로. 현대중국연구, 10(2), 41-71.
- 이정남. (2013). 시진핑 (习近平) 지도체제의 등장과 중국의 정치개혁과 정치변화 전망. 아세아연구, 56(1), 77-118.
- 이정남. (2017). 중국이 구상하는 세계질서 상 (像): 중국내 국제정치학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57(4), 121-161.
- 차경자, 최성일, & 조준현. (2007). 중국 국유기업에 대한 다국적 M&A 제도 연구. 국제지역연구, 11(1), 319-348.
- 최필수, & 노성호. (2017).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경제적 특징: 금융, 국유기업, 토지. 현대중국연구, 18(4), 141-177.

부록 I 중국의 성(省)과 지급시(地级市)

소속성	개수	지급시(자치구, 지구, 맹 포함)
河北 (허베이)	11	石家庄(스자좡) 唐山(탕산) 秦皇岛(친황도우) 邯郸(한단) 邢台(싱타이) 保定(보우딩) 张家口(장자우커우) 承德(청더) 沧州(창저우) 廊坊(랑파양) 衡水(형쉬이)
山西 (싼시)	11	太原(타이웬) 大同(다통) 阳泉(양첸) 长治(창쯔) 晋城(진청) 朔州(서우저우) 忻州(신저우) 吕梁(뤄량) 晋中(진중) 临汾(린펀) 运城(윈청)
内蒙古 (네이멍구)	9	呼和浩特(후허호우터) 包头(보우터우) 乌海(우하이) 赤峰(츠펑) 呼伦贝尔(후룬베이얼) 通辽(통료우) 乌兰察布(우란차부) 鄂尔多斯(어얼뒤스)
辽宁 (랴오닝)	14	沈阳(선양) 大连(다롄) 鞍山(안산) 抚顺(푸순) 本溪(번시) 丹东(단둥) 锦州(진저우) 营口(잉커우) 阜新(푸신) 辽阳(료우양) 盘锦(판진) 铁岭(테링) 朝阳(초우양) 葫芦岛(후루도우)
吉林 (지린)	8	长春(창춘) 吉林(지린) 四平(스펑) 辽源(료우웬) 通化(통화) 白山(바이산) 白城(바이청) 松原(송웬)
黑龙江 (헤이룽장)	12	哈尔滨(하얼빈) 齐齐哈尔(치치하얼) 牡丹江(무단장) 黑河(허이허) 大庆(다칭) 伊春(이춘) 鸡西(지시) 鹤岗(허강) 双鸭山(쌍야산) 七台河(차타이허) 绥化(쉐이이화) 佳木斯(자무스)
江苏 (장쑤)	13	南京(난징) 无锡(우시) 徐州(취저우) 常州(창저우) 苏州(수저우) 南通(난통) 连云港(랜윈강) 淮安(하이안) 盐城(옌청) 扬州(양저우) 镇江(전장) 泰州(친저우) 宿迁(수첸)
浙江 (저장)	11	杭州(항저우) 宁波(닝머우) 温州(윈저우) 绍兴(소우저우) 湖州(후저우) 嘉兴(자싱) 金华(진하) 衢州(취저우) 台州(타이저우) 丽水(리수이) 舟山(저우산)
安徽 (안휘이)	16	合肥(허페이) 芜湖(우후) 蚌埠(병부) 淮南(화이난) 马鞍山(마안산) 淮北(화이베이) 铜陵(통링) 安庆(안칭) 黄山(황산) 阜阳(푸양) 宿州(수저우) 滁州(추저우) 六安(류안) 宣城(이청) 池州(츠저우) 亳州(뱌저우)

福建 (푸젠)	9	福州(푸저우) 莆田(푸텐) 泉州(첸저우) 厦门(샤먼) 漳州(간저우) 龙岩(룽옌) 三明(산밍) 南平(난핑) 宁德(닝더)
江西 (장시)	11	南昌(난창) 赣州(간저우) 宜春(이춘) 吉安(지안) 上饶(상나우) 抚州(푸저우) 九江(쥬으장) 景德镇(징더전) 萍乡(핑샹) 新余(신위) 鹰潭(잉탄)
山东 (산둥)	16	济南(지난) 青岛(칭다우) 淄博(즈뵈으) 枣庄(조우좡) 东营(둥잉) 烟台(옌타이) 潍坊(웨이팡) 济宁(지닝) 泰安(친안) 威海(웨이하이) 日照(르조우) 滨州(빈저우) 德州(더저우) 聊城(료우청) 临沂(린이) 菏泽(허저)
河南 (허난)	17	郑州(징저우) 开封(카이펑) 洛阳(뤄양) 平顶山(핑딩산) 安阳(안양) 鹤壁(허비) 新乡(신샹) 焦作(조우궈) 濮阳(푸양) 许昌(쉬창) 漯河(뤄허) 三门峡(산먼샤) 商丘(샹쥬으) 周口(저우커우) 驻马店(주마덴) 南阳(난양) 信阳(신양)
湖北 (후베이)	12	武汉(우한) 黄石(황스) 十堰(스옌) 荆州(징저우) 宜昌(이창) 襄阳(샹양) 鄂州(어저우) 荆门(징먼) 黄冈(황강) 孝感(쇼우간) 咸宁(샨닝) 随州(쉬이저우)
湖南 (후난)	13	长沙(창사) 株洲(주저우) 湘潭(샹탄) 衡阳(형양) 邵阳(소우양) 岳阳(외양) 张家界(장자제) 益阳(이양) 常德(청더) 娄底(러우디) 郴州(첸저우) 永州(용저우) 怀化(화이화)
广东 (광둥)	21	广州(광저우) 深圳(선젠) 珠海(주하이) 汕头(산터우) 佛山(퓌산) 韶关(소우관) 湛江(전장) 肇庆(조우칭) 江门(장먼) 茂名(모우밍) 惠州(훤이저우) 梅州(메이저우) 汕尾(산위이) 河源(허옌) 阳江(양장) 清远(칭웬) 东莞(둥관) 中山(중산) 潮州(초우저우) 揭阳(제양) 云浮(윈푸)
广西 (광시)	14	南宁(난닝) 柳州(류저우) 桂林(궈이린) 梧州(우저우) 北海(베이하이) 崇左(충궈) 来宾(라이빈) 贺州(허저우) 玉林(위린) 百色(바이썬) 河池(허츠) 钦州(친저우) 防城港(팡청강) 贵港(구이강)
海南 (하이난)	4	海口(하이커우) 三亚(산야) 三沙(산사) 儋州(단저우)

四川 (스촨)	18	成都(청두) 绵阳(몐양) 自贡(즈궁) 攀枝花(판즈화) 泸州(루저우) 德阳(더양) 广元(광웬) 遂宁(쑤이닝) 内江(네이장) 乐山(러산) 资阳(즈양) 宜宾(이빈) 南充(난충) 达州(다저우) 广安(광안) 巴中(바중) 眉山(메이산)
贵州 (궈이저우)	6	贵阳(궈이양) 六盘水(류판쑤이) 遵义(준이) 铜仁(통런) 毕节(비제) 安顺(안순)
云南 (윈난)	8	昆明(쿤밍) 昭通(샤우통) 曲靖(취징) 玉溪(위시) 普洱(푸얼) 保山(보우산) 丽江(리장) 临沧(린창)
西藏 (시장)	6	拉萨(라사) 日喀则(르카저) 昌都(청두) 林芝(린즈) 山南(산난) 那曲(나취)
陕西 (산시)	10	西安(시안) 铜川(통촨) 宝鸡(바우지) 咸阳(샨양) 延安(앵안) 渭南(웨이난) 汉中(한중) 安康(안강) 商洛(상뤄) 榆林(위린)
甘肃 (간수)	12	兰州(란저우) 嘉峪关(자링관) 金昌(진창) 白银(바이인) 天水(톈쑤이) 酒泉(쥬첸) 张掖(장예) 武威(우웨이) 定西(딩시) 陇南(룽난) 平凉(핑량) 庆阳(칭양)
青海 (칭하이)	2	西宁(시닝) 海东(하이둥)
宁夏 (닝샤)	5	银川(인촨) 石嘴山(스좡이산) 吴忠(우중) 固原(구웬) 中卫(중위이)
新疆 (신장)	4	乌鲁木齐(우루무치) 克拉玛依(커라마이) 吐鲁番(투루판) 哈密(하미)

부록 II 국자위 소속 공사의 상장 중앙기업

호	국자위 소속 중앙기업	상장한 중앙기업	수
1	中国核工业集团	中核科技 中国核电	2
2	中国核工业建设集团公司	中国核建	1
3	中国航天科技集团公司	中国卫星 航天机电 航天动力 航天电子 四维图新 乐凯胶片 航天工程 康拓红外	8
4	中国航天科工集团公司	航天信息 航天通信 航天晨光 航天长峰 贵航股份 航天发展 航天科技	7
5	中国航空工业集团公司	飞亚达 A 中航地产 深天马 A 中航飞机 中航电机 中航三鑫 中航光电 成飞集成 天虹商场 中航电测 中直股份 洪都航空 中航电子 贵航股份 中航资本 中航黑豹 中航重机 中航高科 保胜科技	19
6	中国船舶工业集团公司	中船防务 中国船舶 中船科技	3
7	中国船舶重工集团公司	中国重工 中国动力 中电广通 乐普医疗	4
8	中国兵器工业集团	花锦股份 北方国际 北化股份 长春一东 光电股份 北方股份 北方导航 凌云股份 晋西车轴 北方创业 中兵红箭	11
9	中国兵器装备集团公司	长安汽车 保变电气 江铃汽车 中国嘉陵	4
10	中国电子科技集团公司	国睿科技 杰赛科技 太极集团 海康威视 卫士通 思创电子 华东电脑 凤凰光学	8
11	中国航空发动机集团有限公司	航发动力 航发控制 航发科技	3
12	中国石油天然气集团公司	中国石油 石油济柴 大庆华科	3
13	中国石油化工集团公司	中国石化 石化油服 上海石化 四川美丰 泰山石油 石化机械	6
14	中国海洋石油总公司	中海油服 海油工程 山东海化	3
15	国家电网公司	平高电气 国电南自 许继电气 国电南瑞 置信电气 陪陵电力	6
16	中国南方电网有限责任公司	文山电力	1
17	中国华能集团公司	华能国际 内蒙华电 新能泰山	3
18	中国大唐集团公司	大唐发电 华银电力 桂冠电力	3

19	中国华电集团公司	华电国际 华电能源 国电南自 黔源电力 金山股份 华电重工	6
20	国家电力投资集团公司	吉电股份 东方能源 露天煤业 上海电力 中电远达	5
21	中国长江三峡集团公司	长江电力 湖北能源	2
22	国家能源投资集团有限公司	中国神华 国电电力 龙源技术 长江电力 *ST平能 英力特 长源电力	7
23	中国电信集团公司	号百控股	1
24	中国联合网络通信集团有限公司	中国联通	1
25	中国移动通信集团公司		
26	中国电子信息产业集团有限公司	上海贝岭 深桑达 A 深科技 中国长城 中国软件 华东科技 南京熊猫 振华科技 彩虹股份 中电控股 冠捷科技	11
27	中国第一汽车集团公司	一汽轿车 一汽夏利 一汽富维 启明信息	4
28	东风汽车公司	东风汽车 东风科技	2
29	中国第一重型机械集团公司	*ST 一重	1
30	中国机械工业集团有限公司	常林股份 一拖股份 林海股份 国机汽车 国机通用 轴研科技 中工国际 蓝新科技	8
31	哈尔滨电气集团公司	东方电气	1
32	中国东方电气集团有限公司	东方电气	1
33	鞍钢集团公司	鞍钢股份 樊钢钒钛	2
34	中国宝武钢铁集团有限公司	宝武钢铁 宝信软件 八一钢铁 韶钢松山 宝钢包装	5
35	中国铝业公司	中国铝业 云南铜业	2
36	中国远洋海运集团有限公司	中远海特 中远海控 中远发展 中原还能 中远海发	5
37	中国航空集团公司	中国国航	1
38	中国东方航空集团公司	东方航空	1
39	中国南方航空集团公司	南方航空	1
40	中国中化集团公司	中化国际 扬农化工 英特集团 江山股份	4
41	中粮集团有限公司	中粮生化 中粮地产 中粮糖业 酒鬼酒	4

42	中国五矿集团公司	株冶集团 中国中冶 五矿发展 金瑞科技 中钨高新 五矿资本 五矿稀土	7
43	中国通用技术控股有限责任公司	中国医药 中国汽研	2
44	中国建筑工程总公司		
45	中国商用飞机有限公司		
46	国家开发投资公司	国投电力 国投中鲁 国投安信 中成股份	4
47	招商局集团有限公司	招商银行 招商轮船 中集集团 山东高速 梧州高速 深赤湾 A 宁沪高速 楚天高速 吉林高速 中原高速 深赤湾 B 南山控股 福建高速 龙江交通 宁波港	15
48	华润集团有限公司	华润三九 华润双鹤 东阿阿胶	3
49	中国旅游集团公司	中国中旅 华贸物流	2
50	中国储备粮管理总公司		
51	中国节能环保集团公司	太阳能 节能风电 万润股份 中环装备	4
52	中国国际工程咨询公司		
53	中国城通控股集团有限公司	中粮股份 岳阳林纸 冠豪高新 美丽云 粤华包 B	5
54	中国中煤能源集团有限公司	上海能源 中煤能源 新集能源	3
55	中国煤炭科工集团有限公司	天地科技	1
56	机械科学研究总院		
57	中国中钢集团公司	中钢国际 中钢天源	2
58	中国钢研科技集团有限公司	安泰科技 金自天正 钢研高纳	3
59	中国化工集团公司	安迪苏 沈阳化工 天科股份 风神股份 沧州大化 沙隆达 A 天华院 *ST 河化	8
60	中国化学集团公司	中国化学 东华科技	2
61	中国盐业总公司	兰太实业	1
62	中国建材集团有限公司	中国建材 北新建材 中材股份 中材国际 中国巨石 国检集团 中材科技 天山股份 瑞泰科技 凯盛科技 宁夏建材 国统股份 洛阳玻璃 祁连山 中村节能	15
63	中国有色矿业集团有限公司	中色股份 东方钨业	2
64	北京有色金属研究总院	有研新材	1

65	北京矿冶研究总院	北矿科技 当升科技	2
66	中国国际技术智力合作公司		
67	中国建筑科学研究院		
68	中国中车集团公司	中国中车 时代新材	2
69	中国铁路通信信号集团公司		
70	中国铁路工程总公司	中铁工业 中国中铁	2
71	中国铁道建筑总公司	中国铁建	1
72	中国交通建设集团有限公司	中国交建 振华重工 中房地产 振华 B 股	4
73	中国普天信息产业集团公司	*ST 上普 东方通信 宁通信 B 东信和平	4
74	电信科学技术研究院	大唐电信 高鸿股份	2
75	中国农业发展集团有限公司	中水渔业 中牧股份 农发种业	3
76	中国中丝集团公司		
77	中国林业集团公司		
78	中国医药集团总公司	国药股份 国药一致 天坛生物 现代制药	4
79	中国保利集团公司	保利集团 久联发展	2
80	中国建筑设计研究院		
81	中国冶金地质局		
82	中国煤炭地质总局		
83	新兴际华集团有限公司	际华集团 新兴铸管	2
84	中国民航信息集团公司		
85	中国航空油料集团公司		
86	中国航空器材集团公司		
87	中国电力建设集团有限公司	中国电建	1
88	中国能源建设集团有限公司		
89	中国黄金集团公司	中金黄金	1
90	中国广核集团公司	中广核技	1
91	中国华录集团有限公司	易华录 华录百纳	2
92	上海诺基亚贝尔股份有限公司		
93	武汉邮电科学研究院	光迅科技 烽火通信 长江通信 理工光科	4
94	华侨城集团公司	华侨城 A 深康佳 A	2
95	南光有限公司		
96	中国西电集团公司	中国西电	1

97	中国铁路物资总公司		
98	中国国新控股有限责任公司		

부록Ⅲ 직할시 포함한 실증분석 결과

1-1. 직할시 포함한 연구문제 1-1의 분석결과

변수 구분	확률효과모형				합동(Pooled) OLS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기업정치관련성	-0.0024*	-0.0017	-0.0038*	-0.0042**	-0.0006*	-0.0018*	-0.0019	-0.0017*
정치불확실성	-0.0008	-0.0008	-0.0008	-0.0008	0.0009	0.0009	0.0009	0.0009
지역장낙하산인사	0.0023**	0.0025**	0.0023**	0.0023**	0.0018***	0.0020***	0.0018***	0.0018***
지역장승진동기	0.0035	0.0035	0.0035	0.0035	0.0006	0.0006	0.0006	0.0006
역민영화더미	-0.0021	-0.0017	-0.0021	-0.0021	-0.0003	-0.0005	-0.0003	-0.0003
정치관련성*역민영화		-0.0019				0.0028		
낙하산인사*역민영화		-0.0005				-0.0006		
국진민퇴더미			0.0009**				0.0071***	
정치관련성*국진민퇴			0.0018				0.0017	
시진평반부패더미				0.0008**				0.0071***
정치관련성*시반부패				0.0037*				0.0023*
중앙기업더미	0.0002	0.0002	0.0003	0.0002	0.0000	0.0000	0.0000	0.0000
자산규모(로그)	-0.002***	-0.002***	-0.002***	-0.002***	-0.002***	-0.002***	-0.002***	-0.002***
ROA	-0.0029	-0.0029	-0.0029	-0.0029	0.0020	0.0021	0.0020	0.0020

부채비율	-0.0033*	-0.0033*	-0.0033*	-0.0034*	0.0029	0.0029	0.0029	0.0028
국가지분율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GRDP(로그)	-0.0004	-0.0004	-0.0004	-0.0004	0.0005	0.0005	0.0005	0.0005
지역재정자립도	-0.0040	-0.0041	-0.0040	-0.0039	-0.0012	-0.0012	-0.0012	-0.0011
상수항	0.0915***	0.0911***	0.0919***	0.0925***	0.0708***	0.0711***	0.0710***	0.0709***
지역더미(성더미)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산업더미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연도더미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R ²	0.2019	0.2018	0.2017	0.2022	0.2032	0.2035	0.2033	0.2034
Number of groups	2,168	2,168	2,168	2,168	2,168	2,168	2,168	2,168
Number of obs	9,739	9,739	9,739	9,739	9,739	9,739	9,739	9,739
Breusch-Pagan Test	0.0000	0.0000	0.0000	0.0000	-	-	-	-

주) *p<.10 **p<.05 ***p<.01

1-2. 직할시 포함한 연구문제 1-2의 분석결과

변수 구분	확률효과모형				합동(Pooled) OLS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기업정치관련성	0.0000	0.0000	0.0013	0.0013	0.0003	0.0006	0.0014	0.0013
정치불확실성	-0.0015	-0.0014	-0.0015	-0.0014	-0.0001	-0.0001	-0.0001	-0.0001
지역장낙하산인사	0.0002	0.0002	0.0002	0.0002	0.0005	0.0005	0.0005	0.0005
지역장승진동기	-0.0076***	-0.0065***	-0.0076***	-0.0076***	-0.0019***	-0.0019***	-0.0018***	-0.0018***
민영화더미	-0.0047**	-0.0031	-0.0047**	-0.0047**	-0.0001	0.0002	-0.0001	-0.0001
승진동기*민영화		-0.0027				-0.0031		
국진민퇴더미			-0.0001				0.0048	
정치관련성*국진민퇴			-0.0017				-0.0015	
시진평반부패더미				0.0000				0.0047
정치관련성*시반부패				-0.0021				-0.0018
자산규모(로그)	-0.0022***	-0.0022***	-0.0022***	-0.0022***	-0.0010***	-0.0010***	-0.0010***	-0.0010***
ROA	0.0018	0.0018	0.0018	0.0018	0.0032**	0.0032**	0.0032**	0.0032**
부채비율	-0.0135***	-0.0134***	-0.0134***	-0.0134***	-0.0023***	-0.0023***	-0.0023***	-0.0023***
오너지분율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GRDP(로그)	-0.0002	-0.0002	-0.0002	-0.0002	0.0009	0.0008	0.0008	0.0008

지역재정자립도	0.0054	0.0054	0.0055	0.0055	-0.0017	-0.0017	-0.0017	-0.0017
상수항	0.1107***	0.1097***	0.1100***	0.1101***	0.0250***	0.0249***	0.0247***	0.0248***
지역더미(성더미)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산업더미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연도더미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R ²	0.1298	0.1296	0.1300	0.1305	0.1472	0.1473	0.1474	0.1477
Number of groups	2,104	2,104	2,104	2,104	2,104	2,104	2,104	2,104
Number of obs	8,732	8,732	8,732	8,732	8,732	8,732	8,732	8,732
Breusch-Pagan Test	0.0000	0.0000	0.0000	0.0000	-	-	-	-

주) *p<.10 **p<.05 ***p<.01

2-1. 직할시 포함한 연구문제 2-1의 분석결과

변수 구분	확률효과모형				합동(Pooled) OLS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기업정치관련성	0.0616***	0.0455*	0.0239	0.0671***	0.0632***	0.0421**	0.0245	0.0645***
정치불확실성	-0.0237*	-0.0315*	-0.0234*	-0.0237*	-0.0276*	-0.0366*	-0.0274*	-0.0276*
지역장낙하산인사	-0.0031	-0.003	-0.003	-0.0031	-0.0052	-0.0051	-0.0051	-0.0052
지역장승진동기	0.0187	0.0184	0.0191	0.0187	0.0136	0.0132	0.0139	0.0136
역민영화더미	0.0049	-0.0002	0.005	0.0049	0.0071	-0.0036	0.0072	0.0071
정치관련성*역민영화		0.0387						
정치불확실성*역민영화		0.0217						
국진민퇴더미			-0.0435					
정치관련성*국진민퇴			0.0500					
시진핑반부패더미				-0.0368				
정치관련성*시반부패				-0.0111				
중앙기업더미	-0.0118	-0.0118	-0.0119	-0.0118	-0.014	-0.0143	-0.0141	-0.014
자산규모(로그)	0.0097	0.0095	0.0098	0.0097	0.0048	0.0046	0.0049	0.0048
ROA(전기)	0.0019	0.0018	0.0019	0.0019	0.0021	0.0021	0.0021	0.0021
TobinQ(전기)	0.0149***	0.0148***	0.0150***	0.0149***	0.0165***	0.0164***	0.0165***	0.0165***

부채비율	-0.0033	-0.0033	-0.0033	-0.0033	-0.0051	-0.0051	-0.0051	-0.0051
국가지분율	-0.0003	-0.0003	-0.0003	-0.0003	-0.0003	-0.0003	-0.0003	-0.0003
관리비용율	-0.1556***	-0.155***	-0.156***	-0.1555***	-0.1551***	-0.1553***	-0.1556***	-0.1551***
GRDP(로그)	0.0168	0.0167	0.0168	0.0169	0.0152	0.0149	0.0151	0.0152
지역재정자립도	0.0624	0.0635	0.0617	0.0621	0.065	0.0672	0.0646	0.065
상수항	-0.2604	-0.2539	-0.2547	-0.2616	-0.1663	-0.1545	-0.1608	-0.1666
지역더미(성더미)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산업더미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연도더미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R ²	0.1375	0.1382	0.1384	0.1389	0.1548	0.1551	0.1550	0.1556
Number of groups	2,167	2,167	2,167	2,167	2,167	2,167	2,167	2,167
Number of obs	9,734	9,734	9,734	9,734	9,734	9,734	9,734	9,734
Breusch-Pagan Test	0.0000	0.0000	0.0000	0.0000	-	-	-	-

주) *p<.10 **p<.05 ***p<.01

2-2. 직할시 포함한 연구문제 2-2의 분석결과

변수 구분	확률효과모형				합동(Pooled) OLS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기업정치관련성	0.0124*	0.0169**	0.0370***	0.0220**	0.0149**	0.0197***	0.0357***	0.0210**
정치불확실성	0.0098	0.0106	0.0098	0.01	0.011	0.0118	0.0111	0.0111
지역장낙하산인사	-0.0116*	-0.0241***	-0.0119*	-0.0117*	-0.0127**	-0.0261***	-0.0129**	-0.0127**
지역장승진동기	0.0133	0.0157	0.0131	0.0132	0.0099	0.012	0.0097	0.0098
민영화더미	-0.0094	-0.0148*	-0.0095	-0.0096				
정치관련성*민영화		-0.0125				-0.0136		
낙하산인사*민영화		0.0335***				0.0351***		
국진민퇴더미			-0.019				-0.0041	
정치관련성*국진민퇴			-0.0327**				-0.0276**	
시진평반부패더미				-0.0244*				-0.0094
정치관련성*시반부패				-0.0176				-0.0114
자산규모(로그)	0.0155***	0.0156***	0.0154***	0.0155***	0.0123***	0.0124***	0.0121***	0.0122***
ROA(전기)	0.4034***	0.4025***	0.4012***	0.4024***	0.4463***	0.4447***	0.4438***	0.4454***
TobinQ(전기)	0.0079***	0.0079***	0.0078***	0.0078***	0.0076***	0.0076***	0.0075***	0.0076***

부채비율	-0.0154	-0.0157*	-0.015	-0.015	-0.0114	-0.0116	-0.0111	-0.0112
오너지분율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관리비용율	-0.0755*	-0.0754*	-0.0769**	-0.0757*	-0.0700**	-0.0699**	-0.0708**	-0.0699**
GRDP(로그)	-0.0042	-0.0043	-0.0042	-0.0041	-0.0023	-0.0022	-0.0023	-0.0022
지역재정자립도	0.0439	0.0428	0.0448*	0.0442	0.0377	0.0365	0.0382	0.0378
상수항	-0.1924**	-0.1911**	-0.1986**	-0.1951**	-0.1567**	-0.1579**	-0.1609**	-0.1579**
지역더미(성더미)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산업더미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연도더미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R ²	0.2142	0.2146	0.2145	0.2147	0.3822	0.3821	0.3824	0.3825
Number of groups	2,148	2,148	2,148	2,148	2,148	2,148	2,148	2,148
Number of obs	8,948	8,948	8,948	8,948	8,948	8,948	8,948	8,948
Breusch-Pagan Test	0.0000	0.0000	0.0000	0.0000	-	-	-	-

주) *p<.10 **p<.05 ***p<.01

3-1. 직할시 포함한 연구문제 3-1의 분석결과

변수 구분	확률효과모형				합동(Pooled) OLS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기업정치관련성	0.0020*	0.0014	0.0037*	0.0037**	0.0050***	0.0022	0.0052**	0.0053***
정치불확실성	-0.0010	-0.0010	-0.0010	-0.0010	0.0000	0.0000	0.0000	0.0000
지역장낙하산인사	0.0011	0.0011	0.0011	0.0011	-0.0013	-0.0013	-0.0013	-0.0013
지역장승진동기	0.0032**	0.0030*	0.0032**	0.0032**	0.0028**	0.0033**	0.0028**	0.0028**
역민영화더미	-0.0010	-0.0017	-0.0010	-0.0010	0.0004	-0.0017	0.0004	0.0004
정치관련성*역민영화		0.0014				0.0067***		
승진동기*역민영화		0.0007				0.0016		
국진민퇴더미			-0.0053**				-0.0016**	
정치관련성*국진민퇴			-0.0022				-0.0003*	
시진평반부패더미				-0.0053**				-0.0016*
정치관련성*시반부패				-0.0034*				-0.0006*
중앙기업더미	0.0001	0.0001	0.0001	0.0001	-0.0003	-0.0003	-0.0003	-0.0003
자산규모(로그)	-0.0012**	-0.0012**	-0.0012**	-0.0012**	0.0018	0.0018	0.0018	0.0018
부채비율	-0.0525***	-0.0525***	-0.0525***	-0.0525***	-0.0678***	-0.0678***	-0.0678***	-0.0678***

국가지분율	0.0000	0.0000	0.0000	0.0000	0	0	0	0
GRDP(로그)	0.0005	0.0005	0.0005	0.0005	0.001	0.001	0.001	0.001
지역재정자립도	0.0010	0.0011	0.0011	0.0009	0.0060*	0.0064*	0.0060*	0.0060*
상수항	0.0883***	0.0887***	0.0879***	0.0878***	0.0167	0.0189*	0.0167	0.0167
지역더미(성더미)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산업더미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연도더미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R ²	0.1599	0.1603	0.1598	0.1598	0.1794	0.1801	0.1794	0.1794
Number of groups	2,170	2,170	2,170	2,170	2,170	2,170	2,170	2,170
Number of obs	9,738	9,738	9,738	9,738	9,738	9,738	9,738	9,738
Breusch-Pagan Test	0.0000	0.0000	0.0000	0.0000	-	-	-	-

주) *p<.10 **p<.05 ***p<.01

3-2. 직할시 포함한 연구문제 3-2의 분석 결과

변수 구분	확률효과모형				합동(Pooled) OLS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기업정치관련성	0.0021*	0.0024*	0.0048**	0.0041***	0.0046***	0.0048***	0.0100***	0.0080***
정치불확실성	-0.0016	-0.0016	-0.0016	-0.0016	-0.0016	-0.0015	-0.0015	-0.0015
지역장낙하산인사	-0.0033***	-0.0040***	-0.0033***	-0.0033***	-0.0020*	-0.0032**	-0.0020*	-0.0020*
지역장승진동기	-0.0002	-0.0002	-0.0002	-0.0002	-0.0076	-0.0074	-0.0076	-0.0076
민영화더미	-0.0035**	-0.0039**	-0.0036**	-0.0036**	-0.0028***	-0.0035***	-0.0029***	-0.0029***
정치관련성*민영화		-0.0007				-0.0006		
낙하산인사*민영화		0.002				0.0032		
국진민퇴더미			-0.0045**				0.0028	
정치관련성*국진민퇴			-0.0036*				-0.0071***	
시진평반부패더미				-0.0047**				0.0021
정치관련성*시반부패				-0.0036**				-0.0063***
자산규모(로그)	-0.0017***	-0.0017***	-0.0017***	-0.0017***	0.0010	0.0010	0.0010	0.0010
부채비율	-0.0251***	-0.0251***	-0.0251***	-0.0250***	-0.0445***	-0.0445***	-0.0444***	-0.0444***
오너지분율	-0.0001**	-0.0001**	-0.0001**	-0.0001**	0.0000	0.0000	0.0000	0.0000

GRDP(로그)	0.0014	0.0014	0.0014	0.0014	0.0035***	0.0035***	0.0035***	0.0035***
지역재정자립도	-0.0018	-0.0019	-0.0017	-0.0018	-0.0016	-0.0017	-0.0014	-0.0015
상수항	0.0832***	0.0833***	0.0818***	0.0820***	0.0038	0.0037	0.0022	0.0026
지역더미(성더미)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산업더미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연도더미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R ²	0.1141	0.1144	0.1150	0.1151	0.1375	0.1377	0.1383	0.1384
Number of groups	2,191	2,191	2,191	2,191	2,191	2,191	2,191	2,191
Number of obs	9,668	9,668	9,668	9,668	9,668	9,668	9,668	9,668
Breusch-Pagan Test	0.0000	0.0000	0.0000	0.0000	-	-	-	-

주) *p<.10 **p<.05 ***p<.0

Abstract

Do Political Connectedness and Political Patronage Affect Corporate Performance of China's Listed State-Owned and Privatized Enterprises?

PIAO LONG

Department of Public Policy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China has enjoyed sustained economic growth based on a gradual, local government-centered marketization strategy since the 1978 economic reform. Yet, such a developmental strategy has produced problems of regional disparity and business-government collusion. Government's monopoly over factor markets,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concentration of economic resources in state-owned enterprises have become the underlying factors of vulnerabilities in the country's market economy. In such immature market economy system, Chinese enterprises are incentivized to minimize external uncertainty by way of maintaining close relationship with the government and securing preferential treatment. However, such deep-seated collus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corporations may engender government and corporate corruption, another source of threat to the sustainability of the country's economic growth.

That said, empirical analyses on Chinese firms' political connectedness and its effects on corporate performance are extremely scarce. Recent studies on how Chinese privatized firms' political relations affect the size of financing and the burden of taxation did not properly account for regional factors. Nonetheless, central government's heavy involvement in corporate personnel administration such as

frequent replacement of city secretary can predictably have substantial consequences for business activities.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s of political connectedness and frequent replacement of city secretaries on corporate activities of 1) state-owned enterprises and 2) privatized enterprises. Specifically,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how CEO's political connectedness, political uncertainty arising from replacement of city secretary, patronage politics, and city secretary's desire for promotion are related to tax burden (Chapter 5), corporate investment (Chapter 6) and corporate performance (Chapter 7). In addition, each chapter also looks into how the policy of 'guojinmintui' ("the state enterprises advance, the privatized sectors retreat") and the anti-corruption policy moderate preferential treatment given to enterprises based on their political connectedness.

From empirical analyses applying random-effect and pooled OLS models to a panel data of listed state-owned enterprises and privatized companies from 2008 to 2017, following conclusions are drawn.

Chapter 5 finds that political connectedness of state-owned enterprises substantially lowered the burden of corporate taxation. At the same time, the appointment of city secretary based on political patronage increased state-owned enterprises' tax burdens, suggesting that such personnel administration reduce preferential tax treatment. In addition, the Xi administration's anti - corruption policy was also found to diminish the benefit of preferential taxation which state-owned enterprises obtain due to political connectedness. For privatized companies, political connectedness was found to substantially reduce the tax burden. In addition, the city secretary's motivation for promotion also substantially reduced the tax burden on privatized companies. This is because a city secretary who is more motivated for promotion imposes less tax on privatized enterprises with a view to inducing more investment in the local economy. Meanwhile, the policy of reviving state-owned enterprises and anti-corruption policy did not reduce preferential tax treatment of privatized enterprises due to their political connectedness.

Analyses in Chapter 6 find that the political connectedness of state-owned enterprises substantially increased corporate investment. On the other hand, the political uncertainty caused by unexpected replacement of city secretaries resulted in short-term contractions of investment in state-owned enterprises. The anti-corruption and SOE revival policies, to the contrary, did not reduce the investment in state-owned enterprises due to political connectedness. In the case of privatized companies, political connectedness substantially increased corporate investment, indicating that privatized enterprises also benefit from political relationships. Further, political appointment of city secretary was found to lead to contraction of investment in privatized enterprises. This indicates that privatized companies, lacking the same level vertical integration in the provincial and central government's policy considerations, are more vulnerable to political uncertainties arising from city secretary's replacement. Moreover, the policy of advancing state-owned enterprises was found to reduce privatized enterprises' investment benefits due to their political connectedness.

Chapter 7 analyzes and discusses political factors that affect corporate performance. State-owned enterprises' political connectedness was found to have positive influence on their corporate performance. City secretary's motivation for promotion also showed a positive relationship, indicating that city secretary's higher motivation for promotion is associated with better performance of state owned enterprises. This also means that a city committee secretary's promotion is in part determined by corporate performance. On the other hand, the Xi administration's anti-corruption campaign was found to lessen performance enhancement arising from political connectedness. Further, political appointment of city secretaries was found to negatively affect corporate performance, particularly by contracting investment in privatized enterprises. Thus, as a whole, Xi administration's anti-corruption and SOE revival policies were found to offset enhancement in corporate performance stemming from political connectedness.

Keywords: Political connectedness, Political patronage, Business-government collusion, State-owned enterprises, Privatized enterprises, China.

Student ID: 2015-30785

감사의 글

생을 주신 부모님, 생을 빛나게 해주신 지도교수님, 생을 함께 해줄
와이프에게 특별한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祿諾와 祿暄의 父
2019년 07월